



Pre 2014 아시아 문화포럼

Pre 2014 Asia Culture Forum

아시아의 동반성장과 동아시아문화도시
Mutual Growth of Asia and East Asia City of Culture

2014.5.22(목) 13:30 -18:30
전남대학교 용봉홀

Pre 2014아시아문화포럼 자료집

주최 광주광역시, (재)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주관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학회, 전남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대학교

발행처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발행인 이 연

편집인 김 성

발행일 2014. 5. 20.

□ Pre 2014아시아문화포럼 준비

아시아문화포럼 집행위원회

류재한(집행위원장, 아시아문화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송진희(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정성구(아시아문화학회 이사) / 정희자(광주교육대학교 초등체육교육과 교수)

황병하(조선대학교 아랍어학과 교수) / 조현주(전남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이언용(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담운영협력과 사무관)

김인천(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수도정책담당)

선재규(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 박호재(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이언용(전담운영협력과 사무관) / 구고운(전담운영협력과 연구원)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김인천(문화수도정책담당) / 구승연(문화수도정책관 주무관)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 / 기획홍보팀

선재규 / 김지원 이유진 한재림 강현미 서환희 김형미 송선아

포럼 진행

(주)누리커뮤니케이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313호

전화 064-748-1040 팩스 064-064-746-9317 홈페이지 www.nuricomm.net

유영신, 변우현, 박수범, 고상문, 이현주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주소 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전화 062-670-7400 팩스 062-670-7429 홈페이지 www.gjcf.or.kr

아시아문화포럼 홈페이지 www.asiaforum.or.kr

* 이 책에 수록된 글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광주문화재단에 있습니다.

Pre 2014 아시아 문화포럼

Pre 2014 Asia Culture Forum

아시아의 동반성장과 동아시아문화도시
Mutual Growth of Asia and East Asia City of Culture

목 차

07	Pre 2014아시아문화포럼 개요
08	환영사 지병문(전남대학교 총장)
09	축사 광주광역시장
10	축사 지건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12	기조연설자 발제자 약력
13	기조연설 정동채(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19	세션 1 문화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71	세션 2 문화산업과 문화공동체

Pre 2014 아시아문화포럼 개요

○ 주제 : 아시아의 동반성장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Mutual Growth of Asia and East Asia City of Culture)

○ 일시 및 장소 : 2014. 5. 22(목), 전남대학교 용봉홀

시간	구분	내 용
14:00 ~14:30	개회식	개회선언 류재한(아시아문화포럼 집행위원장)
		환영사 지병문(전남대학교 총장)
		축 사 광주광역시장 지건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기조연설	정동채(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세션 1 : 문화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좌장 _ 안경환(조선대학교 영어과 교수)		
14:30 ~16:10	발제 1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 정성구(아시아문화학회 이사)
	토론 1	김인설(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발제 2	문화도시 취안저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린 샤오환(취안저우학 연구소장/화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토론 2	김하림(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발제 3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을 통한 한-중-일 3국의 도시간 문화교류의 의의와 가능성 사사키 마사유키(도시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3	김용의(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질 의 응 답
세션 2 : 문화산업과 문화공동체 좌장 _ 조현영((주)더 마인 대표)		
16:30 ~18:10	발제 4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 방안 :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김명중(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세경(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강신겸(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5	일본의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부흥과 그 의의 노다 구니히로(돗토리대학교 지역학과 교수)
	토론 5	차재근(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발제 6	취안저우의 지역문화와 민간공예미술 차이 원송(취안저우시 공예미술협회 상무부비서장) 황웬중(취안저우 사범대학교 디자인&미술학과 부학장)
	토론 6	양희석(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질 의 응 답
18:10 ~18:30		폐 회

환영사

지병문

전남대학교 총장

교정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의 조합이 잘 어울리는 5월입니다. 이처럼 좋은 때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한국과 중국·일본의 문화 전문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화는 인간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기계와 돈,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 사람의 자리를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문화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성 상실의 현장들은 모두 ‘문화 결핍’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명 존중의 ‘문화’가 있었다라면, 것처럼 참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시화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뒷전으로 밀려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화’ 없는 도시화와 개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온갖 분쟁과 갈등, 산업공해의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시와 국가들이 ‘문화’를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문화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개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를 떠받치는 것 또한 문화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해온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이 광주정신을 낳았습니다. 맛과 멋, 의(義)를 숭상한 광주 사람들의 기질이 ‘인본(人本)’의 문화사상과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광주가 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요체는 공감과 교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라도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공감을 넘어 다른 사회와 소통하고 공유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주와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교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국을 대표해 각국 문화의 동질성과 다양성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문화’를 창조해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14 아시아문화포럼의 주제도 세 도시의 교류와 ‘아시아의 문화적 동반성장’입니다. 각 국을 대표하는 문화학자들의 연구논문 발표와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나아갈 방향과 상생의 길이 찾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의 행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광주의 위상을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의 성과를 오는 10월 열리는 ‘2014아시아문화포럼’ 본 행사에까지 연결시켜 아시아의 문화융성과 동반성장의 확실한 동력을 살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광주문화재단과 아시아문화학회, 전남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 사

광주광역시장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신록의 계절에 역사 깊은 교육의 전당 전남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포럼의 발제자로 참가해주신 국내외 저명한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하오며, 본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조연설을 맡으신 정동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포럼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문화인들이 활발한 문화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발전되고,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문화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립한 이래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하반기에 개최할 Pre행사로서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기념하여 ‘아시아의 동반성장과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주제로 광주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일본 요코하마시, 중국 취안저우시가 참여하여 개별 도시의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각 도시간 문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보다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에 건립되는 2015년 개관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아시아문화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나라와 도시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이끌어내어 아시아 문화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시아문화포럼(Asia Culture Forum)이 아시아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보다 폭넓게 소통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창대케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문화도시 광주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포럼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 사

지건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동아시아 문화도시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이번 국제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한중일 3국은 물론 아시아 동반성장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 길을 오신 일본의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와 노다 구니히로 교수, 중국의 린샤오환 교수, 차이 원송 상무부비서장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중일 3국은 2013년 9월 이곳 광주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의 광주광역시, 중국의 취안저우시,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도 ‘아세안 문화장관회의’를 통하여 아세안의 정체성과 인지도를 강화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창의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아세안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단지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간의 융·복합, 도시재생사업 등과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이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문화도시사업’으로 확대·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공유·공존하고, 국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창조와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도시를 만들려는 원대한 계획의 국책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은 이러한 가치를 집약한 시설로서 문화예술의 힘으로 세워질 ‘아시아 공동의 집’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도시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것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적 산업생산을 토대로 한 양적 경제 성장에 주력했다면이제는 ‘보다 더 인간을 위한’ 질적 성장의 도시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고유한 역사에 문화를 덧칠하고 무한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도시, 창조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과거 우리의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극복하고 한·중·일 문화도시 간 연대를 통해 소통과 창조,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타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가 소통하는 열린 공동체, 창의성이 발휘되고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융합되는 창조적인 공동체,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의 연대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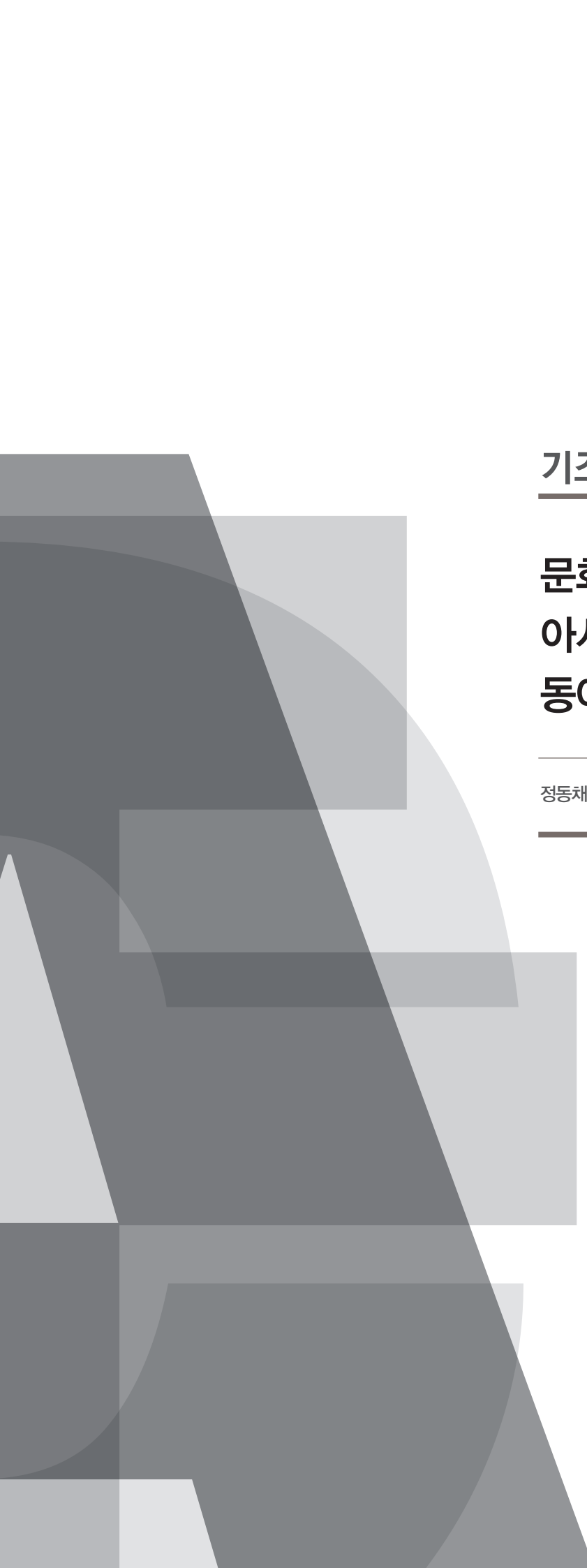
저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한·중·일 3국의 학자, 도시계획자, 예술가는 물론 동아시아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면서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광주광역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포럼 집행위원회, 아시아문화학회, 전남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자, 발제자 약력

구 분		성 명	약 력
기조연설		정동채 (Jeong, Dongchae)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 문화관광부 장관 역임 - 제15, 16, 17대 국회의원
세 션 1	발 제	정성구 (Jeong, Seong-goo)	아시아문화학회 이사 - 현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 현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린 샤오촨 (Lin Shaochuan)	취안저우학 연구소장/화교대학 역사학과 교수 - 민남문화, 취안저우학, 지방사, 해외중화문화 등 연구 - 저서 「화교족보연구」 등 다수
		사사키 마사유키 (Masayuki Sasaki)	도시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오사카시립대학 창의도시대학원 학장 역임 - 일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고문 - 저서 「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 등 다수
세 션 2	발 제	김명중 (Kim, Myungjoong)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리랑TV부사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감사 - 국무총리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최세경 (Choi, Sekyoung)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미래전략팀장 -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노다 구니히로 (Kunihiro Noda)	돗토리대학교 지역학과 교수 - 요코하마시 문화행정 담당 - 2010, 2013 아이치 트리엔날레 집행위원회 - 저서 「창조도시 요코하마」 등 다수
		차이 원쑹 (Cai Wenxiong)	취안저우시 공예미술협회 상무부비서장 - 취안저우시 제2경공업총협회 외경리과부과장 - 현 취안저우시 성진그룹공업연합사 당위원회 부주임
		황웬중 (Huang Wenzhong)	취안저우 사범대학교 디자인&미술학과 부학장



기조연설

문화교류와 문화공존의
아시아문화공동체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정동채 /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문화교류와 문화공존의 아시아문화공동체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정동채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1. 시작하며

문화란 단순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규정하는 협의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매개하게 되는 유·무형의 광의적 개념으로서 국내외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개시년도에 광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문화포럼의 주제로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는 도시의 대외적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경제·통상을 포함한 제반 교류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 도시들은 문화교류를 통해 도시민들의 창조적 능력이 발휘된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자기도시의 문화경제를 증진시키며, 문화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화공동체란 문화적으로 단일한 구성원들만의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 또는 이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지역에서 소통하는 지역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개방적인 지역으로, 문화수신지역에서 문화발신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민들은 도시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되며, 소통의 과정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감’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냄으로써 공동체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다양한 풍습과 인종이 모여 있으며 모든 종교가 있는 아시아는 사람 사는 모습이 가장 다채로운 곳이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속해있는 동아시아는 어떤 때는 정치적 협력과 문화적 동반자로서, 어느 시기에는 갈등과 반목으로 애증이 점철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 와서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여러 정황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들 간의 교류는 큰 의미가 있다.

2.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취지

한중일 3국의 문화장관은 2012년 5월 3국간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의 이해’ 등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선정된 도시는 현대예술문화와 전통문화, 다채로운 생활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내 상호 이해 및 연대감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된다. 해당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살려 문화예술, 창조산업, 관광진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실시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올해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원년으로써 중국의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광주가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부산, 대구, 경주, 전주, 부천 등 6개의 문화도시가 경합하였으며 광주를 최종 선정하였다. 사업개시 년도인 2014년에는 한·중·일을 대표하여 각 국가별로 1개의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순연하여 1개 도시가 선정되게 된다. 선정 기준으로는 동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성과, 문화도시, 창조도시로서의 시책 전개 실적 및 향후 계획, 실시된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게 된다.

취안저우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가 있는 중국의 손꼽히는 역사문화도시로서, 특히 취안저우의 문화보호 및 문화 계승에서의 성과는 매우 특별하다.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과의 교역이 활발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요코하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서양 문물이 전해진 곳으로 개항 이래 150여 년간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발달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창조도시를 지향했으며,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를 포함하여 가로를 무대로 전개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사업, 창조도시 시책 등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왔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고 광주가 가진 문화적 자원을 아시아와 세계의 문화도시와 공유하고자 한다. 광주가 겪은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면서 형성된 인본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 비엔날레 등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인류와 함께 나누고 있다.

이들 세 도시는 동아시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도도시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국가 간 상호 이해 및 연대감 형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공동체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미래

1985년 시작된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는 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경제효과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주목되면서 유럽공동체 및 도시발전의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도시로서의 대내외적 인지도, 방문객 증가, 문화산업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희망도시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는 복수의 도시가 지정되었고 2011년부터는 별개의 나라 2개 도시간 문화협력과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은 단순히 해당도시의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도시의 발전과 혁신을 조장하는 범유럽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도 역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특수한 맥락과 사정을 감안하면 다양성과 이질성이 소통되고 이해되는 문화공동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EU처럼 다양성이 존중되고 공동의 문화유산이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정치와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역내 국가들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평화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유교문화’를 토대로 하는 ‘한자’라는 동일한 의사소통 수단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과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3국은 문화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자긍심으로 인해 연대의식과 이해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취안저우, 요코하마, 광주는 동아시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도도시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질적인 문화적 특성과 이질적인 특성들을 동시에 지니는 혼성적인 문화정체성 지역인 한중일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성을 포용해, 서구와 대비되는 동아시아만의 문화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세계의 어느 지역권보다도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신뢰의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공유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중·일이 공통으로 만든 문화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같이 공부하고 합작하는 기회로서 상호 배움의 자세로 각 도시를 방문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브랜드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면 광주의 문화와 취안저우의 문화, 요코하마의 문화가 함께 빛날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원년의 취안저우, 요코하마, 광주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동아시아의 각 국가 간에 문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여 동아시아의 세계적 문화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세션 1

문화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발제 1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
정성구 / 아시아문화학회 이사

토론 1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김인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발제 2 문화도시 취안저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린 샤오촨 / 취안저우학 연구소장, 화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토론 2 동아시아 문화도시 취안저우의 어제, 오늘, 내일
김하림 /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발제 3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을 통한 한·중·일 3국의
도시간 문화교류의 의의와 가능성
사사키 마사유키 / 도시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3 문화도시 요코하마의 문화정체성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참여는 어떠한가?
김용의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좌장 안경환(조선대학교 영어과 교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

정성구

아시아문화학회 이사

1. 들어가며

본 글은 대한민국의 제1호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의 문화적 역량과 교류사업에 대해 고찰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한 문화공동체의 의미와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광주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¹⁾ 이를 위해 도시간 문화교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문화공동체와 관련한 예비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문화교류 분야에 있어서 광주의 그간의 성과와 역량에 대해 정리하였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의 취지를 ‘국가간 상호 이해 및 연대감 형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보고, 이를 통해 아시아의 문화예술 진흥 및 호혜적 발전을 추구하고 교류협력 활성화가 역내 평화구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개시년도의 3개 선정도시, 즉 취안저우, 요코하마, 광주의 문화적 공동번영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방안을 제언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 및 이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사유체계 등을 규정하는 협의적 개념과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매개하는 유·무형의 광의적 개념으로서 국내외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그램의 개시년도에 아시아문화포럼의 주제로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동아시아문화교류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이것은 동아시아의 각 국가 간에 문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여 동아시아의 세계적 문화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2. 왜 문화교류가 중요한가

문화교류란 다양한 인류문화의 기본적인 평등성을 인정하고, 문화의 상호 이해를 보다 깊게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정치 경제적 교류를 제외한 모든 교류를 포괄한다.²⁾ 미래의 도시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념·조직의 연구 및 국가간의 문화외교나 관광도 문화교류의 한 부분으

1) 동아시아의 물리적 범위는 한중일 이외의 국가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추진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3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논의의 대상도 우선 3국을 대상으로 한다.

2) 정성구, 문화교류도시 광주를 위한 전략과 제언, 광주 국제문화교류협의회, 2009. 3, p. 1.

로 볼 수 있다.

문화교류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경제·통상을 포함한 국가 간 제반 교류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많은 나라들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교류를 통해 자국 국민들의 창조적 능력이 발휘된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자국의 문화경제를 증진시키며 문화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교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³⁾

- **도시간 우호의 증대** : 현대는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 경쟁의 시대이자 협력의 시대이다. 문화교류를 통한 이해를 통해 국가적·지역적 교류의 한계를 깨고 친선을 유지할 수 있다.

- **인적 교류기반의 형성** : 문화교류를 위한 활발한 교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 휴먼 인프라를 조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적 교류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전파를 위한 교두보 및 거점을 마련한다.

- **지역적 연대성 확보** :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 동남아 국가간의 문화정보의 교류를 통해 서양과 구분되는 동양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연대성을 유지하며 아시아 고유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실제 이슬람 문화권, 유럽 문화권, 서반아어 문화권, 동남아 문화권 등 문화권역별 통합과 권역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해지고 있다.

-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 :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차별성을 인지하고 소개함으로써,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따른 문화의 세계화, 국제화를 이끌 수 있다.

- **지자체의 활성화 및 발전** : 상대적으로 국제수준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시민들에게 문화교류 행사를 통하여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문화 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 **광주 도시브랜드의 고양** : 광주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문화교류사업은 광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할 것이며 각 교류도시 및 관련 사업에 광주의 브랜드를 알리게 된다.

종합해 보면 문화교류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역동적인 세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발전시켜서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구축함과 동시에, 보다 우호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문화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⁴⁾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아시아문화공동체

1) 문화공동체란?

그렇다면 문화공동체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공동체란 각각의 특성을 가진 집단들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 연관되는 것이며, 이는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집단의 문화로 동화(assimilation)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하나

3) 정성구, 앞책, p. 3 재정리.

4) 류정아 외, 동북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특별연구, 2003, p. 7.

의 전체적인 체계를 위해 공존하는 통합(integration)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

문화공동체를 통합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과정동안 문화교류를 통해 공감지점을 넓혀가고 심화시키며 네트워크와 연대를 구축하는 것⁶⁾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문화공동체의 최종 목표를 공동체 형성으로 보기 보다는 문화교류를 통해 거리감을 좁히는 만남의 장의 구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공동체는 각 도시의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가치와 미적 기준들을 접함으로써 상대도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돕는 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틀에서 문화공동체란 문화적으로 단일한 구성원들만의 집단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 또는 이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을 공존의 틀 속에, 연대를 구축하여 통합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지역에서 소통하는 지역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개방적인 지역으로, 문화수신지역에서 문화발신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민들은 도시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되며 소통의 과정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감’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룸⁸⁾으로서 공동체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구성 여건

한·중·일 삼국은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에 있어 ‘유교문화’를 토대로 하는 ‘한자(漢字)’라는 동일한 의사소통 수단을 공유하고, 역사성의 측면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식민지·반식민지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유교와 불교, 도교 등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동의하고 있다. 종교와 일상생활의 깊은 연관관계 또한 사회문화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종 제도와 공동유산을 비롯한 음식 등 생활양식의 유사성 등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동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교문화’와 ‘한자문화’ 등에서 출발된 공동 전통유산의 동질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실제적인 문화협력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⁹⁾ 역사적으로 볼 때 한·중·일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은 연대의식과 이해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했다. 문화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은 자국 문화의 우월성에 만족하는 극단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문화 수용에 절대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나아가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⁰⁾ 결국 동아시아의 근본적 가치와 세계관이 동질적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피

5) 신승빈, 예술교류를 통한 문화외교 연구, 경희대 석논, 2009, p. 48.

6) 정정숙, 문화공동체 시각에서 본 동북아시대 구상,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이론적 기초와 체계, 도서출판 오름, 2006, pp. 125-154.

7) 신승빈, 앞 책, p. 49.

8) 제러미 리프킨, 이원기 역, 유러피언 드림, 믿음사, p. 351.

9) 이희옥, 동북아시대 시민사회와 문화교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3a, p. 123, 유교적 가치관과 규범, 조화론적 사상, 인간관계의 중시 등을 동아시아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으나 이희옥은 유교적 가치가 가족주의, 연장자에 대한 존중과 질서, 공동체적 집단주의 등 인간 본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근간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유교주의를 기초로 한 지나친 통합은 창의성과 다원주의를 해치며, 사회나 문화의 적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보았다.

10) 새뮤얼 헌팅턴은 자신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지역은 지리와 문화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국가들 사이의 협조를 낳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문화적 이질성이 크면 지리적 근접성은 동질성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하였다.

상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은 결코 단일하지 않은 혼성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구상은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어 그 실현이 쉽다는 낙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특수성이나 다양성 또는 이질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는 문화간 소통 능력의 배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문화공동체의 형성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 문화정체성 추구

동아시아는 아시아적 가치¹¹⁾와 같은 동질적인 문화적 특성과 이질적인 특성들을 동시에 지니는 혼성적인 문화정체성 지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간의 역동적인 다양성을 혼성적 역사 변화 과정의 결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한편, 서구와 대비되는 동아시아만의 문화정체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내의 일상적이고 폭넓은 문화, 예술교류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발견하고 문화적 유대형성에 기여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향유하여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장으로써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¹²⁾

□ 상호 이해와 신뢰

상호 이해와 신뢰가 없이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도 실현될 수 없다. 폭넓고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중·일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피해의식과 민족주의적 갈등의 요소가 아직도 간과할 수 없는 내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3국은 서로의 공통분모를 키움으로써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문화’는 한·중·일이 공통분모를 키우고 정체성을 공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보’나 ‘경제’ 분야보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영역이다.

□ 지속적인 교류와 공유

설령 공동체가 형성되더라도 타 국가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지속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세계의 어느 지역권보다도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신뢰의 구축이 필요하

11) 1970년대 초 아시아 국가들의 고도경제성장 요인을 해명하기 위해 서방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매스컴이 일궈낸 개념. 대체로 가족주의(가부장적 권위), 정실주의, 인치주의, 권위주의, 민족의식, 공동체의식, 교육열, 근면성 등 주로 유교사상에서 나온 동양 특유의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주의, 합리주의, 인권주의, 법치주의 등을 지향하는 서방국가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고,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12) 신승빈, 앞 책, p. 54.

다. 이는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체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공동체 의식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며 이 신뢰감은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4. 광주의 문화교류 및 역량

광주는 부산, 대구, 경주, 전주, 부천 등 한국의 대표적 문화도시들과 경쟁하여 당당히 사업 원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본 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체로서 광주의 문화교류 실적과 역량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한·중·일 문화교류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교류, 예술 공연, 학술행사 및 전시협력 분야에서 동아시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공연예술단, 여성작가 교류전 등 20여건의 동아시아 국제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분 야	주요 내용 (2008~2012)
미술전시	• 중국 북경, 허난성 초청 교류전시(2012), 4회 • 대만 국립미술관 교류전시(2008~2012), 3회 • 국제여성미술제(2012)-중국, 몽골, 필리핀 등 12개 국가 참여
레지던시(미술)	•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작가와의 레지던시(2012) - (재)광주비엔날레 주관 7명
공연교류	• 일본 문부성 초청 시립교향악단 방문 공연(2010) • 중국 북경시 초청 시립무용단 방문 공연(2010) • 한·중 공연 예술 축제(2011~2012), 2회 • 일본 센다이 콘서트 공연(2010), 일반 지바 현 초청 합창공연 • 임방울 국악제 수상자 공연(2010~2012), 일본, 우즈베키스탄 • 서호 국제박람회 발레 초청공연(2010), 중국
문화교류	• 중국 광저우 도서관과의 문화교류(2010~2013) • 한·중수교 19주년 기념 중국초청 발레공연(2011) • 일본 센타이 자매결연 기념 국극단 방문공연(2012) • 한·일 문화교류 행사(2012), 일본 오노조시 • 한·중 노인 문화교류(2010~2013), 89회 • 광주-고베비엔날레 교류행사(2012) •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2012~2013), 중국 14회, 홍콩 1회, 대만 1회 • 문화교류단 행사 교류(2011~2012), 중국 2회, 일본 2회 • 정월성 축제 한·중 전통문화 상호교류(2012) 중국

2) 문화·창조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국제문화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 각국 문화도시, 국제예술단체 및 전문가, 해외 한민족 등의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및 전 세계와 문화교류 기반을 강화해 왔다. 또한 유네스코, 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아시아문화도시협의체 구축 및 교류주간 정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교포·유학·해외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문화도시 통신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교류

사업명	주요 내용 (2008~2012)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급 회의 개최	• 한국·중앙아 5개국 문화장관회의(2012) • 한국·동남아 10개국 문화장관회의(2013)
인적교류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아시아 청년 문화캠프/축전 개최(2006~2012) • 아시아 문화 아카데미 시범운영(2010~2012)
문화도시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구축	•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개최(2008) • 문화도시포럼 운영(2008) • 세계문화도시 통신원 운영(2008~2011)
문화교류기반 구축	• 아시아 문화교류인력 양성(2008~2011) • 아시아문화예술인 레지던스(2008~2011) •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세미나 및 전시(2011~2012) • 한·중·일 디자이너 포스터 전시(2012)
아시아 예술커뮤니티 운영	• 한·아세안 전통음악 위원회 창설(2008) •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창단 및 공연(2009~2011) • 한·아세안 전통 실내악단 창단 및 공연(2012) • 한·중앙아 스토리텔링위원회 창설(2009) •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공모전 개최(2011~2012) • 아시아 무용 위원회 창설(2011) • 아시아 전통음악 및 무용 공연(2012)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아시아청년포럼(2008~2010) •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공연예술제(2008) • 유네스코 컬처링크 네트워크 구축(2008~2011) • 아시아 문화이해 자료 개발 및 전시회 개최(2008~2010)

□ 그 외 문화교류

사업	주요 내용 (2008~2012)
미술전시	• 한국-말레이시아 미술작가 교류전(2012), 2회 • 독일 현대 미술전 참여(2010~2012), 2회 • 베트남 현대 미술전 참여(2010) • 오스트리아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광주개최(2008)
레지던시(미술)	• 뉴질랜드, 멕시코, 필리핀,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호주 작가와의 레지던시(2012) / (재)광주비엔날레 주관 8명
문화교류	• 아태도시 연합회의 문화행사(2011)

□ 아시아문화포럼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연례 국제문화 학술포럼인 아시아문화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문화도시들과의 교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연도	참여인원	발제토론외국인수
2007	11개국 300여명	10개국 12명
2008	6개국 200여명	5개국 6명
2010	12개국 400여명	11개국 14명
2011	11개국 400여명	10개국 11명
2012	11개국 400여명	5개국 10명

이밖에 아시아 도시간 문화교류 협력사업, 아시아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아시아의 시민들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

광주는 아시아 각국이 겪은 식민주의와 독재 경험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소통과 교류를 위한 장을 만들기에 적절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타당성과 조성사업의 비전, 목표에도 중요한 요소로 담겨있다.¹³⁾

따라서 광주는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도시들을 대표할 수 있으며 민주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싸워왔던 도시로써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이미지를 승화하고 있다. 사회적·정치적 변화상황과 갈등을 동시에 체험했으며 극단적으로 역동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대처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광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를 구체화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광주는 앞으로도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중심도시로서 친근함, 인권, 박애, 민주, 협력의 이념 등 오랜 역사를 거쳐 인류 문명 속에서 수렴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존중하고 문화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이때 아시아의 민주인권 항쟁의 역사가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 인식되기 보다는 인류의 미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라는 색채 전환이 필요하다.

13) 정성구, 지역과 소통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 2013 아시아문화포럼- 문화, 기술, 창의성: 복합문화시설, 2013. 9, p. 125.

80 5·18광주민주화운동	86 필리핀 피플 파워	88 버마 민중항쟁 영화 '더 레이디'
		

5. 몇 가지 제안

지금까지 ‘문화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라는 포럼의 주제를 위해 도시간 문화교류 및 문화공동체에 대해 고찰했으며, 문화교류 분야에서의 광주의 노력과 역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광주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및 각 나라를 대표하여 선정된 취안저우와 요코하마와의 상호 우호 및 교류를 통한 도시문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본질은 문화교류에 있음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역동적인 세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과 역량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구체적인 생존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보다 우호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구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공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3개 도시의 문화예술 및 인력이 교류하고 소통하여 아시아의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동질감을 확인하여 아시아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 프로그램이 2014년 이후에도 3개 도시간, 그리고 추가로 지정되는 문화 도시간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문화교류 협력의 구체화

현재 시정부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는 교류 수단은 좀 더 구체적인 협의의 문화, 예를 들어 문화예술작품, 학술교류, 교육연계 등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인적 교류

문화교류는 기본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기반으로 있는 경제교류와 달리 인적 교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을 포함한 청소년, 관광사업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분야의 인력 양성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문화산업 분야는 21세기 문화와

경제가 협력하는 시대에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한·중·일의 3개 도시는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젊은 인력들의 미래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교육과 연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3국의 문화정보 자료를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문화콘텐츠산업 교류

3개 도시의 문화정보자료 네트워크는 도시간 문화 활동과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연계는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유네스코의 문화정보 네트워크 사업과의 연계도 역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문화콘텐츠의 교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교류 과정에서 창조력과 예술적 가치 등 문화적 기반이 투입되어 정신적, 예술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단순한 공산품의 유통에 따른 수익 창출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적 측면이 강한 문화콘텐츠 교류도 일반 공산품들과는 다른 문화교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3개 도시의 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문화수익 창출을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 등의 분야에 공동제작, 공동판매, 공동마케팅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교류는 상품교류가 아닌 프로세스, 즉 과정의 교류라는 점에서 공동제작은 큰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도가 된다. 역사와 문화가 다른 도시간의 예술가, 창의 산업 종사자들이 그들 문화의 차이를 바탕으로 창작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험적이고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실천하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특화문화산업 교류

3개 도시는 의욕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예술 및 특화문화산업의 상호 유통과 교역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광주는 영상콘텐츠 및 광예술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시아권의 문화산업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에서 MIG 브랜드 등 문화산업 중심도시로 부상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도자기 기술이 발달된 취안저우와 광주의 도예산업이 교류할 수 있다. 도자산업 교류를 위한 가마터를 제공하거나 공예전시회의 상호 참가, 강진 청자산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의 식품이 된 광주의 김치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특별매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 조명산업이 발달한 요코하마와 광주의 광산업이 특화전략산업으로 교류할 수 있다. 요코하마의 스마트 일루미네이션¹⁴⁾ 행사와 광주의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상호 협력하여 LED 강강술래, LED 패션쇼 등 광산업을 접목한 예술문화행사를 고려할 수 있다.

□ 민간 교류

민간교류는 정부 간 외교성과를 훨씬 능가하는 실질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상호 이해를 도모할

14) 2011년부터 바다에 인접한 도시에 자연 친화적인 야경을 만드는 예술 이벤트를 개최하여 최대 19만 명의 관광객이 요코하마를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다.

수 있다.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은 자국 국민이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매개체를 구성하는데 전념하기 때문이다.

문화공동체의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와 민간부분은 어느 한쪽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민간의 순수한 예술교류 혹은 상업적 교류만으로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추진할 수 없고, 정부가 유일하게 주체가 된다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양자가 공조할 때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희옥은 민간교류 활성화 전략의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럼을 제시하고 있다.¹⁵⁾ 이러한 포럼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주 만나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교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광주의 아시아문화포럼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도시간 미디어 교류로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및 공동방영, TV주간 행사, 신문 칼럼 상호 기고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3개 도시 미술관의 상시 교류를 추진하거나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광주 비엔날레의 상호교류도 추진할 수 있다.

□ 예술촌 네트워크 형성

동아시아 예술의 경쟁력 확보와 예술을 통한 국제 협력체제 형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지역의 예술촌을 네트워킹 함으로써 아시아지역 예술가들의 교류를 증진하고 동아시아 예술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우선 광주와 취안저우, 요코하마의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이들 간의 협정을 통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협력과 소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예술촌 네트워크의 형성은 한중일을 넘어 아시아의 지역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새로운 예술로 연결될 것이며, 이 자체로 예술을 통한 동아시아의 상호 이해가 실천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 도시만들기 교류(도시재생)

이 외에도 취안저우의 고성 복원, 요코하마의 창조문화도시 재생사업, 광주 문화전당 건립 및 도심 재생사업 간의 경험과 정보 등이 교류될 수 있다.

3) 세 도시 문화비전 2025 수립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개시년도에 선정된 3개 도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선도도시로서의 책무가 있다.¹⁶⁾ 이 3개 도시 협력의 향후 10년에 대한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3시 문화비전 2025’¹⁷⁾를 수립하며, 또 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하

15) 이희옥, 앞책, 2003a, pp. 132-133.

16) 우선 개시년도에만 국가별 1개 도시씩 3개 도시가 선정되었고, 이후 1개 도시가 선정될 예정이나, 문화도시 사업의 본질이 문화교류에 있다고 볼 때 2개 도시씩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도 2000년 이후 복수의 도시가 선정되어 도시간 문화협력과 활동이 포함되고 있다.

17) 2010년 5월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향후 비전을 위한 ‘협력비전 2020’이 채택된바 있다.

기 위해 ‘3시 문화교류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의 설치 및 ‘3시 문화비전 2025’는 3개 도시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수단과 목표라고 하겠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중일이 협력 및 교류의 제도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 정체성의 형성이라 할 수 있으며, ‘3시 문화비전 2025’는 이들 3개 도시가 장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정체성의 공유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시년도 3개 도시의 문화교류 및 협력이 공고하게 뿌리내리게 되면 점차 역내 타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열린다.

4)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로의 발전

최근 불거진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 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사태의 이면에는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내재된 편협한 역사 및 문화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최초의, 그리고 최선의 출발점이 문화를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이다. 어떤 나라든지 자국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결코 문화적 갈등을 쉽사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간 네트워크는 문화 분야에서 매우 흔한 현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협력사업의 파트너를 찾는 것과 함께 이슈 공유, 벤치마킹, 전문성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위한 틀 역시 ‘문화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네트워크는 한중일 3국을 넘어 역내 다른 국가들, 그리고 전 아시아의 공동발전과 상호 지원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기능하게 될 것이다.

5) 가교역할로서의 한국

일본의 폐쇄적인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 등은 동아시아 문화교류에 있어 부정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의 핵심인 시민사회나 학술영역이 국가에 포섭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국가 중심적 의식은 문화교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너그럽고 문화 심리적 측면에서도 친밀감을 느끼는 한국은 문화교류 상황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한다.

동아시아 상호 우호를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중견국가(middle power)’인 한국이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으로는 우선 강대국들과는 달리 ‘전략적 야심’이 없어서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을 위한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문화교류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도 중국과 일본의 상호 견제와 경쟁 속에서 한국이 가교적·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⁸⁾

18) 이에 대해 일본은 경제적 우위를 토대로 문화공동체의 거점 또한 일본 주도로 형성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중국도 역시 서구와 일본에 의해 훼손된 중화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출로를 모색하고 있다.

6) 광주 의 과제

광주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은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으로 다른 도시와 호흡하면서 외국의 다양한 문화 리소스를 우리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갖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한다.

□ 동아시아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참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에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양성해야 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 문화예술인과 교류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감각을 익히고 삼국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의 생활화

동아시아문화도시 제1호 선정의 의의와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것이다. 시민들은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통한 국제문화교류, 행사 지원 및 자원봉사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동아시아 문화를 접하게 되며 국내외 문화향유의 기회를 얻게 된다.

□ 사업 시행 이후의 지속적 발전 도모 및 연대 강화 마련 필요

사업 이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도시간 연대 및 교류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 동아시아문화도시 협의회 사무국의 설치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의 상호 우호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소통과 교류를 위한 장을 만들기에 적절한 공간이라는 것은 전술하였다. 사무국을 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설치하여 이후 지정되는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억,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의의와 추진방향,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I-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4-25, 통일연구원, 2004.
- 류정아 외, 동북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특별연구, 2003.
- 민병원, 네트워크 시대의 문화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 신승빈, 예술교류를 통한 문화외교 연구, 경희대 석논, 2009.
- 이희옥,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와 문화교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신구상-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3a.
- 정성구, 문화교류도시 광주를 위한 전략과 제언, 광주 국제문화교류협의회, 2009. 3.
- 정성구, 지역과 소통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 2013 아시아문화포럼- 문화, 기술, 창의성: 복합문화시설, 2013. 9.
- 정성구, 동아시아문화공동체, 광주의 미래, 아시아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3. 11.
- 정정숙, 문화공동체 시각에서 본 동북아시아 구상, 한국의 동북아시아 구상-이론적 기초와 체계, 도서출판 오름, 2006.
- 제러미 리프킨, 이원기 역, 유러피언 드림, 믿음사, 2005.
- 진행남,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모색- 한중일 방송콘텐츠 교류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2010. 12.
- Friedman, Thomas L.,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신동욱 역,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서울, 창해, 2003.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김인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는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큰 틀에서 문화교류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정치·정책·경제학적 관점에서 주도하는 외교적 도구로서의 하향식(top-down) 문화교류와 민간 또는 시민단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향식(bottom-up) 문화교류로 나뉜다. 하지만 ‘교류’란 일방이 아닌 쌍방통행을 담보로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교류란 서로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주입시키고자하는 외교적 도구, 즉 문화외교가 아닌 동등한 눈높이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교차 경험하고 이해하는 매개체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성구 아시아문화학회 기획이사의 글은 제1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의 문화적 역량과 이에 대한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문화교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요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발제문을 읽고 미력하나마 토론에 더하고 싶은 점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자 한다.

무엇을 위한 문화교류인가?

발제자는 문화교류를 “다양한 인류문화의 기본적인 평등성을 인정하고, 문화의 상호 이해를 보다 깊게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정치·경제적 교류를 제외한 모든 교류”라고 정의한다. 문화교류를 역사적으로 조망해 볼 때, “정치·경제적 교류를 제외한 모든 교류”를 문화교류의 범주로 정의하는 것은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도시 간 결연의 역사적 시초를 세계 2차대전 이후 평화적 제스처의 한 맥락으로 보는 시각(Ramasamy & Cremer, 1998)부터,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사업의 모티브가 된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ies of Culture) 사업의 부수적 목표가 문화·예술·관광사업의 경제적 활성을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점(Garcia & Cox, 2103; 김병철, 이영주, 2013) 등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문화교류의 명확한 개념에 대해 다시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의 주체적 중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Rogers(2006)는 문화교류란 유사한 힘을 가진 문화들 간의 상징(symbols), 인공물(artifacts), 장르(genres), 의식(rituals), 기술(technologies) 등을 통해 쌍방향적 교류를 나누는 것으로 정의한다. 미국의 국제문화교류 사업국(United States Cultural Exchange Programs)은 광의적 개념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타 국민과 상호관계를 맺는 활동’이라 정의하며, 정정숙(2012)은 국제문화교류의 정의로 ‘개인차원에서는 타 문화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이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교류의 주체의 중심은 자발적 주체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타 문화에 관계하면서 상호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풍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국가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문화교류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유기적인 상호관계가 아닌 정책적 도구로서 쓰이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이지 진정한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라고 볼 수 없다.

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개념에 있어서의 차이는 학문적 이론을 통해서보다는 각 국가들이 문화외교의 정책과 문화교류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식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이준형, 홍기원, 2011). 광주의 경우,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첫 번째 도시로서 그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개시를 맡은 대한민국 제1호 도시라는 점에서 광주가 선택할 문화교류의 정책적 목표와 수행방식 정립은 실제적인 주체로서 공식적인 첫 번째 모델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제자가 상정한 바와 같이 문화교류의 최종 목표가 누구나 듣기 좋고, 거창하며, 반박하기 어려운 문화공동체 형성이 아닌, 거리감을 좁히는 만남의 장에 대한 구축으로 보는 것은 그 초석을 쌓는다는 점에 있어 매우 현실적이며 현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핵심적 요소를 냉철하게 집어내었다고 본다. 이는 문화와 예술을 이용하면 무엇이든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무책임한 만능주의가 아닌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즉 발제자가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교류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발제자가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제안과 전략들이 국가차원의 문화교류가 아닌 도시차원의 문화교류에 있어 어떤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하다. 이는 광주가 동아시아문화 제1호 도시로서 국가의 관점이 아닌 도시의 관점에서, 광주시민의 문화교류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다.

누구를 위한 문화교류인가?

다시 문화교류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문화외교의 주체는 정부인 반면 문화교류의 주체는 시민이다. 문화외교는 태생적으로 문화를 통해 국가의 위상 고취와 국가의 이미지 개선 등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통상 고급문화 또는 전통문화가 주요 소통의 경로로 고착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문화교류는 이러한 '외교적 접근'에 대한 관행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려놓기'는 좁은 타겟 집단에게 어필할 수 있는 미술전시, 교향악단 방문 공연, 시립무용단 방문 공연, 발레 공연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광주 시민의, 그리고 광주시민에 의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자긍심 고취나 문화향유 기회제공에 중점을 두

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은 대중을 소극적 관객으로 대하는 전형적인 하향식(top-down) 문화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이는 이미 쌍방향 교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거시적 담론 속에서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한 과제와 함께 광주 지역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토의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세 나라를 잇는 국제문화교류라는 점에서 마지막 부분인 광주의 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참여는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의 예술가와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함께 광주의 예술가와 단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연결고리가 완성된 후, 지속가능한 광주만의 국외 문화교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현을 대표하는 도시 광주. 그 광주에서 광주의 시민과 예술가가 주체가 된 광주만의 발칙하고, 독특하며, 기발한 문화교류를 진정한 아시아문화공동체 형성과 함께 기대해 본다.

文化之都泉州的昨天、今天和明天

林少川

中国·泉州学研究所所长

2013年，泉州市当选首届“东亚文化之都”中国代表城市，泉州学研究所作为学术研究及咨询机构，我们参与了本次评选前后方方面面的各种活动，感到十分荣幸。本次参选，也让我对泉州的历史文化发展有了更加深刻的理解，在此，我愿意和在座的各位同行交流一下我对于文化之都泉州的一些认识，我的演讲主要分为四个部分，第一部分谈的是泉州的文化特色，这是一个总说；第二部分是古代泉州与东亚的交往，第三部分是当代泉州与东亚的交往，第四部分是泉州当选东亚文化之都后持续的文化发展计划。除了第一部分的总说之外，后面三个部分恰好对应泉州的过去、现在和未来，因此，我把这个演讲定名为“文化之都泉州的昨天、今天和明天”，希望大家能够不吝赐教。

一 泉州的文化特色

本次东亚文化之都评选活动，泉州以深遠厚重的多元文化底蘊、悠久廣泛的對外交流史，以及精心策劃的東亞文化交流方案，從10個中國入圍城市中脫穎而出，與韓國光州、日本橫濱一道當選首屆“東亞文化之都”。大家都知道，中國歷史悠久、土地遼闊，有非常多的著名古城，入圍的十大國內文化名城(泉州、蘇州、杭州、青島、濟寧、西安、咸陽、武漢、黃山、桂林)，這些城市有的直到今天，依舊是中國乃至整個世界範圍內非常有影響力的特大城市，泉州能够在評選會上得到眾多專家的最高評分，成功當選分量最重的首屆東亞文化之都，是讓我們感到特別驕傲的。為什麼泉州能够奪得桂冠呢？我覺得，這是因為泉州有深遠厚重的歷史文化底蘊、鮮明奇特的多元文化大觀、豐富多彩的文化遺產、悠久廣泛的對外交流等優勢，以及這座城市對推動文化繁榮發展的鄭重承諾。泉州的文化特色可以歸納為三個主要方面：

(一) 海洋文化凸顯特色

中國海岸線綿長，有許多優良港口，但是在歷史上，由於儒家文化的影響，“士農工商”，商排在末位，重農抑商政策非常嚴重，許多朝代都實行過海禁制度，有時甚至是非常嚴厲的，因此，大部分城市都是大陸文化為主。但是，泉州却是中國古代為數不多的海洋文化為主的城市。

“州南有海浩无窮，每歲造舟通異域”，早在公元6世紀的南朝，泉州就與南海諸國有交通往來。唐代，泉州成爲中國四大對外貿易港口之一，“市井十洲人”就是當時的真實寫照。南宋，泉州與廣州同爲中國最大外貿口岸。元代，中國對外貿易重心轉移到泉州，泉州港進入鼎盛時期，與世界近百個國家和地區商貿文化交往密切，影響力可與亞歷山大港匹比。國內外商賈從泉州運載絲綢、瓷器、茶葉等貨物往他國銷售，從他國運來香料、藥材、珠寶到中國貿易，泉州港呈現出“漲海聲中萬國商”的繁華景象。意大利旅行家馬可·波羅在其《游記》中盛贊：“刺桐港是世界最大的港口，胡椒出口量乃百倍於亞歷山大港”；摩洛哥旅行家伊本·白圖泰則發出了“刺桐（港）爲世界第一大港，余見港中大船百艘，小船無數”的贊嘆。泉州作爲中國古代海上絲綢之路的起點，其地位可謂實至名歸。

在濃厚的商業氛圍下，泉州形成了典型的海洋文化，歷代以來，官民都思想比較開放、胸懷廣博，對於外來文化的接受抱有寬容的態度，也十分善於反思傳統的各种文化遺產，可以說，這是一個從古代到現代都比較開放的地方。

（二）華僑文化獨具特色

商業貿易氛圍之下，從唐代開始，當時泉州地區的居民就乘船出海，向海外發展、遷徙，台灣、東南亞、日本、韓國等地都留下了泉州人的足跡。北宋元祐二年（1087年），泉州設置市舶司後，泉州海商前往的國家更多了。至南宋開禧二年（1206年），已與30多個國家和地區有貿易往來。此後，又有不少的泉州人在泰國、柬埔寨定居。元代，泉州海商前往的國家、地區進一步增多。至元末明初，旅居海外的泉籍華僑估計已達四五萬人。清乾隆年間（1736～1795年），開始有泉州人定居新加坡；道光年間（1821～1850年），已有永春人僑居老撾的閩樓（芒隆）。至鴉片戰爭爆發前夕，旅居海外的泉籍華僑估計總數已達30多萬人，分布在現今的泰國、印度尼西亞、馬來西亞、新加坡、菲律賓、越南、文萊、柬埔寨、日本、韓國、老撾、緬甸、斯里蘭卡、東帝汶、印度、墨西哥、南非、毛里求斯等地。

今天的泉州市是中國著名僑鄉，現有人口800多万，而祖籍爲泉州的華僑華人則過這個數字，分布在世界五大洲的110多個國家、地區，其中90%居住在東南亞各國。泉州市有歸僑、僑眷300多萬人，占福建省歸僑、僑眷總數的50%以上，占全市總人口的53.9%。隨着族裔的傳播，泉州特有的家族文化和儒商文化也傳播至世界各地。

（三）多元文化交流融合特色

作爲閩南文化的發祥地，泉州是閩南文化保護的核心區與富集區，有“海濱鄒魯”、“光明之城”的美譽。同時也是聯合國教科文組織設立的世界多元文化展示中心，世界宗教博物館，至今尚不同程度地保存有佛教、道教、伊斯蘭教、景教、印度教，基督教、摩尼教、日本教、猶太教等各种宗教的遺迹。

衆多的“海上絲綢之路”文化史迹，是泉州文化的歷史“硬件”。泉州擁有開元寺、洛陽

橋、老君岩等31處中國國家級重點文物保護單位在內的各級文物保護單位791處。泉州的東西雙塔、洛陽橋、安平橋等古建筑，都是宋元時期中國標志性建筑，以其宏偉的外形和豐富的內涵展示了一個時代的燦爛文明。泉州的清淨寺、聖墓、老君造像等宗教勝迹，都用無聲而有形的語言述說了泉州文化的多元性。泉州的宋代古船、九日祈風石刻、鄭和下西洋的碑刻等古文物，又見證泉州曾經有過的中外經貿文化交流的昌盛繁榮。所有這些，讓人沐唐律宋韻之遺風，發思古之幽情。

而泉州的“軟件”有泉州南音、木偶、梨園戲、高甲戲、打城戲等劇（曲）種，籠吹、大鼓吹、車鼓、北管等民間音樂，采茶舞、拍胸舞、惠女服飾表演等民間舞蹈以及木偶頭雕刻、花燈、石木磚雕刻、泥塑、瓷塑、彩扎、剪紙、竹編、紙織畫等傳統工藝美術，還有五祖拳、白鶴拳、俞家棍等南少林武術……初步統計，泉州全市現有各級非遺項目565項，其中國家級31項、省級76項、市級134項、縣級324項，國家、省、市、縣四級非遺名錄體系基本建立。尤為重要的是，泉州現擁有聯合國教科文組織3種非物質文化遺產項目，即人類非物質文化遺產代表作名錄2個（南音、中國傳統木結構營造技藝），急需保護的非物質文化遺產名錄1個（中國水密隔艙福船制造技藝），非物質文化遺產優秀實踐名冊1個（泉州木偶戲領銜的福建木偶戲後繼人才培養計劃），這是中國首個入選該名冊的項目。

此外，泉州又匯集了惠安的石文化、安溪的茶文化、德化的瓷文化以及石獅、晉江的服飾文化等具有較大影響力的特色文化。

二 古代泉州與東亞的交往

作為古代東方第一大港、海上絲綢之路的起點，泉州與世界上100多個國家和地區有過友好往來，是古代中國與東亞文化圈交流的重要城市。豐富的貿易史料留存印證了泉州在東亞文化圈中長期以來的交流中心作用。

公元9世紀前後，泉州與日本、韓國的貿易關係就較為密切，大量從高麗和日本進口的貨物從泉州進入中國。據《高麗史》和中國史籍記載，從北宋大中祥符八年（1015年）至元祐五年（1090年），至高麗貿易的宋商船隊27批，其中泉州商人16批，明州商人3批、台州商人3批、廣州商人3批、福州商人2批，泉州海商不僅人數最多，商業實力也最為雄厚。泉州商隊有記載的最多一次達150人，此時到高麗貿易的泉州人即在千人以上。¹⁾當時泉州海商運往高麗的商品主要有：綾絹、錦羅、白絹、金銀器、禮服、瓷器、藥材、玳瑁、茶、酒、書籍、樂器、蠟燭、錢幣、寶玉等。帶回的貨物有：金、銀、銅、人參、茯苓、毛皮、黃漆、硫磺、扇子等。

中國的制造瓷器技術也有相當部分通過泉州傳播到日本。嘉定六年（1213年），日本加藤四郎隨禪僧道元入宋，到德化學習制瓷技術，回國後在山田郡的瀨戶村（今愛知縣瀨戶

1) 陳高華：《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舶商》，《海交史研究》第2期（1980年）。

村) 試燒成功后大量燒制宋式陶瓷, 称“瀬戸燒。”日本的窯爐受德化階級窯的影響而設計的, 所以据說日本把德化窯“估計為串窯的始祖。”²⁾

同時泉州也從東亞鄰居那里學習到了不少新技術新文化新事物, 例如新作物的傳播方面, 唐代時期, 新羅國的新羅松, 傳入泉州嘉禾嶼(今厦門)。高麗菜, 從高麗引進泉州广泛栽種, 又從泉州傳播到東南亞和台灣等地。瓮菜, 傳自朝鮮或日本。從新羅、高麗傳入泉州的植物還有新羅人參、新羅葛等。

泉州与日本最早的文化交往可追溯到唐天宝年間(742~756年) 鑒真和尚東渡日本。當時追隨這位高僧東渡的十四名弟子中, 和尚曇靜就來自泉州。在日本大宰府, 保留有一份宋代的公凭, 這是中國當時的官方証明文件, 這份公凭見證了泉州客商李充于北宋崇寧元年(1102年) 到日本貿易的歷史, 也是迄今為止所能看到的最完備的宋代貿易凭証。

在漫長的東亞交流史中, 泉州与東亞各國在文化上互通有无, 促進了民族之間的文化交流。

五代時泉州招慶寺僧靜、筠編的《祖堂集》傳到朝鮮, 其雕版藏于朝鮮伽耶山海邱寺, 直到近代才重新發現。南宋嘉定十年(1217年), 日本僧人慶政上人到泉州, 回國時帶回福州版《大藏經》。元佑二年(1087年) 泉州海商徐戡先受高麗錢物, 于杭州雕造夾注《華嚴經》等2900余片, 載往高麗。這些對中國印刷術和佛經在東亞的傳播起了促進作用。

在文化交流方面, 泉州歷史名人李贄的思想對東亞也有着重要影響。

李贄(1527~1602), 福建泉州晉江人, 初姓林, 后改姓李。李贄是中國明代進步的思想家、哲學家。晚年往來南北兩京等地, 后來被誣告, 監獄中自盡。他在社會價值導向方面, 批判重農抑商, 揚商賈功績, 倡導功利價值, 符合明中后期資本主義萌芽的發展要求。李贄著有《焚書》《續焚書》《藏書》等。日本學者疋田啓佑發表的關於《李贄對日本的影響及李贄研究在日本》的學術報告中指出李贄對日本的明治維新有着深刻的影響, 日本學者對李贄研究非常重視。

談到李贄思想在日本的傳播, 首先要提到李贄評点的《水滸傳》在日本的流傳。李贄生前很喜歡《水滸傳》這部書, 曾把它看成是“古今至文”, 列為宇宙間五大部文章之一, 与《史記》等書相媲美, 備加推崇。³⁾李贄到湖北麻城龍湖后, 專心致志于做學問, 口不停誦, 手不停批二、三十年, 對《水滸傳》尤其愛不釋手, 這因為《水滸傳》是以發抒其憤懣, 故評之尤為詳。⁴⁾他曾命僧常志把《水滸傳》抄寫起來, 逐字批点, “批点得甚快活人。”⁵⁾就因為李贄的批点, 使得人們讀起《水滸傳》能“明白曉暢”。有人說, 如果不是李贄揭出一段精神, 則“作者与讀者, 千古俱成夢境。”⁶⁾

《水滸傳》于十七世紀七十年代傳入日本, 此后差不多一个世紀中, 日本出現了“水滸熱”。這水滸熱, 對於日本接受中國新文學藝術, 起了推動作用。

2) 叶文程、徐本章:《暢銷國際市場的古代德化外銷瓷器》,《海交史研究》1988年第2期。

3) 周暉:《金陵瑣事》卷上;梁維樞《玉劍尊聞》卷六。

4) 怀林:《李卓吾批評〈水滸傳〉述語》。

5) 李贄:《續焚書》卷一, 与焦弱侯。

6) 袁宏道:《東西漢通俗演義序》。

最早傳入日本的水滸，就是《李卓吾先生批評忠義水滸傳》，由通曉漢語的岡島冠山加上日文假名標音的讀法后刻印出來，最初刻印到二十回。此事被稱為日本刻印稗史之始。

其次要說到李贄反道學思想對日本的影響。

在中國儒家學說經過宋儒二程和朱熹等人的充實和宣傳，發展成為道學(通稱理學)。這道學，在南宋以后被定為儒學正宗，官方哲學，對中國封建社會后期影響深遠。這道學也很快傳到了日本，不過開頭還受到壓制。到了丰臣——德川幕府時代，道學在日本經過林羅山(1583-1657年)等人的大力宣傳，很快占了上風，成了日本正統思想體系。和中國一樣，日本道學家們把封建統治秩序、等級關係等，說成是萬古長存的“天理”，他們不遺余力地維護日本的封建制度。日本德川幕府正是利用這種思想體系來控制日本人民的。正当道學同日本封建統治權緊緊結合在一起的時候，十七世紀末十八世紀初，日本也出現了反對道學的思想主張。維護道學和反對道學兩派展開了激烈的鬥爭，這不免使日本的正統思想發生了動搖⁷⁾。然而這種局面的出現，自不是偶然的，它同李贄著作在日本的流行，特別是同李贄的反道學思想在日本的傳播，有極密切的關係。李贄不但公開反對道學——正式說法反對假道學，而且反對以孔子是非為是非，提出另立是非標準的主張。所謂“踏破百年生死窟，倒翻千古是非案”⁸⁾，就因此，有人說“自古以來，小人之無忌憚，而敢于叛聖者，莫甚于李贄”⁹⁾。李贄反對封建傳統思想的主張，傳進日本后，成了一部分日本人反對儒學正宗的依據，成了他們進行鬥爭的思想武器。

再次可說到李贄思想對日本明治維新派的影響。

這一點特別應提到李贄思想對明治維新先驅者吉田松陰的影響。李贄思想對日本的幕末陽明學有重要影響。以吉田松陰為代表的日本幕末陽明學是推翻代表封建勢力的德川幕府，導致明治維新的重要社會力量。吉田松陰的思想受李贄的影響，他反復熟讀李贄《焚書》《續焚書》等，對李贄思想倍加贊賞，他在《己未文稿》中寫道：“卓吾居士一世之奇男子，其言往往與仆之心合，反復甚喜。”松陰生死觀、宇宙觀、交友觀深受李贄思想的影響。李贄的思想對日本近代社會產生一定作用。

李贄思想對日本的影響，也引起了日本對李贄思想的研究和宣傳。近三百年來，這方面的工作，在日本始終不斷進行。到了近現代，日本研究和宣傳李贄思想的學者日見增多，日本學者對李贄進行廣泛深入的研究，取得豐碩的成果。

而李贄的思想也直接影響到韓國知識界。

朝鮮光海六年（明萬曆四十二年，1614年），朝鮮派許筠為千秋使兼謝恩使正使，出使中國。在燕京（今北京）購得李贄《藏書》，讀后認為是一部奇書。次年，在通州閱讀《焚書》，寫了《讀李氏焚書》詩三首。分別是“清朝焚却禿翁文，其道猶存不盡焚。彼釋此儒同一悟，世間橫議自紛紛。”“丘侯待我禮如賓，麟風高標快者親。晚讀卓吾人物論，始知先

7)為維護道學在日本的正統地位，日本政府把朱熹學說以外的學派都列為異學，并于寬政二年實施“異學之禁”。可見鬥爭之激烈。

8) 劉侗、于奕正：《帝京景物略》卷八，畿輔名迹。

9) 顧炎武：《日知錄》卷十八。

作卷中人。”“老子先知卓老名，欲將禪悅了平生。書成從未遭秦火，三得台抨亦快情。”

這些詩主要都是在吟咏李贄文章的永久性，以及在世間遭遇的經歷，李贄的道佛思想和《焚書》遭彈劾的過程。¹⁰⁾

現在韓國學者對李贄思想的研究也非常深入。韓國學者金惠經教授研究李贄思想深蘊之現代價值，認為李贄思想深蘊，至今仍然有不可忽視的價值，表現在三个方面：概括并融合了所有抽象和現實問題的統合性；說破生死之明确的生命意識；肯定各个階層的文化都有价值和存在意義，強調各种文化并重的多元性。¹¹⁾

三 当代泉州与東亞的交往

在中國，姓氏是中華傳統文化注重血脉的特色。在海外的族人也往往通過共同的姓氏到大陸來尋根謁祖。我先后多次參與了韓國、日本等林姓族人到泉州追根溯源的活動。

就如我們的東道主，就有我們林氏族人的支脉——韓國林氏。韓國林氏是中國閩林始祖的后裔，中韓建交后，韓國林氏宗親多次來華尋根。

据韓國族譜記載，入韓林氏始祖是唐九牧六房林蘊的玄孫林八及。唐末，為避朱溫叛亂，林八及從彭城（今惠安東嶺彭城）渡海至新羅國江華灣登岸，擇平澤縣栖身。后來支派繁衍，發展至今120多萬人。其后裔按照中國傳統編族譜字輩，尊八及為“海東一世”，現已傳至40多世，其后裔林氏會長林芳鉉曾任韓國總統府秘書長。由于日久年湮，相隔千年，尋根并非易事。

出生于世家望族的佛心大法師林允華根据家譜記載，以“林八及”、“邵州刺史蘊公”和“彭城”為線索，先后多次組團來中國尋根。1995年5月3日，佛心大法師和韓國代表團赴河南衛輝謁比干廟，巧遇機緣，破解了千年祖源之謎。

佛心大法師返回韓國后，向宗親報告泉州武榮殷比干文化研究會提供的寶貴線索，并于1995年6月8日組團來泉州尋根，經過兩天的尋訪，佛心大法師圓了尋根之夢。尋根團返回韓國后，提出希望查清彭城在何處的要求。1995年12月17日，韓國尋根謁祖團一行16人在各方幫助下到達惠安彭城，并以韓國儀禮祭祖。韓國林氏組團來泉尋根成功，使泉州海外移民史回溯到唐代，引起了史學界的重視。

1997年7月，由海外人士捐建的規模宏偉的“比干紀念堂”在南安官橋內厝落成，隨後，韓國先后10次組團來泉州謁祖，并在惠安彭城林八及渡海處豎立“唐邵州刺史蘊公玄孫、新羅（韓國）林氏始祖林八及公渡海處”的紀念碑，碑上刻有用韓文、中文書寫的“万里尋根千年溯源”几个大字。2013年11月27日是農曆十月廿五，是中國一位忠臣——比干殉國3042周年紀念日。当天，南安官橋內厝“比干紀念堂”前，一場海內外關注、近万人參加的盛大慶典隆

10) 朴現圭：《朝鮮許筠求得李贄著作的過程》，《海交史研究》2006年第1期。

11) 金惠經：《晚明思想家李卓吾思想深蘊之現代價值》，《泉州市李贄思想學術研討會論文集》，《泉州學林》2004年增刊。

重舉行，而遠在韓國的林氏宗親則特地發來賀電，兩地隔海同祭。

除了與韓國之間的宗親聯誼活動，當代泉州與日本浦添市也有着經常性的友好往來活動。

明朝，浦添市是古代琉球王國的首府。當時，福建36姓移民琉球，幫助建設和開發。至今，浦添市還保留着福建特別是閩南地區的許多古老風俗習慣。1988年，泉州市與浦添市結為友好城市關係。

2011年5月，兩市教育部門共同簽訂“泉州市·浦添市少年兒童友好交流備忘錄”，為開創兩市青少年友好交流新局面奠定了基礎。根據備忘錄精神，雙方每兩年分別舉行一次青少年互訪活動。如今，青少年交流已成為兩市友好交往中的一項常規活動，取得了良好效果。

四 泉州未來的文化持續發展計劃

在當選首屆東亞文化之都後，泉州市委市政府出台了一系列文化持續發展計劃，大力推進泉州文化發展，擴大泉州的世界文化影響。

上階段，泉州在交流活動中安排具體、策劃有方、特色突出。先後舉辦國際南音大會唱、國際木偶節、世界閩南文化節、閩台對渡文化節、鄭成功文化節、海上絲綢之路文化節等大型文化交流活動，促成海內外三千万泉州人對祖地文化、中華文化、閩南文化的強烈認同，並通過他們進一步強化對東亞文化的影響。

在2014年泉州將重點安排100多場重大文化活動，組織萬場群眾文化活動；安排專項資金作為框架內的活動經費，並加大文化設施建設投入，全面、有序地向世界展示泉州“文化之都”的良好形象。而在更遠的未來，泉州將以更大的視野和胸懷，圍繞“古城—古港—新區—全域聯動”這一核心開展城市文化建設，打造一座“影響東亞、面向世界的多元文化都市”。

在古城復興方面，按照“統一規劃、分步實施、功能置換、持續發展”的思路，這項工作將分三個階段實施。第一階段，利用泉州古城西街的舊工廠作為起步區。目前，這一區域已經改造成為“東亞文化之都·2014泉州活動年”開幕系列活動主會場，以投影圖像、實物展示和活態項目等方式演示泉州古城未來文化復興景象，同時配套舉行一系列文創活動，打造“泉州西街”文化概念。第二階段將重點實施西街片區保護利用工程，劃分東西主功能區。東片區以歷史文化街區為核心，打造名城“城市會客廳”和市民文化家園；西片區以泉州當代藝術館為核心，打造泉州當代藝術和世界文化展示交流中心。泉州已與國際著名建築師和國內高端規劃團隊簽署了委托規劃設計協議，實質性啟動了相關工作。第三階段將對泉州古城“三片一線”核心區進行整體保護開發利用，在保護古城文化生態、延續歷史文脈的前提下，有機融入當代藝術、文化創意、音樂體驗、休閒娛樂等元素，營造新型多元文化業態，再現古代泉州“市井十洲人”的盛況，打造文化旅游核心品牌。

在古港重生方面，曾經的“東方第一大港”將通過實施“古港轉型升級行動”，發揮古代海上絲綢之路起點的優勢，以文化形式和業態，推動泉州建立21世紀海上絲綢之路建設先行

區，展示泉州多元兼容并蓄、和諧共生開放的海洋文化。目前泉州已着手進行相關策劃，爭取在2014文化之都活動年和以後一個時期，邀請瑞典仿古帆船“哥德堡號”訪問泉州、策劃“印象海絲”大型演出、籌辦“海洋博覽會”，開辟“海上觀光線路”，向世人展示開放瀟灑、通達包容的泉州。與此同時，借力“東亞文化之都”，泉州還計劃通過規劃建設“中國海外交通史博物館”，設立海絲論壇（包括經濟、文化、城市等內容），興建以仿宋古船為模型的“海絲文化博物館”，開通“海上絲綢之路文化旅游觀光區”，配套建設世界古船模型制作基地、蟳埔民俗文化村，定期舉辦相關海絲文化活動。

在新區崛起方面，泉州將實施“新區城市文化綜合體建設”，為面向當代、面向未來、面向世界、面向青少年的文化交流展示提供必備條件。泉州將以“亞洲多元文化發展中心”為定位，以城市新區（東海片區）擬布局的四棟花瓣型綜合體建築為主體，構建音樂藝術、圖書博覽、教育培訓、文化傳習、東亞藝術家（青少年）文化交流、市民文化廣場等為一體，傳統與現代相融合的“城市文化綜合殿堂”，並通過市場化運作和引入專業管理團隊，發揮資源優勢，形成集聚效應，推進文化事業和文化產業并重發展，實現從資源、管理到運營等方面的一體化，最大程度提升區域的整體形象與集聚效應。同時，泉州還將加大新區外圍“四山兩江”（即清源山、紫帽山、大坪山、桃花山和晉江、洛陽江）保護力度，推進城市休閒綠道、山線水線慢道建設，打造城市親水平台，打造泉州亮麗外灘，提升城市新區人文品味，打造文化生活多元、民衆參與度高的文化綜合體。

在全域聯動方面，泉州將通過“全域文化資源聯動提升”，充分挖掘各縣（市、區）與文化相關的特色產業、園區載體、歷史街區、民俗風情、旅游服務等優勢資源，打造一批百姓喜聞樂見的文化品牌，讓全域民衆受益，提升全域文化水平和質量。在“東亞文化之都·2014泉州活動年”以及今後一段期間，泉州將有序舉辦轄域內各縣（市、區）文化周活動，共同唱響“東亞文化之都·泉州”這台大戲，統籌各類博物館、文化館、圖書館、服務站、劇場建設，統籌安排全市現有場館改造提升，推動文化資源數字化共享，在確保公益性的前提下，引入市場運營機制，引導和鼓勵社會力量投資興辦公共文化實體，擴大文化傳播覆蓋面，建立“網上博物館聯盟”，建立全域文化聯動長效機制，實現全市文化資源的有機整合。

總之，東亞文化之都建設是一項長期的系統工程。在今後的日子裡，中韓日三國都將繼續就此課題進行研究和探討。我們希望，中韓日三國繼續保持友好合作關係，共同把東亞文化之都打造成為亞洲乃至世界的文化交流品牌和典範。

문화도시 취안저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린 사오촨

취안저우학 연구소장/화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2013년은 취안저우시가 제1회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 중국 대표도시로 선정된 해입니다. 학술연구 및 컨설팅기관인 취안저우학연구소가 이번 선정을 전후로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취안저우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저는 이제 여러분께 문화의 도시 취안저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취안저우의 문화적 특색, 둘째, 고대 취안저우와 동아시아의 만남, 셋째, 당대 취안저우와 동아시아의 만남, 넷째,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로 선정된 취안저우의 문화 발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종합적인 부분 외에 나머지 세 부분은 취안저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연의 제목을 ‘문화의 도시 취안저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 취안저우의 문화적 특색

취안저우는 풍부한 다양한 문화적 기반과 유구한 대외 교류 역사, 세심하고 계획적인 동아시아 문화 교류 방안이 중국 10개 후보 도시들 중에서 큰 두각을 드러낸 덕분에 한국 광주, 일본 요코하마와 함께 제1회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가 유구하고 토지가 광활한 중국에는 유명한 고대도시가 매우 많습니다. 후보에 포함된 10대 중국 문화 도시(취안저우, 소주, 항주, 청도, 제녕, 서안, 함양, 무한, 황산, 계림)는 현재까지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급 도시입니다. 취안저우가 평가 선정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1회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에 선정되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취안저우가 선정된 요인이 뭘까요? 저는 깊고 풍부한 역사 문화적 기반,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 다채로운 문화 유산, 광범위한 대외 교류 등 여러 장점과 함께 문화적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약속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안저우의 문화적 특색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부각되는 해양 문화

중국은 해안선이 길어 우수한 항구 도시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 ‘사농공상(士農工商)’에서 보듯이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수많은 왕조가 해상 이동을 금지해 대부분의 도시는 대륙 문화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취안저우는 이런 상황에서 해양 문화를 꽃피운 얼마 안 되는 고대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의 남쪽에는 끝없는 바다가 있고 매년 바다를 만들어 이국으로 향한다(州南有海浩無窮, 每歲造舟通異域).” 6세기 남조 시기, 취안저우는 남해 여러 나라들과 왕래를 했습니다. 당나라 때는 중국 4대 무역항이 되었고 ‘시장의 수많은 사람들(市井十洲人)’이란 말이 생겨나 당시 취안저우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송 시기, 취안저우와 광주는 중국 최대 무역항이었으며 원나라 때는 중국 대외 무역 중심이 취안저우로 이동해 최대 전성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상업,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교류를 나눴습니다. 이때의 취안저우 영향력은 알렉산드리아에 필적합니다. 국내외 무역상들은 취안저우에서 비단, 도자기, 찻잎 등을 다른 나라로 가져가 판매하고 그 나라의 향료, 약재, 보석을 중국으로 가져와 거래하는 등 ‘교통과 무역이 매우 변화한(漲海聲中萬國商)’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여행기(遊記)》에서 “자동항(刺桐港)은 세계 최대 항구로서 고추 수출량이 알렉산드리아의 100배에 달한다.”고 하였고 모로코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자동(항)은 세계 제일의 항구로서 크고 작은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취안저우는 중국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 분위기가 농후한 환경 속에서 취안저우는 대표적인 해양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관민 모두 개방적인 사고와 넓은 포부로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각종 전통 문화유산을 되돌아보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 개방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독특한 화교 문화

취안저우 주민들은 당나라 때부터 바다를 기반으로 각지로 뻗어 나가 대만,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등지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북송 원우 2년(1087년), 취안저우에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한 후에는 왕래하는 국가가 더 많아졌습니다. 남송 개희 2년(1206년)에는 무역 왕래를 하는 나라가 30 개국이 넘었으며 이후 많은 취안저우 주민이 태국, 캄보디아에 정착했고, 원나라 때는 거래 지역이 증가했습니다. 원말 명초, 해외로 여행가거나 이주한 취안저우 화교는 4,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청 건륭 시기(1736~1795년)에는 싱가포르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도광 시기(1821~1850년)에는 영춘(永春) 주민들이 라오스에 정착했습니다. 아편전쟁이 발발하기 전 해외 거주 취안저우 화교 수는 30 만 명이 넘었으며 현재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일본, 한국,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동티모르,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교 고향으로 유명한 취안저우의 인구는 800만 명 이상이며 취안저우 출신 화교 수도 8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110개 국가에 분포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 지역에 90%가 살고 있습니다. 취안저우시에 거주 중인 돌아온 교민은 300만 명 이상으로 복건성 교민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시 전체 인구의 53.9%에 달합니다. 인구 이동에 따라 취안저우 특유의 가족 문화와 유교 문화 역시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습니다.

3) 다양한 문화 교류 및 융합

민남 문화의 발상지인 취안저우는 민남 문화 보호에 앞장서 ‘해변 문화 흥성지’, ‘광명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설립한 세계 다문화 컨벤션센터, 세계종교박물관은 현재까지

불교, 도교, 이슬람, 경교, 힌두교, 기독교, 마니교, 유대교 등 각종 종교 유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상 실크로드’ 문화 유적은 취안저우 문화 역사의 ‘하드웨어’로 개원사(開元寺), 낙양교(洛陽橋), 노군암(老君岩) 등 31개 중국 국가급 중점 보호 문화재를 포함한 각급 보호 문화재 791개가 있습니다. 취안저우의 동서 쌍탑, 낙양교, 안평교(安平橋) 등 고대 건축물은 송원 시기 중국의 랜드마크로서 웅장한 모습과 내재된 의미로 시대의 찬란한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정사(淸淨寺), 성묘(聖墓), 노자 조각상 등 종교 유적지는 취안저우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대 고대 선박, 구일산 기풍석각(九日祈風石刻), 정화의 남해 원정(鄭和下西洋) 비석 등은 과거 활발했던 취안저우의 대외 무역 및 문화 교류를 증명합니다. 이들 문화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취안저우의 ‘소프트웨어’에는 취안저우의 남음(南音), 목우, 이원희(梨園戲), 고갑희(高甲戲), 타성희(打城戲) 등 극(극), 농취(籠吹), 대고취(大鼓吹), 차고(車鼓), 북관(北管) 등 민간 음악, 채차무(採茶舞), 박흉무(拍胸舞), 혜녀 복식 공연(惠女服飾表演) 등 민간 춤과 목우 머리 조각, 꽃등, 돌 나무기와 조각, 흙 인형, 자기 인형, 채찰(彩扎), 전지(剪紙), 죽세공, 종이 직물화 등 전통 공예미술, 오조권(五祖拳), 백학권(白鶴拳), 유가곤(俞家棍) 등 남소림 무술 등이 있습니다. 취안저우시가 보유한 각급 무형문화유산은 565개로 국가급은 31개, 성급 76개, 시급 134개, 현급 324개에 달하며 국가, 성, 시, 현급 무형문화유산 목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취안저우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형문화유산 3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류 무형문화유산 2개(남음, 중국 전통 목조 건설 기술)와 시급히 보호해야 하는 무형문화유산 1개(중국 수밀격창복선(水密隔艙福船) 제조 기술), 무형문화유산 우수 실천사례 1개(취안저우 인형극에서 가장 중요한 복건 인형극 후예 양성 계획)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밖에 취안저우는 혜안(惠安)의 돌 문화, 안계(安溪)의 차 문화, 덕화(德化)의 자기 문화와 돌사자, 진강(晉江)의 복식 문화 등은 영향력이 큰 특색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2. 고대 취안저우와 동아시아의 만남

고대 동양 최대 항구이자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인 취안저우는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어 고대 중국 및 동아시아 문화권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수많은 무역 사료는 취안저우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9세기 전후, 취안저우가 일본, 한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은 연유로 고려와 일본의 물품 대부분이 취안저우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고려사(高麗史)》와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북송 대종상부 8년(1015년)~원우 5년(1090년), 고려로 가는 송상 선박단은 27개 조였으며 이중 취안저우 상인은 16개 조, 명주 상인은 3개 조, 대주 상인은 3개 조, 광주 상인은 3개 조, 복주 상인은 3개 조였습니다. 취안저우 상인은 인원수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수한 상업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취안저우 상인단이 최대 150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당시 고려로 가서 무역을

하던 취안저우인은 천 명에 달했습니다. 1)당시 취안저우 상인이 고려로 운송한 상품은 능견, 금라, 백견, 금은 그릇, 예복, 도자기, 약재, 대모, 차, 술, 서적, 악기, 초, 동전, 보옥 등이고 취안저우로 가져온 물품으로는 금, 은, 동, 인삼, 복령, 모피, 황칠, 유황, 부채 등입니다.

중국의 도자기 제조 기술은 상당 부분 취안저우를 통해 일본으로 유입됐습니다. 가정 6년(1213년), 일본 가토시로(加藤四郎)가 도원 선승을 따라 송나라 덕화에서 도자기 제조술을 배운 뒤 야마다 군(山田郡) 세토촌(瀬戸村)(현재의 아이치현(愛知縣) 세토촌)에서 시험 제작에 성공한 후 ‘세도야끼(瀬戸焼)’라는 송나라식 도자기를 제작했습니다. 일본 요로(窯爐)는 덕화 계급요(階級窯)의 영향을 받아 설계된 것으로 이 때문에 일본은 덕화요를 관요(串窯)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²⁾

이와 함께 취안저우는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신기술과 문화, 사물을 배웠습니다. 당나라 시기 신라의 신라송이 가화서(嘉禾嶼)(지금의 사면)로 유입됐으며 고려 채소가 취안저우 곳곳에서 재배되었고 다시 동남아와 대만 지역으로 전파됐습니다. 공심채는 조선 혹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됐으며 신라, 고려에서 유입된 식물로는 신라 인삼, 칩 등이 있습니다.

취안저우와 일본의 최초 문화 왕래는 당천보 연간(742~756년) 감진(鑑眞) 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고승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간 14명의 제자 중 담정(曇靜) 대사가 취안저우로 왔습니다. 일본 다자이후(大宰府)에 남아 있는 송대 공문은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존된 송대 무역 증명서로, 취안저우 상인 이충(李充)이 북송 영원년(1102년) 일본에서 무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동아시아 교류 역사 상, 취안저우와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 많은 것을 주고 받으며 민족 간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오대 시기, 취안저우 초경사 승려 정(靜)과 균(筠)이 편찬한 《예당집(祖堂集)》이 조선으로 전해졌는데 초판이 근대에 가야산 해구사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송 가정 10년(1217년) 일본 게이세이(慶政) 대사가 취안저우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때 북주판 《대장경(大藏經)》을 가지고 갔습니다. 원우 2년(1087년) 취안저우 상인 서전(徐戡)이 고려 재물을 받아 항주에서 협주 《화엄경(華嚴經)》 등 2900여 편을 찍어 고려로 운반했습니다. 이는 중국 인쇄술과 불경이 동아시아에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 교류 방면에서는 취안저우의 역사적 인물 이지(李贄)의 사상이 동아시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지(1527~1602)는 복건 취안저우 진강 사람으로 원래 성이 임(林)씨였지만 후에 이씨로 개명했습니다. 이지는 중국 명대 진보적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말년에 남북송 수도를 오가다가 무고로 감옥에 갇힌 후 자진했습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누르는 사회적 풍조를 비판하며 상인의 공적을 높이 치켜세우고 공리적 가치를 주창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싹트던 명대 중후기의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의 저서로는 《분서(焚書)》, 《속분서(續焚書)》, 《장서

1) 진고화(陳高華) : 《북송 시기 고려로 건너가 무역한 취안저우 박상(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舶商)》, 《해교사 연구(海交史研究)》 제2기(1980년).

2) 엽문정(葉文程), 서본장(徐本章): 《창소 국제시장의 고대 덕화 판매 자기(暢銷國際市場的古代德化外銷瓷器)》, 《해교사 연구》 제2기(1988년).

(藏書)》 등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 히키다 케이수케(Hikita Keisuke, 疋田啓佑)가 발표한 학술 보고서 《일본에 대한 이지(李贄)의 영향과 일본에서의 이지 연구(李贄對日本的影響及李贄研究在日本)》에서는 이지가 일본 메이지 유신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학자는 이지 연구를 매우 중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전파된 이지 사상으로는 먼저 이지가 평어를 남긴 《수호전(水滸傳)》을 들 수 있습니다. 생전에 《수호전》을 매우 좋아한 이지는 이 책을 ‘고금지문(古今至文)’, 즉 고금에서 가장 훌륭한 글이라 칭하며 세계 5대 대작에 포함시켜 《사기(史記)》에 필적한다며 추앙했습니다.³⁾ 호북 마성용호(麻城龍湖)에 당도한 이지는 20, 30년 가까이 학문을 닦으면서 《수호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수호전》으로 답답하고 분한 감정을 표출했기 때문에 평가가 특별히 더욱 상세했습니다.⁴⁾ 그는 승려 상지(常志)에게 《수호전》 필사를 명한 뒤 평어를 첨가했는데 “유쾌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⁵⁾ 이지의 평어로 인해 사람들은 《수호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어떤 이는 이지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작가와 독자는 영원히 꿈속을 헤맸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⁶⁾

《수호전》은 1670년대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100년도 안 돼 일본에 ‘수호전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열풍은 일본이 중국의 새로운 문학 예술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로 일본에 유입된 수호전은 《이탁오 선생이 비평한 충의 수호전(李卓吾先生批評忠義水滸傳)》으로 중국어에 능통했던 오카히마 칸무리아마(Okajima Kanmuriyama, 岡島冠山)가 일본 가나를 첨가한 후 20판을 인쇄했습니다. 이는 일본 판각 인쇄의 시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 영향을 미친 이지의 반도(反道)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유가 학설은 이정(二程)과 주희(朱熹)의 활약으로 도학(이학으로 통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도학은 남송 이래 정통 유학이자 관부의 철학으로 중국 봉건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에 빠르게 유입되었는데 초기에는 압제를 받았으나 도요토미(豐臣)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시대에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년) 등을 통해 상승세를 타며 일본 정통 사상 체계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도학자들은 봉건 통치 질서와 계급 관계를 만고에 빛날 ‘하늘의 도리’로 여기며 일본 봉건제도를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이런 사상적 체계를 통해 일본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도학과 일본 봉건 통치가 결속하던 17세기 말~18세기 초, 일본에도 도학을 반대하는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도학 수호파와 반대파는 격렬한 투쟁은 일본 정통 사상에 동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⁷⁾ 이러한 현상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지의 저작, 특히 반도학 사상이 일본에 전파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지는 공개적으로 도학을 반대했으며 - 정식으로서는 가도학 반대라고 한다. - 공자의 시비로 시비를 가리는 것에 반대하며 시비를 제대로 가리는 표준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백년의 생사굴(生死窟)을 부수고 천년 동안의 시비 판단 방안을 뒤엎자”⁸⁾는 주장이었는데 어떤 이는 “자고 이래로 소인

3) 주희(周暉) : 《김릉쇄사(金陵瑣事)》 상권, 양유추(梁維樞) 《옥검존문(玉劍尊聞)》 6권.

4) 회림(懷林) : 이탁오 《수호전》 비평 설명.

5) 이지(李贄) : 《속분서》 1권, 초약후(焦弱侯)와 함께.

6) 宏道 : 《동서한원평도(袁通속연의서(東西漢通俗演義序)).

7) 일본에서 도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주희학 외의 학파를 이학으로 분류하고 간세이(寬政) 2년 ‘이학 금지’를 시행했다. 투쟁이 격렬했음을 알 수 있다.

의 방자함이 하늘을 찢어 성인을 배반하기로는 이지만한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⁹⁾ 봉건 사상을 반대하는 이지의 주장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정통 유학을 반대하는 일본인들의 근거이자 사상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메이지 유신과에 미친 이지 사상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의 선구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미친 이지 사상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지 사상은 일본 막말(幕末) 양명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시다 쇼인을 대표로 하는 일본 막부시대 말 양명학은 봉건 세력을 대표하는 도쿠가와 막부를 뒤엎고 메이지 유신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사상적으로 이지의 영향을 받은 요시다 쇼인은 이지의 《분서》, 《속분서》 등을 반복해서 보며 이지 사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미문고(己未文稿)》에서 “탁오(卓吾) 거사는 평생의 특별한 사내로서 그의 글이 내 생각과 맞아 반복해서 보니 더욱 즐겁다.” 라는 평까지 남겼습니다. 그의 송음생사관, 우주관, 교우관은 이지의 사상으로 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이지의 사상은 일본 근대 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지의 사상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학자들이 이지 사상을 연구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지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 수가 계속 증가했고, 그 만큼 깊이 있는 연구와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지 사상은 한국 지식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광해 6년(명 만력 42년, 1614년), 허균이 천추사 겸 사은사정사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연경(지금의 북경)에서 이지 《장서》를 구입해 읽은 그는 기서라 생각하고 있던 차에 다음 해 통주에서 《분서》를 읽고 《이씨 분서를 읽고》라는 시 3편을 지었습니다.

“清朝焚卻禿翁文，其道擾存不盡焚。彼釋此儒同一悟，世間橫議自紛紛(청조분각독옹문, 기도요존부진분. 피석차유동일오, 세간횡의자분분.)”, “丘侯待我禮如賓，麟風高標快者親。晚讀卓吾人物論，始知先作卷中人(구후대아례여빈, 린풍고표쾌자친. 만독탁오인물론, 시지선작권중인.)”, “老子先知卓老名，欲將禪悅了平生。書成從未遭秦火，三得台抨亦快情(로자선지탁로명, 육장선열료평생. 서성종미조진화, 삼득태평역쾌정.)”.

이 시는 이지 글의 영속성과 세상에서 겪은 경험, 이지의 도불 사상과 《분서》가 탄핵을 겪은 과정을 읊고 있습니다.¹⁰⁾

현재 한국 학자들도 이지 사상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지 사상이 담고 있는 현대적 가치를 연구하는 한국의 김혜경 교수는 심오한 이지 사상은 현대에도 지나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세 부분, 즉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융합하는 통합성, 생사의 명확성을 밝히는 생명의식, 각계 각층의 문화는 모두 가치와 존재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문화를 똑같이 중시하자고 강조한 다양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¹¹⁾

8) 류동(劉洞), 어혁정(於奕正):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 8권, 기보명적(畿輔名跡).

9) 고염무(顧炎武): 《일지록(日知錄)》 18권.

10) 박현규: 《조선 허균이 이지 저작을 구하는 과정》, 《해교사 연구》. 제1기.(2006년).

11) 김혜경: 《만명 사상이 이탁오 사상의 깊은 현대적 가치》, 《취안저우시 이지 사상 학술세미나 논문집》, 《취안저우학림》.

3. 당대 취안저우와 동아시아의 만남

성씨는 중화 전통문화에서 혈통을 강조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외 동족은 공통된 성씨로 중국 대륙에서 조상의 뿌리를 찾습니다. 저 역시 한국, 일본 등의 임씨 동족이 취안저우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연구하는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주최측처럼 우리 임씨 동족의 지맥, 한국 임씨가 있습니다. 한국 임씨는 중국 민림 시조의 후예로 한중 수교 후 한국 임씨 종친이 여러 차례 중국에서 뿌리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족보에 따르면 한국에 뿌리를 내린 임씨 시조는 당 구목 육방 임온(林蘊)의 현손 임팔급(林八及)입니다. 당말, 주온의 반란을 피하기 위해 임팔급은 팽성(彭城, 현재 안동령 팽성)에서 강화판을 통해 신라로 건너가 평택현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지금은 120만 명에 달합니다. 후손들은 중국 전통 족보에 따라 팔급을 ‘해동 1세’로 추대했고 지금 40여 대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후손 임씨회 회장 임방현은 한국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래가 끊겨 지금은 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성 가문에서 출생한 불심대법사 임윤희는 족보에 따라 ‘임팔급’, ‘소주자사 온공(邵州刺史蘊公)’, ‘팽성’을 단서로 여러 차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에 건너와 뿌리를 추적했습니다. 1995년 5월 3일, 불심대법사와 한국 대표단이 하남 위휘(衛輝)에서 비간묘(比干廟)를 참배하던 때 기연을 만나 천년 동안 이어진 선조 뿌리의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불심대법사는 한국에 돌아간 후 종친에게 취안저우 ‘무용은 비간 문화연구회(武榮殷比干文化研究會)’가 제공한 귀중한 단서를 보고하고 1995년 6월 8일, 다시 대표단과 함께 단서를 찾기 위해 취안저우로 왔습니다. 이틀 간의 탐방을 통해 불심대법사는 마침내 뿌리를 찾았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에 돌아간 후 팽성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1995년 12월 17일, 한국 시조 참배단 16명이 여러 도움을 받아 해안 팽성에 도착해 한국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국 임씨 대표단은 성공적으로 뿌리를 찾아 취안저우 해외 이민사를 당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며 이는 사학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7년 7월, 해외 인사들의 기부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비간 기념당’이 남안(南安) 관교(官橋) 내에 준공됐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10차례에 걸쳐 취안저우로 대표단을 보냈고 해안 팽성 임팔급이 바다로 건너 온 곳에 ‘당 소주자사 온공 현손, 신라(한국) 임씨 시조 임팔급공 도해처’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만리에 걸쳐 뿌리를 찾아 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2013년 11월 27일은 음력 10월 25일로 중국 충신 비간 순국 3042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날 남안 관교 내에 ‘비간 기념당’을 준공하기 전에 국내외가 주목하고 만 명 정도가 참가한 성대한 의식이 진행됐고 한국의 임씨 종친이 특별히 축전을 보내는 등 두 나라에서 동시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국과의 종친 친목 활동 외에 당대 취안저우와 일본 우라소에시도 자주 우호 왕래를 가졌습니다.

명나라 때 우라소에시는 고대 류큐 왕국(琉球王國)의 수도였는데, 당시 복건 35성이 류큐로 이민을 가서 건설과 개발을 도왔습니다. 현재 우라소에시에는 복건, 특히 민남 지역의 고대 풍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988년, 취안저우시는 우라소에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2011년 5월, 두 시의 교육부서는 ‘취안저우시·우라소에시 소년 아동 우호 교류 MOU’를 체결하고 청소년의 우호 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MOU 정신에 따라 양측은 2년마다 청소년 방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교류가 두 시의 우호 왕래의 정규 활동이 되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 취안저우의 미래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제1회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에 선정된 후 취안저우시 정부는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워 취안저우 문화 발전을 추진하고 취안저우의 세계 문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안저우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특색 있는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국제 남음 음악회, 국제 목우 축제, 세계 민남 문화제, 민남 타이완 교류 문화제, 정성공 문화제, 해상 실크로드 문화제 등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국내외 3,000만 취안저우인의 조상 문화, 중화 문화, 민남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2014년, 취안저우는 100여 개의 중대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수많은 대중문화 행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문화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세계에 ‘문화의 도시’라는 취안저우의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향후 더욱 웅대한 포부와 안목으로 ‘고성 - 고대 항구 - 새로운 지역 - 전 지역 연동’을 통해 도시 문화를 건설하고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다문화 도시’를 구축할 것입니다.

고성 부흥 부분에서는, ‘통일 계획, 단계별 시행, 기능 전환, 지속 발전’에 따라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취안저우 고성 서쪽 거리의 구 공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이 구역은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2014 취안저우의 해’ 개막 주요 행사장으로 변모해 프로젝트 이미지, 실물 전시, 라이브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 취안저우 고성의 미래 문화 부흥 이미지를 보여주고 관련 문화 창작 행사도 진행하면서 ‘취안저우 서쪽 거리’ 문화 컨셉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쪽 거리 구역 보호 활용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 동서 주요 기능구로 구분했습니다. 동쪽 구역은 역사 문화 거리를 핵심으로 ‘도시 라운지’와 시민 문화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쪽 구역은 취안저우 당대 예술관을 핵심으로 취안저우의 당대 예술과 세계 문화 전시 교류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취안저우시는 현재 세계 유명 건축가 및 국내 첨단 계획단과 계획 설계 협약을 체결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안저우 고성 ‘세 지역, 한 라인’이라는 핵심 지역을 보호, 개발, 활용하는 것으로 고성 문화 생태 보호, 역사 문맥 지속을 전제로 당대 예술과 문화 아이디어, 음악 체험, 레저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다문화 업종을 형성해 고대 취안저우 ‘시장의 수많은 사람들’ 모습을 재현하고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것입니다.

고대 항구 부활 부분에서는 일찍이 ‘동양 제일 항구’였던 모습을 ‘고대 항구 전환 업그레이드 액션 플랜’을 통해 고대 해상 실크로드 기점으로서의 강점을 발휘해 문화 형식과 업종으로 취안저우

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선행구 건설을 추진하고 취안저우의 수용, 축적, 조화, 공생, 개방적이고 다양한 해양 문화를 전시할 것입니다. 현재 취안저우는 관련 기획을 통해 2014 문화의 도시의 해와 그 이후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유명 원양선 ‘고드보그호’ 취안저우 초대, ‘임프레션 해상 실크로드’ 대형 공연, ‘해양 엑스포’ 등을 기획하고 ‘해상 관광루트’를 개발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취안저우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를 통해 ‘중국 해외 교통역사 박물관’ 건설을 계획하고 해상 실크로드 포럼(경제, 문화, 도시 등 포함)을 설립하며 송나라 고대 선박을 모형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 문화 박물관’을 건설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 실크로드의 길 문화 관광구’를 열어 세계 고대 선박 모형 제작 기지, 심포 민속 문화촌을 건설하고 정기적으로 해상 실크로드 문화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새로운 구역 발전에서는 취안저우는 ‘새로운 구역 도시 문화 종합 건설’을 시행하고 당대, 미래, 세계, 청소년을 위한 문화 교류 전시를 위해 필요조건을 갖출 것입니다. 취안저우는 ‘아시아 다문화 발전센터’를 통해 도시 새로운 구역(동해 구역)에 배치한 꽃잎형 종합 건축물을 중심으로 음악 예술, 도서 전시, 교육 연수, 문화 전수, 동아시아 예술가(청소년) 문화 교류, 시민 문화광장 등을 통합해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도시 문화 종합전당’을 건설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화 운영 및 전문 관리인력을 통해 자원의 강점과 클러스터 효과를 발휘하고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자원, 관리, 운영의 일체화를 실현해 구역의 전체 이미지와 클러스터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 2개의 강(청원산, 자모산, 다평산, 도화산, 진강, 낙양강)’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 레저 녹지도로, 산과 강변의 느리게 걷기 도로, 도시 친수 플랫폼, 취안저우의 아름다운 와이탄을 조성하고 도시 친구의 인문 품격을 높이며 다양한 문화 생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종합구를 조성할 것입니다.

전 지역 연동에서는 ‘전 지역 문화 자원 연동 강화’를 통해 각 현(시, 구)와 문화 관련 특색 산업, 단지, 역사 거리, 민속 양식, 관광 서비스 등 우수한 자원을 발굴해 모두가 즐겁게 보고 듣는 문화 브랜드를 개발해 전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선사하고 전 지역의 문화 수준과 품질을 제고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2014 취안저우의 해’ 및 그 이후에도 취안저우는 관할 구역내 각 현(시, 구) 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해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취안저우’ 영향력을 강화해 각 박물관, 문화관, 도서관, 서비스센터, 극장을 통합 건설하고 시 전체의 기존 시설의 수준을 높여 문화 자원의 디지털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공익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사회 역량 투자를 통해 공공 문화 실체를 창설하고 문화 전파를 확대하며 ‘온라인 박물관 컨소시엄’, 전 지역 문화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해 시 전체의 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은 계속해서 이 과제를 연구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한·중·일 삼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문화 교류 브랜드이자 모범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취안저우의 어제, 오늘, 내일

김하림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먼저 취안저우에서 오신 린샤오촨(林少川) 중국 취안저우학연구소 소장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안저우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된 일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린소장님의 발표문을 듣고 취안저우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고, 도시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안저우 시민들의 자세와 생각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핵심 키워드이자 트렌드가 ‘지식, 정보,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중시되었던 ‘토목건축’에 기초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중심으로 사회 발전의 동력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강조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도시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75%를 넘어섰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도시라는 공간이자 무대에서 ‘지식, 정보, 문화’가 〈생산(발신) - 소통(매개) - 소비/향유(수신)〉 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세계의 도시거주 인구가 29%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전세계적인 변화는 ‘도시’공간과 여기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어 왔던 ‘입지, 자연자원, 시장 접근성’ 보다는 ‘지혜, 욕망, 동기, 상상력, 창의성’이 중시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변모,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도시 성장이 한계에 처한 시대입니다.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도시를 오히려 온갖 문제의 집산지로 변모시켜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경쟁력의 내용도 바뀌어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도시나 거대도시에서 창조도시/문화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변환점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지 도시체계	네트워크 도시체계
중심지	결절성
규모의존성, 단핵의존	규모중립, 상호의존
수위성, 종속성	유연성과 보완성 지향
동질적인 재화와 서비스	이질적 또는 전문화된 재화와 서비스

수직적 접근성	수평적 접근성
일방 흐름	양방향 흐름
교통 중시	정보통신 중시
공간적 완전경쟁	가격 차별성과 불완전 경쟁

위와 같은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는 하나의 ‘사회적 공통자본’인 것입니다. 즉 경제생활의 영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전개와 창조, 현재대 및 후세의 교육, 인간적 매력을 지닌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자연환경의 보존 등이 가능하고 지속될 때, 그 도시는 경쟁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갖가지 종류의 자원을 정합(整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1)문화를 브랜드로 해서 도시의 국내, 국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 2)문화산업으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3)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시민의 문화권리를 실현하는 것, 4)문화의 각도에서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하고 현대화 발전 정도를 제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에는 1)이념, 정신, 사상 등과 같은 가치관념과 의식형태 부분이 도시문화의 핵심부분이 되어야 하고, 2)법률, 제도, 규정, 규범 등과 같은 사회규칙과 행위규범이 도시 활동의 정상운영의 기본 근거가 되어야 하며, 3)오락, 휴가, 미디어, 여행, 교육 등과 같은 시민의 문화소비와 생활의 질 부분이 도시의 문화생산 및 인성화(人性化)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4)도시 거주민의 사회심리, 풍속, 습관 등이 일종의 도시 공동체 정신을 체현해야 하며, 5)도시의 공공시설, 스타일, 분위기, 이미지, 지명도 등이 인간의 척도에서 도시환경과 도시이미지를 체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취안저우(泉州)는 중국 국무원이 지정한 24개의 중국 역사문화도시 중의 하나로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천년에 달하는 역사 문화가 축적되어 있어서 ‘해안가의 추(鄒), 노(魯) 나라’라고 일컫기도 하며, ‘세계종교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중국 문화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香港’, ‘上海’, ‘北京’, ‘蘇州’, ‘廣州’, ‘杭州’, ‘青島’, ‘天津’, ‘南京’, ‘佛山’, ‘深圳’, ‘西安’, ‘成都’, ‘寧波’, ‘泉州’, ‘武漢’, ‘重慶’, ‘東莞’, ‘珠海’, ‘濟南’과 함께 20위권 안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취안저우는 구도시와 신도시로 구분할 수 있고, 구도시에는 대량의 ‘민남, 이슬람, 유럽식’의 고건축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붉은 색 벽돌로 건축된 이 건물들은 아름다우면서 고대 예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안저우의 역사, 현재, 미래에 대해서는 린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간략한 논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취안저우가 지니고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1) 개방성 : 개방된 도시가 활력과 경제력을 강화
- 2) 포용성 : 유적에서 나타나듯이, 이슬람, 불교, 도교, 마니교, 라마교 등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음
- 3) 다양성 :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경험을 통해 단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신을 지니고 있음
- 4) Business Mind : 대외무역, 해상무역을 통해 비즈니스 마인드가 구비되어 있음
- 5) Global Mind : 일국, 자국 중심이 아닌 세계를 함께 하는 마인드가 구비되어 있음
- 6) 문화유산 애호심 : 위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호심이 뛰어남

이에 대한 린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파란만장한 중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도시건설과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 문제를 취안저우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등도 궁금한 문제입니다.

특히 문화도시의 건설에는 거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점을 취안저우는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도 역시 궁금한 부분입니다.

먼 길을 오신 린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와 취안저우, 요코하마의 굳건한 연계가 미래를 한층 밝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を通じた日中韓3国の都市間文化交流の意義と可能性

佐々木雅幸
同志社大 schools 教授

1. 東アジア文化都市の順調なスタート

2014年より、新たに東アジア文化都市East Asian City of Culture事業がスタートすることになった。これは、1985年に開始された「欧州文化首都」事業に範を取り、アジアの平和と共生、持続的発展に寄与するために、都市の文化交流を進めようとするもので、2011年の日中韓3国文化大臣会合において合意を見たものであり、ゆくゆくはアジア全域の都市に広げる構想である。すなわち、日中韓3国がそれぞれ文化芸術による発展を目指す都市を選定し、その都市において様々な文化芸術イベントを実施するものであり、以下の目的を掲げている。

- 1) 東アジア域内の相互理解と連帯感の形成を促進する
- 2) 東アジアの多様な文化の国際発信力を強化する。
- 3) 都市の文化的特徴を活かして、文化芸術・クリエイティブ産業・観光の振興を図り、持続的に発展する。

事業スタートの2014年には日中韓3国がそれぞれ、東アジア文化都市を選定し、記念の交流事業を展開することとなり、以降は2015年－中国、2016年－韓国、2017年－日本と順番に毎年1都市を選定する運びとなった。初年度は中国では泉州市、韓国では光州広域市、日本では横浜市が選ばれて、交流事業を開始した。

最初に、開幕式典を開催したのは中国・泉州市であり、2014年2月13日の開幕式には、泉州市市長や光州広域市東アジア文化都市推進委員会委員長、横浜市副市長らが出席して、記者発表と挨拶を行った。14日の記念公演会には、横浜市からは広報親善大使のアイドルグループ「でんぱ組.inc」が登場して、現代日本の若者文化を発信して、聴衆から盛んな拍手を受けた。また、伝統的日本音楽ユニット「岩田ユニット・あべや」による尺八、琴、三味線等による特別公演会は、伝統と現代との融合した新たな日本文化を発信として注目された。

同日はまた東アジア文化都市記念フォーラムが開催され、光州広域市東アジア文化都市推進委員会委員長のジョン・ドンジェ氏が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の背景と歴史的意義について語り、横浜市東アジア文化都市実行委員会副委員長を務める佐々木雅幸が、横浜市の創造都市事業の取組の経緯と特徴について発表し、参加した泉州市側の専門家から、熱心な質問が続き、学術交流の重要性が認識された。

引き続き、舞台を移して、2月25日には横浜市での開幕記念イベントに泉州市、光州広域市の代表が参集して、開会式と、ウェイウェイ・ウー（二胡／中国）バー・チェ Chol（テノール／韓国）らとの競演によるオープニングイベント「三都浪漫～時空を超えた音絵巻」が行われ、多

くの聴衆を魅了した。

さらに、3月18日から20日には光州広域市において開幕式、特別公演会、文化施設見学など行われ、泉州市、横浜市の代表団、アイドルグループ「でんぱ組.inc」や伝統的日本音楽ユニット「岩田ユニット・あべや」の他、3都市のマスコミもそれぞれ交流を行った。

このように、東アジア文化都市は順調な滑り出しで、今後の展開が期待されているのであり、安定的持続的に発展させるために、関係者の相互理解と努力が求められている。

2. 「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の背景と特徴

1985年に始まった「欧州文化首都」European Capital of Cultureは2000年に迫った本格的な欧州統合と通貨統合を前にして、EU市民としての共通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形成と、持続的発展の単位としての都市の固有性を再認識する目的をもって進められたものであり、当初は毎年1都市が選ばれ、2000年には一挙に9都市が選ばれて、1年間に亘って多様な文化イベントを展開した。以後は、毎年2都市が選ばれており、都市文化の多様性を互いに競い合うこととなった。

約30年に亘る事業の展開の中で、文化芸術の創造性を活用して新産業や雇用が生み出されることによって都市経済の再生や、移民などの社会包摂においても成功事例が生まれ、これらが、「創造都市」Creative Cityとして世界中から注目されることになった。アメリカではR. Floridaが*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を2002年に出版して話題を集め、創造都市論は欧州から北米、そしてアジアにまで普及した。

世界的な広がりの中で2004年には、ユネスコが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を提唱して、東アジアでも10を超える都市がユネスコ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に加盟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ように、文化都市や創造都市が注目される背景には、グローバル化と知識情報経済化の中で都市経済の基盤が製造業から創造産業に移行してきたことが挙げられる。すでに、欧州や北米では自動車や造船、鉄鋼業などの産業が衰退して都市経済が破綻する事例が生まれて、創造産業や文化産業による都市再生の関心が特に強まっていたのである。

日本、韓国、中国はいずれも第2次大戦後の高度経済成長を経験して、製造業が成熟し、創造産業への関心が徐々に高まっていた。また、相互の経済交流が進み、東アジアが市場としても急速に大きくなり、相互依存関係が深まってきた。「欧州文化首都」を推進するEUと比較すると、「東アジア文化都市」を推進する日韓中3国の間にはいくつか乗り越えるべき壁は存在するが、近い将来、文化産業、創造産業においても東アジア市場は大きな発展可能性も持っているといえよう。

3. 「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の発展に向けて

東アジア地域は、歴史上、一時的な争いの時期もあったが、長期的に見れば互いの文化から学びあい、欧州やアメリカなど地球上の他地域とは異なる独自の東アジア文化を醸成し、発信して人類の発展に貢献してきたといえよう。

特に、自然を征服して物質的豊かさを追求してきた西欧文明とはことなり、自然の脅威を受け入れ、自然と共生する思想や哲学を東アジア文明は育んできたといえよう。こうした思想や哲学は、東アジア文化都市の共通の土壌であり、互いの交流の基盤となるものであるといえよう。同時に、地球環境に過大な負荷をかけることなく、地球社会の持続的発展に貢献する都市モデルを構築するものであると思われる。

それゆえ、東アジア文化都市が、互いの文化を尊重しあい、平和と共生、環境保全型の持続的な都市発展のモデルとなり、リーダーとなるべきであると考えられるものである。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을 통한 한·중·일 3국의 도시간 문화교류의 의의와 가능성

사사키 마사유키

도시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순조로운 출발

2014년부터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도시(East Asian City of Culture)사업이 시작 되었다. 이것은 1985년에 시작된 ‘유럽 문화수도’사업을 모델로 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공생,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의 문화교류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의 한중일 3국 문화장관회의의 합의를 거쳤으며, 향후 아시아 전역의 도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이 각자 문화예술에 의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를 선정하고 그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실시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 1) 동아시아 지역 내의 상호이해와 연대감 형성을 촉진한다.
- 2) 다양한 동아시아 문화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
- 3)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고, 문화예술, 창조산업,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사업을 시작하는 2014년에는 한·중·일 3국이 각자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기념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2015년-중국, 2016년-한국, 2017년-일본 순으로 매년 한 도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초년도에는 중국 취안저우(泉州)시, 한국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일본 요코하마(横浜)시가 선발되어 교류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개막식을 개최한 곳은 중국 취안저우시이며, 2014년 2월 13일에 열렸던 개막식에는 취안저우시 시장과 광주시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요코하마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여, 기자회견과 인사를 하였다. 14일에 있었던 기념공연회에는, 요코하마시의 홍보친선대사 아이돌그룹 ‘덴파구미잉크(でんぱ組.inc)’가 등장하여 현재의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를 전해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일본 전통음악합주단 ‘이와타(岩田)유닛·아베야’의 통소, 거문고, 샤미센(三味線) 연주로 이루어진 특별공연은 전통과 현재를 아우르는 새로운 일본문화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같은 날 동아시아문화도시 기념포럼이 개최되어, 정동채 광주시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요코하마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실행위원회 부위원장 사사키 유키가 요코하마시 창조도시사업의 경위와 특징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참여한 취안저우시 측의 전문가로부터 열렬한 질문세례가 이어져 학술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2월 25일에는 장소를 옮겨 요코하마시에서 개최하는 개막기념 이벤트에 취안저우시, 광주시의 대표가 모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국의 니코(二胡)연주자인 ‘웨이웨이 우’와 한국의 테너 배재철씨가 참여한 오프닝 이벤트 ‘세 도시의 개화-시공을 초월한 음악회’가 열려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3월18일부터 20일까지는 광주시에서 개막식, 특별공연, 문화시설 견학 등의 행사가 열렸고, 여기에는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의 대표단과 아이돌그룹 ‘덴파구미잉크(でんぱ組lin)’, 일본전통음악합주단 ‘이와타(岩田)유닛·아베야’가 참여하였으며, 세 도시의 매스컴 관계자들도 상호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2.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배경과 특징

1985년에 시작된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는 2000년에 시행하기로 한 유럽 연합과 통화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유럽연합의 시민으로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단위로서 도시의 고유성을 재인식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매년 한 도시가 선정되었으나 2000년에는 동시에 아홉 개의 도시가 선정되어 1년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후에는 매년 두 도시가 선정되어 도시문화의 다양성을 서로 뽐내게 되었다.

약 30년에 걸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과 고용이 창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경제의 재생이나 이민 등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의 성공사례들이 만들어졌다. 이 사례들이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예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리처드 플로리다(R. Florida)가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를 2002년에 출판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이러한 창조도시론은 유럽에서 북미, 그리고 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세계적인 유행 속에 2004년에는 유네스코가 창조도시 네트워크를 제창하여 동아시아에서도 10개를 넘는 도시가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도시와 창조도시가 주목 받는 배경으로 글로벌화와 지식정보경제화의 진행 과정에서 도시경제 기반이 제조업으로부터 창조산업으로 옮겨 온 것을 들 수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업 등의 산업이 쇠퇴하여 도시경제가 파탄에 이른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는 창조산업과 문화산업에 의한 도시재생에 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졌다.

한국, 중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제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서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호 경제교류의 확대가 동아시아가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어져, 한·중·일 3국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유럽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한중일 세 나라 간에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머지않아 문화산업, 창조산업 분야에서도 아시아시장은 큰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아시아지역은 역사상 일시적인 분쟁의 시기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의 문화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유럽이나 미국 등 지구상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동아시아 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을 정복하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해 온 서양 문명과 다르게, 동아시아 문명은 자연의 위협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공생하는 사상과 철학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과 철학은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공통된 토양으로 상호 교류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지구환경에 과대한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세계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도시모델을 구축하는 일의 사상적 배경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평화와 공생, 환경보전이 가능한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모델이자 리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도시 요코하마의 문화정체성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참여는 어떠한가?

김용의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이하, 사사키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한·중·일 삼국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시작된 경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배경과 특징,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시작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1985년에 시작된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사업을 모델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점, 아시아의 평화와 공생,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국에서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의 취안저우시(泉州市), 일본의 요코하마시(横浜市), 한국의 광주광역시를 순차적으로 돌며 진행된 사업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배경과 특징 부분에서는, 약 30년 동안 진행된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성공사례를 거론하며, 특히 2004년 유네스코에서 창설한 ‘창조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y Network)’ 프로젝트를 주목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에서 영화, 디자인, 문화, 공예 등의 7개 분야에 걸쳐 세계적으로 특색이 있는 도시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2014년 현재 일본은 디자인 부문에 고베시(神戸市)와 나고야시(名古屋市), 공예 부문에 가나자와시(金澤市), 미디어아트 부문에 삿포로시(札幌市)가 선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수공예에 이천시, 디자인에 서울시, 식문화에 전주시가 선정되었다.

사사키 교수는 유럽과 문화도시와 창조도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경으로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에 의한 도시 재생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에서도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 연합과 비교할 때에 한중일 삼국 사이에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벽’이 존재하지만, 아시아시장에서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여기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한중일 삼국 사이에 가로놓인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고 본다. 즉, 동아시아 문화가 유럽 및 북미의 문화와는 전통적으로 그 사상과 철학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유럽 및 북미 문화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동아시아 문화를 구축하고 전파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럽 및 북미 문화와 차별화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꾸어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토론자는 그 이전에 현재 교류가 진행 중인 한·중·일 삼국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끼리 서로 교류하는 의의는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한·중·일 각국의 문화도시가 스스로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도시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요코하마시의 역사적인 문화정체성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떤 문화정체성을 확립해가고자 하는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도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이야말로, 각각의 문화도시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시장의 필수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시는 2014년 현재 인구가 약 379만 명(인구 통계는 요코하마시청 홈페이지 참조)에 이르는, 일본의 시정촌(市町村)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문화기반시설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동부에 위치한 현청소재지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요코하마 시민들의 관심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단체 조직이 존재한다면 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어떠한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세션 2

문화산업과 문화공동체

발제 4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 방안
: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김명중 /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세경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 방안
강신겸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5 일본의 비엔날레 · 트리엔날레의 부흥과 그 의의
노다 구니히로 / 돗토리대학교 지역학과 교수

토론 5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다시 시작하기
차재근 /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발제 6 취안저우의 지역문화와 민간공예미술
차이 원송 / 취안저우시 공예미술협회 상무부비서장
황웬중 / 취안저우 사범대학교 디자인&미술학과 부학장

토론 6 ‘취안저우의 지역 문화와 민간 공예미술’을 읽고
양희석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좌장 조현영((주)더 마인 대표)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 방안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김명중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 I. 서론
- II.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산업의 역할
- III. 동북아 3국의 문화산업 교류 현황 및 제약요인
- IV. 아시아 TV 문화채널의 설립가능성
- V. 결론

I. 서론

3

1.1 논의배경

국제 환경 변화

-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 간 정치, 경제, 문화적 상호의존의 증가
 - 사회정치적 범위가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global civil society 형성
 - 시장개방 증가, global value-chain 확산 등 경제구조의 글로벌화
- 세계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
 - 평화적, 외교적 교류와 이해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증가
 - 다자간, 양자간 교역협력 증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블록화 현상
- 국가간 신뢰, 상호가치 이해 등 사회자본 형성이 매우 중요
 -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부상

동북아 3국 정세

- 동북아 3국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증가
 - 영토 및 역사인식 문제에 따른 한중일 정치외교적 갈등 심화
 - 지리적 역내 시장 부상,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는 한중일 지역경제협력 노력 증가
 - 동북아 3국의 자발적인 대중문화 및 민간 교류 급속한 확산
- 따라서 한·중·일 문화공동체 구축으로 정치외교적 갈등 완화 노력 시급

Page 4

1.2. 연구목적

연구목적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송영상 분야 중심의 문화산업 발전 모색



주요 논의사항

1.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의 관계 고찰
2. 동북아 3국의 문화교류 현황 및 제약요인 탐색
(문화교류의 원심력과 구심력 요인의 확인)
3. 동북아 3국의 문화산업 발전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TV 문화채널 설립가능성 탐색
(방송영상을 중심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검토)

Page 5

Ⅱ.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산업의 역할

6

2.1 사회자본 형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 사회자본은 시민사회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신뢰,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 안정화 및 규범을 강화(Coleman, 1990; Putnam, 2000; Norris, 2002)
- 사회자본의 특성(Putnam, 1993; 1995; Fukuyama, 1995)
 - 개인의 소유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만 존재
 - 자본의 이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 가능
 - 자본유지를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모
 - 사회자본 거래가 전체 공동체의 사회자본을 증가
- 사회자본은 전지구적 시민사회에서도 적용 가능
 - 국가간 상호 신뢰 및 규범 형성,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발전의 선순환 효과(virtuous circle effect) 유발
 - 글로벌 지역공동체 형성에서 공동체意識에 기반한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

<표> 사회자본 유형

Performance & Innovation Unit (1999)	Adler & Kwon(1999), Woolcock(1988)	
	내부성(Internal) 또는 자율성(Autonomous)	외부성(External) 또는 배태성(Embedded)
유대(bonding) 관계	개인적 협력, 개인적 조언, 이웃과의 친밀도	공동체意識, 신뢰의 문화, 가치의 공유, 제재의 문화
연계(bridging) 관계	개인적 면식, 개인적 연계	정치적 연계, 타 공동체와의 연계

Page 7

2.2 동북아 3국 지역공동체의 핵심, 문화공동체

문화공동체 형성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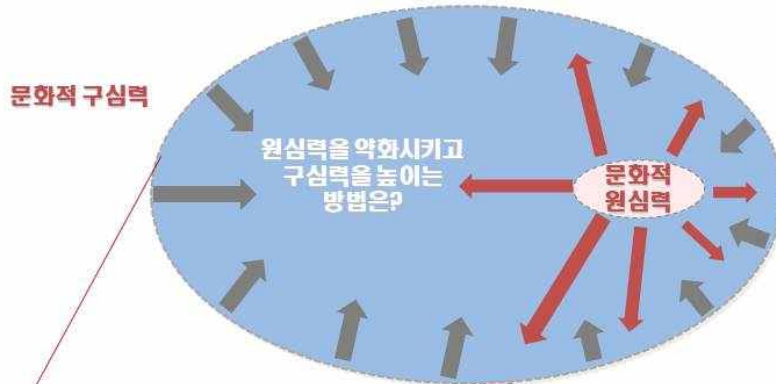
- 글로벌 지역공동체의 유형과 발전 단계
 - 역내 공동체 형성단계 : 문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정치공동체 순
 - 유럽은 언어(라틴어), 종교(천주교, 기독교) 등 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제공동체(EC) 단계를 지나 정치공동체(EU)로 발전
-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면 국가간 사회자본 형성에 유리
 - 문화는 공통된 삶의 방식, 의식 및 가치관, 커뮤니케이션 등에 기반
 - 문화공동체는 곧 국가간 공동체意識, 상호가치 이해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 담당

동북아 3국의 문화적 구심력과 원심력

- 문화적 원심력 →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통의 토대 존재
 -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 젓가락사용 문화권 등 문화동질성
 - 유교문화, 경제발전, 민주주의 등이 조화를 이루는 아시아적 가치의 선도국가
- 문화적 구심력 → 정치외교적 갈등에 따른 국가간 사회자본 형성 제약
 -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등이 상호 신뢰와 결속을 방해

Page 8

2.2 동북아 3국 지역공동체의 핵심, 문화공동체



- 문화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구심력 요인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력 중요
 - 구심력은 공통의 문화적 토대에 출발하되, 3국 상호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
 -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 ⇒ 결국 동북아 3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이 핵심

Page 9

2.3 문화산업의 특성과 문화공동체 형성

문화산업 발전과 문화공동체 형성의 관계

- 문화산업의 주요 특성
 - 문화상품 : 창조적 가치, 문화적 요소가 중요
 -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 수확체증의 효과(return of scale) 발생
 - 창구효과(windowing effect) : 지리적 창구 및 미디어 창구 형성
 - 관련산업 파급효과 : 관광(여가), 스포츠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판매 촉진
- 문화산업의 발전 조건과 변화
 - 아이디어, 스토리, 저작권 등 다양한 창조자산의 확보가 중요
 -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소비자를 유인시켜 거래비용을 최소화
 - 글로벌 플랫폼 및 네트워크 발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로 진화
- 문화산업 특성과 발전 조건으로 인하여 동북아 3국의 문화산업 발전은 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
 - 공통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상호가치 이해에 중진
 - 동북아 3국 문화소비자에게 공통된 경험을 제공하여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
 - 문화산업에 근거한 지리적 시장 통합으로 문화기반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

Page 10

2.3 문화산업의 특성과 문화공동체 형성

□ 문화산업이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례



• 다양한 창조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문화적 자원 발굴과 활용



• 더 많은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소비자를 유인하면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데 기여



• 글로벌 가치사슬 및 유통망 구축으로 인하여 문화산업의 지리적 범위 통합



Page 11

Ⅲ. 동북아 3국의 문화산업 교류 현황 및 제약요인

12

3.1 문화콘텐츠 수출입 규모

●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일본

– 일본과 일본 수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고성장

<표> 한국 콘텐츠산업 국가(지역)별 수출액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중국 (홍콩 포함)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출판	37,508	61,289	29,418	66,192	16,180	34,567	245,154
만화	829	5,507	3,134	2,353	5,202	80	17,105
음악	8,806	189,512	31,146	857	4,231	545	235,097
게임	1,018,676	703,368	496,325	202,337	159,258	58,952	2,638,916
영화	2,008	9,679	2,345	2,873	2,456	814	20,175
애니메이션	1,712	21,421	1,235	59,167	25,433	3,574	112,542
방송	13,162.02	112,087.55	21,304.12	12,565.09	2,200.83	18,398.88	179,718.48
캐릭터	86,347	22,868	45,147	117,034	88,465	56,593	416,454
지식정보	39,586	178,686	203,709	9,727	3,887	9,242	444,837
콘텐츠솔루션	20,688	43,474	27,884	18,289	22,187	17,390	149,912
합계	1,229,322.02	1,347,891.55	861,647.12	491,394.09	329,499.83	200,155.88	4,459,910.48
비중(%)	27.6	30.2	19.3	11.0	7.4	4.5	100.0

<표> 한국 콘텐츠산업 국가(지역)별 수출액 변화 추이(최근 3년)

(단위 : 천 달러)

구분	중국 (홍콩 포함)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2010년	749,534.8	803,897.8	642,071.0	404,754.8	267,930.6	187,705.9	3,055,894.7
2011년	1,118,908.8	1,247,962.2	776,724.9	468,287.6	325,126.7	209,326.5	4,146,356.7
2012년	1,229,322.02	1,347,891.55	861,647.12	491,394.09	329,499.83	200,155.88	4,459,910.48
전년대비증감률(%)	9.9	8.0	10.9	4.9	1.3	▽4.4	7.6
연평균증감률(%)	28.1	29.5	15.8	10.2	10.9	3.3	20.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Page 13

3.1 문화콘텐츠 수출입 규모

●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 방송물 수입은 미국과 유럽에 의존, 게임 수입은 일본과 중국에 의존

<표> 한국 콘텐츠산업 국가(지역)별 수입액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중국 (홍콩 포함)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출판	50,234	57,303	22,230	111,602	67,518	5,418	314,305
만화	87	4,849	—	271	79	—	5,286
음악	109	2,592	62	2,506	7,194	530	12,993
게임	36,298	119,397	—	23,126	148	166	179,135
영화	1,865	1,818	—	33,081	15,794	6,851	59,409
애니메이션	11	6,219	—	31	—	—	6,261
방송	987.80	7,989.70	236.90	108,600.18	8,836.25	1,380.90	128,031.73
캐릭터	80,730	17,691	37,054	19,221	3,586	21,148	179,430
지식정보	—	30	—	327	61	90	508
콘텐츠솔루션	—	—	—	453	—	—	453
합계	170,321.80	217,888.70	59,582.90	299,218.18	103,216.25	35,583.90	885,811.73
비중(%)	19.2	24.6	6.7	33.8	11.7	4.0	100.0

<표> 한국 콘텐츠산업 국가(지역)별 수입액 변화 추이(최근 2년)

(단위 : 천 달러)

구분	중국 (홍콩 포함)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2011년	178,172.4	258,252.1	61,934.9	306,433.2	101,154.4	31,803.5	937,750.5
2012년	170,321.80	217,888.70	59,582.90	299,218.18	103,216.25	35,583.90	885,811.73
전년대비증감률(%)	▽4.4	▽15.6	▽3.8	▽2.4	2.0	11.9	▽5.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Page 14

3.2 방송영상물 수출입 규모

- 한국 방송영상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수출이 전체의 65%를 차지
- 장르별로 보면 드라마 수출이 81.9%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다큐 11.5%, 오락 5.1% 순임. 세 장르가 95% 이상을 차지

<표> 2011년 방송콘텐츠 국가별 수출 총괄

(단위 : 천 달러)

국가	합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독립제작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203,732.7	100.0%	189,478.6	100.0%	14,254.1	100.0%
일본	130,971.8	64.3%	120,554.2	63.6%	10,417.6	73.1%
중국	21,387.3	10.5%	21,069.0	11.1%	318.3	2.2%
북미기타	792.8	0.4%	390.0	0.2%	402.8	2.8%
영국	-	0.0%	-	0.0%	-	0.0%
유럽기타	1,905.5	0.9%	1,395.8	0.7%	509.7	3.6%
기타	48,675.3	23.9%	46,069.6	24.3%	2,605.7	18.3%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Page 15

3.2 방송콘텐츠 수출입 규모

- 한국 방송영상물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 해당하는 북미가 무려 94.5%를 차지
- 장르별로 보면 방송용 영화가 5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가 38.1%
- 다큐는 3.6%, 오락은 2.2%이며 방송용 애니메이션은 0.5%에 불과

<표> 2011년 방송콘텐츠 국가별 수입 총괄

(단위 : 천 달러)

국가	합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독립제작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103,790.0	100.0%	3,390.9	100.0%	100,399.1	100.0%
일본	1,264.4	1.2%	230.4	6.8%	1,034.0	1.0%
중국	352.2	0.3%	3.2	0.1%	349.0	0.3%
북미기타	98,032.5	94.5%	1,310.4	38.6%	96,722.1	96.3%
영국	1,751.6	1.7%	1,003.6	29.5%	748.0	0.7%
유럽기타	1,214.5	1.2%	777.5	22.9%	437.0	0.4%
기타	1,174.8	1.1%	65.8	1.9%	1,109.0	1.1%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Page 16

3.1 방송영상물 수출입 거래규모

<표> 2011년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입 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총 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위성독립제작사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계	203,733	100.0%	103,790	100.0%	189,479	100.0%	3,391	100.0%	14,254	100.0%	100,399	100.0%
드라마	16,949	81.9%	39,595	38.1%	158,488	83.6%	292	8.6%	8,461	59.4%	39,303	39.1%
다큐	23,499	11.5%	3,730	3.6%	23,383	12.3%	2,160	63.7%	116	0.8%	1,569	1.6%
애니메이션	21	0.1%	494	0.5%	117	0.1%	388	11.4%	92	0.6%	106	0.1%
영화	46	0.0%	57,518	55.4%	0	0.0%	547	16.1%	45	0.3%	56,971	56.7%
오락	10,466	5.1%	2,280	2.2%	6,253	3.3%	3	0.1%	4,213	29.6%	2,188	2.2%
교양	912	0.4%	169	0.2%	226	0.1%	-	0.0%	698	4.8%	169	0.2%
기타 장르	1,221	0.6%	4	0.0%	580	0.3%	-	0.0%	642	4.5%	4	0.0%
기타 포맷	432	0.2%	-	0.0%	432	0.2%	-	0.0%	0	0.0%	-	0.0%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Page 17

3.2 최근 교류 트렌드

□ 동북아 3국의 문화교류 현황

- 2013. 6. 한·중 정상회의에서 문화분야 교류 합의
- 2013. 9. 28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광주공동합의문 채택
 -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 △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문화예술 교류 협력 강화와 미래 문화 세대 육성과 교류 지원 △분야별 문화협력의 필요성 등
 - 2014년 문화도시로 대한민국은 광주광역시, 중국은 취안저우시, 일본은 요코하마시를 각각 선정, 국가별 문화도시 행사와 국가별 교류행사 추진
- 한·중 문화교류 장관급 합의(2013.9.28)
 - 민간차원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회의의 구성, 문화예술 교류 확대, 한·중 문화산업 협력 양해각서(MOU) 연내 체결
 - 한·중 게임분야 교류 활성화와 중국 예술가 작품의 국내 전시회 개최 협조 등

Page 18

3.2 최근 교류 트렌드

□ 동북아 3국에서 방송영상을 포맷거래 증가

- 규제 장벽 해소 및 성공가능성 등으로 방송영상을 포맷 거래가 급속히 증가

예능 포맷 수출 현황			
2003	KBS	도전 골든벨	베트남
2010	MBC	우리 결혼 했어요	터키
2012	tvN	슈퍼바다	중국
2013	KBS	불후의 명곡, 1박 2일	
	MBC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진짜 사나이, 우리 결혼 했어요	터키
		환상의 짝궁	
	SBS	기적의 오디션, K팝 스타	중국
	m.net	슈퍼스타 K	
	JTBC	히든싱어, 대단한 시집	
	tvN	슈퍼디바	아르헨티나·멕시코·콜롬비아
		더지니언스	네덜란드
2014	tvN	꽃보다 할배	중국

출처: 콘텐츠진흥원

Page 19

3.2 최근 교류 트렌드

□ 드라마, 영화 등 방송영상을 공동제작 증가

- 드라마 제작사의 중국 진출 증가, 현지 드라마 공동제작 및 투자 유치
- 삼화네트웍스, 초록뎀, 키이스트, 팬엔터테인먼트 등

국가	장르	명칭	주요 협력/합작 내용
한일	드라마	프렌즈(2002)	MBC와 TBC
		별의소리(2004)	MBC와 후지TV 합작
		아스카의 연인/스타의 연인(2009)	산하협동 프로젝트 오사카 예술대학의 일본 현지 촬영 참여
		메리는 외박중(2010), 나쁜남자(2010)	아시아 콘텐츠센터(ACC)와 공동제작 나쁜남자 NHK 방영
		피그말리온의 사랑(2010)	사전제작 드라마 일본 AVEX 공동제작, 일본 BeeTV 통해 방송
	영화	역도산(2004)	
		보트(2009)	일본 IMJ엔터테인먼트 투자
한중	드라마	비천무(2008)	
		중착역(2013)	
	영화	삼국지:용의부활(2008)	국내 태원엔터테인먼트 자본 투자 등
		전처의 결혼식(2010)	홍콩 '썬드림'과 합작
		치명적 답안(2011) 위험한 관계(2011) 길 위에서(2011) 양귀비(21011)	

Page 20

3.3 교류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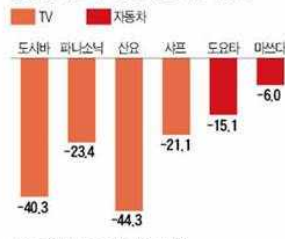
□ 상호국에 대한 반감정서 확산

● 일본의 반한 정서 현황

- 일본 5개 채널에서 '한류 셀렉트'라는 한국 드라마 편성시간 폐지
- 2013년 13월말 기준 일본 사회·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20위 중 4권이 혐한류 서적

● 중국의 반일 감정 증가

일본 업체들의 8월 중국 판매량 (단위: %)



일본의 대중국 수출규모 (단위: 억엔 · %)



-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상호 신뢰 및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현상 증가
- 특히, 상업주의 미디어가 이러한 반감을 촉발시키는 enabler로 작용

Page 21

3.3 교류 제약요인

□ 일방적 문화교역과 규제의 문제

● 일방적 문화교류 현상에 대한 상대국 우려 표명

- 중국은 외국프로그램 중심으로 나타나는 상업화와 선정성 우려
- 일본에서 질 낮은 콘텐츠의 지나친 가격올리기 등에 대한 반감

● 중국의 해외 방송영상물 수입제한 조치

- 해외 영화드라마콘텐츠 방송시간은 1일 영화드라마콘텐츠 방송시간 25% 이내, 총 방송시간의 15% 이내, 프라임타임대 특별허가 없이 방영금지
- 기타 TV 애니메이션, 출판물(만화) 등 수입규제
- 신문출판총서, 광전총국 등의 추가 조치
- * 위성TV 외국프로그램은 1년에 1편만 편성, 판권 당해연도 프라임타임대(오후 7시 30분 ~ 10시) 방영금지 등 다채널 동시방영 금지 추진(프라임시간대 3개 채널 동시 방영, 연속 2회 방영 금지)

Page 22

3.3 교류 제약요인

□ 불법 유통과 저작권 침해

- 최근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통이 점차 감소하나, 아직 더 개선 필요
- 방송플랫폼, 미디어가 제도화된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지 못해 불법적 유통이 지속되는 상황
 - 2012년 유통된 8만7860개 한류콘텐츠 중에서 80,936개(92.2%)가 불법유통, 지난 2011년 5만2421개 중 4만7257개(90.1%)가 불법 유통된 것에 비해 증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Page 23

IV. 아시아 TV 문화채널의 설립가능성

24

4.1 아시아 문화채널 설립의 여건 조성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 조성사업
→ 아시아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
- 동북아 국가간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상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3국 국민들 간에는 상호이해를 저해하는 스테레오 타입 극복 필요
- 역내 국가간 문화콘텐츠 중심의 비상업, 다국 공동의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 증가

<외국의 사례>

ARTE(프랑스와 독일), 3SAT(독일어권 3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TV5 Monde(프랑스어권 국가: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의 퀘벡 등)

Page 25

4.2 아시아 문화채널의 기본운영 방향

- 프로그램 철학 :
 - 문화중심의 비상업적 다국 공동의 방송을 운영하여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간의 상호이해를 강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와 국가간 프로그램 교류의 활성화
- 운영방식:
 - 각국의 파트너 방송사들은 방송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보하여 프로그램 공급, 동북아 3국 외에도 참여희망 국가에 문호개방
- 운영재원:
 - 본부가 있는 국가에서 기본 공동 운영비는 부담, 기타 비용은 파트너 방송사가 부담
- 편성: 프로그램의 독립성, 다원성, 형평성 유지가 편성의 기본원칙
- 프로그램 확보:
 - 자체제작 최소화, 90% 이상 기존 프로그램 재활용, 파트너 방송사 공동지분 조달
- 타겟 시장: 아시아(주), 미주와 유럽(부)
- 언어: 자국어(오리지널 사운드), 자막 또는 다언어 자막방송 실시
- 플랫폼:
 - 인터넷을 통해 방송, 각국에서 필요시 인터넷방송을 수신하여 케이블이, 위성, IPTV 등에서 재전송 / SNS 등 모바일 리셉션

Page 26

V. 결론

27

5. 결론

- 문화를 기반으로 한 방송영상 분야에서 뉴미디어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3국 공동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모델 도입
→ 역내 국가간 상호이익 증진 및 경제공동체의 기반 조성방안 모색
- 아시아 TV문화채널 설립의 기대효과
 - 동북아 3국의 대중문화 및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상호이익 실현 가능
 - 문화적 이미지와 스토리를 중심의 방송영상을 교류는 신뢰 및 상호가치 이해 등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여 문화공동체 실현 가능성 제고
 - 아시아 TV문화채널을 기반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유럽과 미주 등 타 대륙으로 내보내는 새로운 창구 역할 담당

Page 28

〈참고문헌〉

- Adler & Kwon. (1999).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Paper presented at the 1999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 in Chicago.
- Coleman, J.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Free Press.
- Lin, N. (2002).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 Press.
- MCST & KOCCA (2013). 2013 Content Industry Statistics(In Korean).
- Norris, P.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 (1999). *Rural Economies*, London: Cabinet Office.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35 ~ 42.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 ~ 78.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 ~ 208.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 방안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동북아 3국의 한중일 경제협력 노력은 늘어나는 반면 영토 및 역사 인식 문제에 따른 정치 외교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북아 3국의 자발적인 대중문화 및 민간 교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방송영상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특히 새로운 공동체적 문화 매개체로 '아시아 TV문화채널'의 설립 가능성을 제안하신 김명중 교수님의 발표내용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와 상품의 소비는 물론 한국여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드라마, 영화, 가요(k-pop), 음식 등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는 이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가능성을 확인 한바 있습니다. 문화, IT산업, 한류 등 소프트 자산을 토대로 한 문화산업의 육성은 국민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하신 것처럼 우선 문화콘텐츠 중심의 비상업, 다국 공동의 '아시아TV문화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에 공감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송콘텐츠의 창작소재, 인력양성, 기술개발, 자본 및 시장에 있어서 3국간 서로 다른 위치와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시아TV문화채널' 제안이 3국간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구체화되어, 3국의 공통된 인식과 문화적 동질성을 이끌어내고 동북아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이루는 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제안하신 방송영상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으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과 문화예술 콘텐츠로 높아진 관심이 상호방문과 체험으로 이어지는 한중일 관광교류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처럼 3국의 주요 도시를 잇는 공동 프로모션 실시 등 다방면의 과제를 통해 관광교류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문화'라는 코드를 매개로 소통하는 문화공동체형성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을 포함하는 이른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육성을 통한 경제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日本におけるビエンナーレ・トリエンナーレの興隆とその意義

野田邦弘

鳥取大学校 地域学部 教授

日本語要約

今世紀に入って日本では、ビエンナーレ、トリエンナーレが急速に増加している。現代アートを中心とするこれら国際美術展の多くは地方自治体を中心となって開催されているが、そこには文化振興目的とともに地域の活性化（地域再生）というもう一つの目的が掲げられている。この背景には、日本における中央政府、地方政府による創造都市政策の積極的展開が見られる。さらに、アートそのものの変容や、アートと地域社会の関わりについての新たな関係構築が見られる。本稿では、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2013と瀬戸内国際芸術祭2013の事例を紹介しながら、ビエンナーレ・トリエンナーレが地域社会にとって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うるかについて考察する。

キーワード

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ビエンナーレ、トリエンナーレ、創造都市、地域再生、地域志向

I. 日本における創造都市政策の発展

製造業を中心とした工業中心の社会から知識が最も重要な資源となる知識基盤経済へのパラダイムチェンジ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議論がなされてきた。フリッツ・マッハルプは、20世紀のアメリカの労働人口が肉体労働から知識労働へ大きく転換していることを豊富なデータで示した（Machlup, 1962）。ダニエル・ベルは財の生産からサービスへ経済活動の重心が移行し、「理論的知識」が社会の中軸原則となるため知識階級（専門・技術職層）の役割が増大することを予見した（Bell, 1973）。アルビン・トフラーは、第一の波（農業革命）、第二の波（産業革命）に続く第三の波として情報革命を予言した（Toffler, 1980）。また、その後出版した『パワーシフト』では、知識が経済力の付随的要素からその本質そのものになった事を指摘した（Toffler, 1990）。ピーター・ドラッカーは、新しい経済においては、知識は唯一の意味ある経営資源であると知識の重要性を指摘した（Drucker, 1993）。

日本政府の知識基盤社会への対応は、科学技術振興策として1990年代に始まる。1995年 政府は「科学技術基本法」を制定し、科学技術開発への予算配分を増加させる。1996年からは科学技術基本計画をスタートさせた。21世紀に入る頃は、科学技術振興は知的財産戦略へと発展する。2002年の知的財産戦略会議における議論をふまえ、2003年には「知的財産基本法」を施行し内閣府に知的財産戦略本部を設置した。2004年には「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が制定され、それ以降経済産業省ではコンテンツ産業振興が取り組まれる。

このように、日本における知識基盤社会への対応策は、科学技術振興から知的財産戦略へと発展してきたが、2007年からは文化庁により「文化芸術創造都市」事業が取り組まれるようになる。文化

庁によれば、「文化芸術創造都市」とは、「文化芸術の持つ創造性を地域振興、観光・産業振興等に領域横断的に活用し、地域課題の解決に取り組む地方自治体」と定義している。文化庁の文化芸術創造都市の取り組みは、文化庁長官表彰（文化芸術創造都市部門、2007年～）、国内ネットワークの構築（2009年～）、文化芸術創造都市モデルの構築（2010年～2011年）、地域発・文化芸術創造発信イニシアチブ事業（2012年～）である。

これまで芸術文化の振興をミッションとして活動してきた文化庁が芸術文化を活かしたまちづくりの分野に取り組みを拡大したのである。この背景には、1990年代以降金沢市や横浜市など各地で創造都市へ向けた取り組みが本格化していったことが指摘される（野田、2008）。創造都市政策を推進する全国の都市と文化庁は、2013年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日本（CCNJ）を設立した。現在32の自治体と12の民間団体が加盟しており、横浜市（代表幹事都市）、神戸市、金沢市、篠山市、鶴岡市が第1期幹事都市に就任した。このような政府の創造都市の取り組みの延長に、2014年から始まった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が位置づけられる。

CCNJ加盟都市のうちユネスコの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に加盟しているのは、次の各都市である（表-1）。また、これらの他に新潟市、鶴岡市、浜松市などが同ネットワークへの加盟申請準備を進めている。

（表-1）ユネスコ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加盟都市

加盟年	都市名	分野
2008年	神戸	デザイン
2008年	名古屋	デザイン
2009年	金沢	工芸と民衆芸術
2013年	札幌	メディアアート

Ⅱ. 日本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

日本において、創造都市を象徴する文化事業が、ビエンナーレ、トリエンナーレなど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である。日本ではこの10年間で数多く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が誕生した。世界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の歴史をふり返ると、ベネチアビエンナーレが最も古い（1895年～）。その後、ドクメンタ（1955年～）、ミュンスター彫刻プロジェクト（1977年～）など20世紀後半からヨーロッパ各地域で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が開催されるようになり世界に広がっていく。アジアでは、光州ビエンナーレ（1995年～）、上海ビエンナーレ（1996年～）、台北ビエンナーレ（1998年～¹⁾）、釜山ビエンナーレ（1998年～²⁾）、北京ビエンナーレ（2002年～）、シンガポールビエンナーレ（2006年～）、など1990年代に入り多くのビエンナーレ、トリエンナーレが始まった。

日本における最初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は、1952年から始まる日本国際美術展（東京ビエンナーレ）である（アジア初）。動美術展は、1970年コミッショナー中原佑介のもと「人間と物質」展を開催した。もの派、アルテ・ポーヴェラ、コンセプチュアリズムなどの前衛的な作品は世界的な水

1) 国内展として1992年から始まっている。

2) 国内展として1981年から始まっている。

準の高さのものであったものの、伝統的価値観の観客からは不評を買い、赤字となったためこの回をもって日本国際美術展は中止となる（吉本光宏、2014）。

その後2000年代に入り、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が復活する。2000年新潟県十日町市と津南町の山里で、大地の芸術祭（越後妻有アートトリエンナーレ）が始まる。2001年には横浜トリエンナーレがスタートした。当時日本にもトリエンナーレの時代がやって来たといわれた。その後神戸ビエンナーレ・北九州国際ビエンナーレ（2007年～）、混浴温泉世界（別府）・開港都市にいがた水と土の芸術祭（2009年～）が始まり、2010年には瀬戸内国際芸術祭と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がスタートした。今年からは札幌国際芸術祭が新たにスタートする。ここで、その規模の大きさ、国際性、作品の質の高さの観点から、大地の芸術祭、横浜トリエンナーレ、瀬戸内国際芸術祭、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の4つが代表的な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といえよう。

この4つ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を比較する。開催場所については、大地の芸術祭と瀬戸内国際芸術祭は非都市部（里山と離島）、横浜トリエンナーレと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が大都市部での開催である。開催主体については、大地の芸術祭がディレクター主導、瀬戸内国際芸術祭は、福武財団という民間財団により主導されている³⁾。この2つ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はともに北川フラムによるキュレーションに負っている。一方、横浜トリエンナーレと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は、横浜市と愛知県という自治体が主導するフェスティバルである。これらを整理したのが（表-2）である。

（表-2）主なトリエンナーレ

開始年	名称	開催場所	開催地のタイプ
2000年	大地の芸術祭	新潟県妻有地区	山間部
2001年	横浜トリエンナーレ	横浜市	都市部
2010年	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	名古屋市、愛知県内自治体	都市部
2010年	瀬戸内国際芸術祭	瀬戸内海東部の離島等	離島

ここで、直近の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2013の開催概要と開催結果を見てみる（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実行委員会、2014）。

【テーマ】揺れる大地-われわれはどこに立っているのか:場所、記憶、そして復活

Awakening - Where Are We Standing? - Earth, Memory and Resurrection

【芸術監督】五十嵐太郎（東北大学大学院工学研究科教授、都市・建築学）

【会 期】2013 年8 月 10 日~10 月 27 日 (79日間)

【会 場】■名古屋地区（愛知芸術文化センター、名古屋市美術館、長者町会場、など）

■岡崎地区（東岡崎駅会場、康生会場、松本町会場）

【参加アーティスト】■美術 76の個人・団体、

■舞台芸術 15団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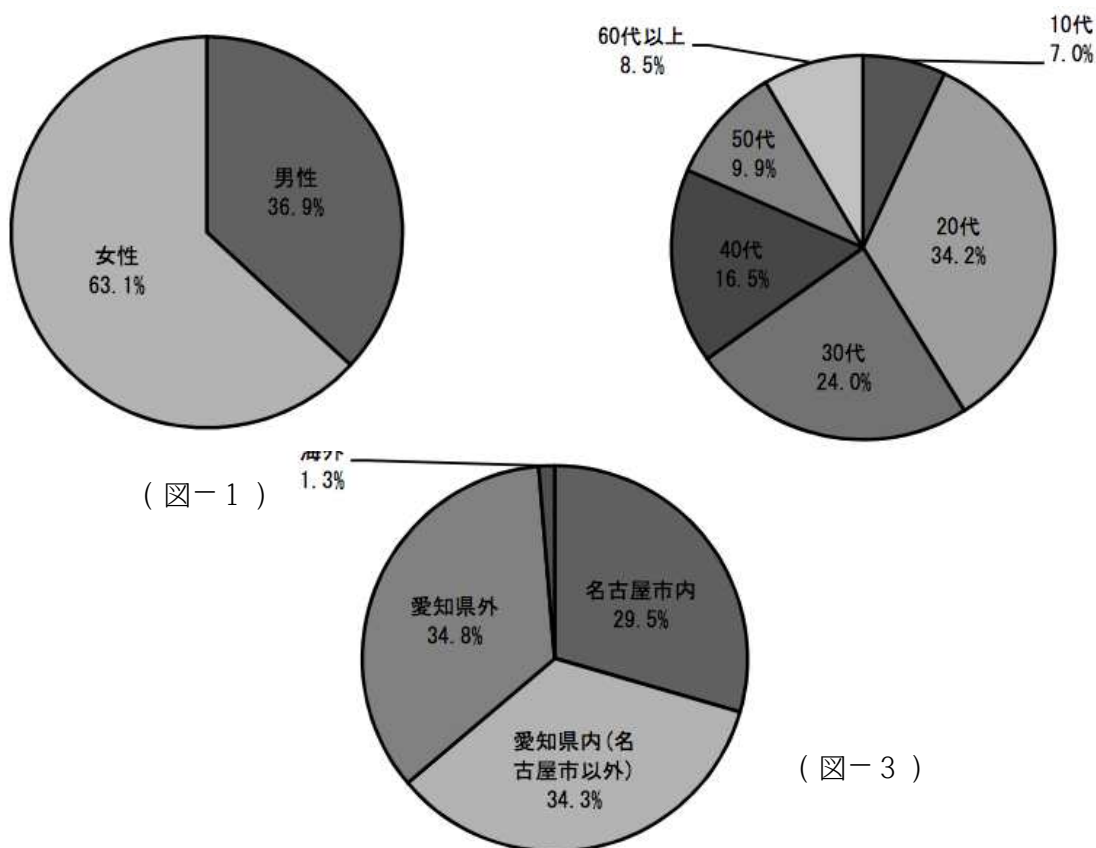
【ボランティア】964人（実働人数）

【総来場者数】626,842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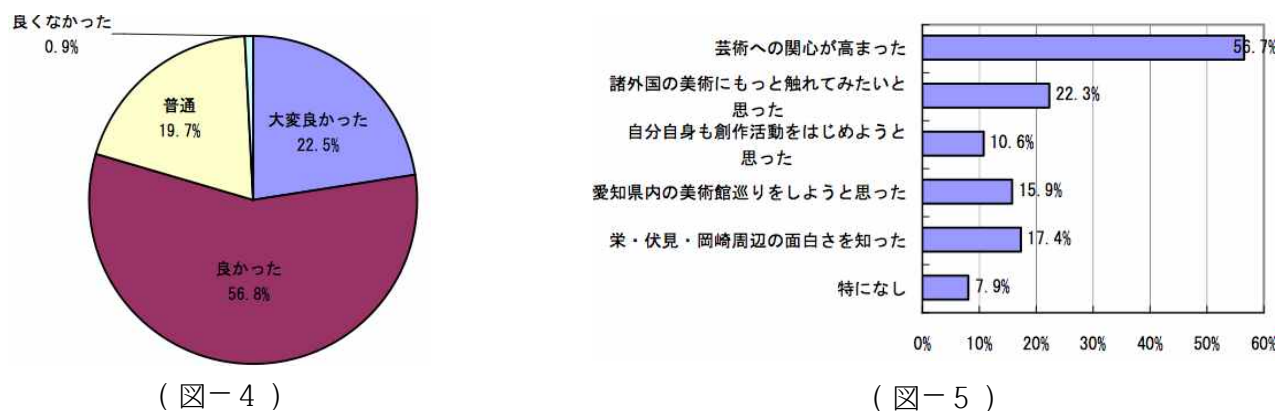
【予 算】12億5,780万円（3カ年）

3) 香川県や高松市といった地元自治体が主催団体に入っているが、当初イニシアティブをとって推進したのは福武財団である。

来場者の内訳は、女性が63%（図－1）、30歳代までが65%（図－2）、愛知県外から35%、海外から1.3%（図－3）となっている⁴⁾。日本におけるこの種の催しでは、来場者の6割が若い女性であるが、愛知トリエンナーレでも同様の傾向であった。来場者の63.8%が愛知県内から来ている。



来場者の感想（美術作品に限定）については、88%が肯定的に評価している（図－4）。また、美術館の外での展示や劇場での舞台芸術公演があることについては、79%が公的に回答した（図－4）。また、どのような効果があったかという問に対しては、「芸術への関心が高まった」が突出して大きかった（図－5）。



4) 美術展の来場者6,673人の回答による集計

事業経費は、3年間で約12億6千万円である。これに対し、愛知県内におけるトリエンナーレの経済効果（来場者の飲食、買い物、交通費、宿泊費など）は、28億5千万円と試算された。

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では、美術館での展示の他、長者町といった繊維卸問屋街の空きスペースを使った展示を地域住民とともに展開している（他にも愛知県岡崎市でもまちなかでの作品展示が行われた）。これは、このトリエンナーレが単に芸術祭であることにとどまらず、芸術をとおした地域再生を目指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⁵⁾。

Ⅲ. 日本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瀬戸内国際芸術祭2013

大都市名古屋を中心として行政主導で実施された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に対して、瀬戸内海の離島を会場として、民間の力を原動力として取り組まれたのが、瀬戸内国際芸術祭2013である⁶⁾。次の、その開催概要と開催結果を見てみる（瀬戸内国際芸術祭実行委員会、2014）

【名 称】瀬戸内国際芸術祭 2013「アートと島を巡る瀬戸内海の四季」

SETOUCHI TRIENNALE 2013

【テーマ】海の復権

【総合プロデューサー】福武總一郎(公益財団法人福武財団理事長)

【総合ディレクター】北川フラム

【会 期】(春) 3 月 20 日～4 月 21 日

(夏) 7 月 20 日～9 月 1 日

(秋) 10 月 5 日～11月 4 日

合計108日間

【会 場】直島、豊島、女木島、男木島、小豆島、大島、犬島、沙弥島、本島、高見島、栗島、伊吹島、高松港周辺、宇野港周辺

【参加アーティスト】200の個人・団体

【総来場者数】1,070,368人⁷⁾

【ボランティア】ボランティア組織「こえび隊」は、実働人数約1,300人、述べ約7,000人

(作品受付：約3,600人、作品制作：約2,800人、イベント：約600人)

47都道府県のうち36都道府県から参加があった。また、海外からの参加者もあった。

【予算】10億1,500万円 (3カ年)

来場者の内訳は、女性が67.5% (図－6)、年齢層は60.1%が30歳代以下であり (図－7)、これらは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と同様の傾向を示している。どこからやって来たかについては、香川県外からの来場者が61.3% (図－8) であり、人口の少ない過疎の離島に都市部から多くの人が訪

5) 横浜トリエンナーレと黄金町の再生も同じ事例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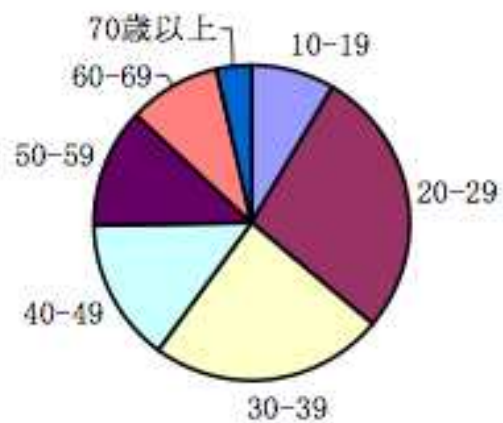
6) 瀬戸内国際芸術祭開催に先立ち、同芸術祭の会場のひとつでもある直島で20年間にわたりアートの島づくりに取り組んできたのが、福武財団と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であり、瀬戸内国際芸術祭はこの直島での取り組みの延長線上に位置づけられる。

7) 各島の来場者数を合計した数値。

れており、大都市開催の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とは異なる結果である⁸⁾。



(図- 6)



(図- 7)



(図- 8)



(図- 9)

Q. 芸術祭2013が終わった現在、芸術祭は地域活性化に役立ったとお考えですか。

1 大いに役立った	33.9%
2 少しは役立った	42.5%
3 あまり役立たなかった	9.1%
4 全く役立たなかった	5.9%
5 どちらともいえない	8.6%
回答数	2,312人



(図- 1 0)

8) 会期のうち51日間について調査を実施。その間の来場者521,098人のうち17,297人からの回答による。

来場者の94.0%が「とても良い」「まあよい」と芸術祭を肯定的に評価している（図－9）。一方、開催地域住民の意識調査も実施されたが、それによると、芸術祭をやってみて、それが地域の活性化に役だったと考え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76.4%が役に立ったと回答し、役に立たなかったという回答の15%を大きく上回った（図－10）⁹⁾。

総事業費は、3カ年で10億1,500万円であるが、1.6億円の黒字を実現した。また、132億円の経済波及効果があった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¹⁰⁾。瀬戸内国際芸術祭は、これまで観光客があまり来なかった離島で開催されるが、瀬戸内海の穏やかな気候と風光明媚な島の魅力のため、会場となった島々には会期中多くの観光客が訪れ、莫大な経済効果を生んだことで、地域のイメージが一変したといえる。

例えば、かつて産業廃棄物が不法に投棄されたことで住民運動が起きていたにアーティストの内藤礼と建築家の西沢立衛による構想・設計により建設された豊島美術館（2010年）は高い評価を受け、多くの観光客が年中訪れる観光スポットとなった。産業廃棄物の島というイメージがアートの島に変わった。

Ⅳ. 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興隆の背景と特徴

このように、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2013および瀬戸内国際芸術祭2013は主催者によれば多くの来場者、来場者の高い満足度、地域経済への貢献、地域イメージの改善、多くのボランティアの参加などの点から、成功と評価されている。大地の芸術祭や横浜トリエンナーレについても主催者によれば成同様の評価がされており、アジア諸国に対して遅れて始まったわが国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も順調に成長し始めた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

遅れて始まったため日本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は今日的な課題に向き合いながら展開していくことになる。それは地域再生というテーマである。現在実施されている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は、それも文化振興と開催地域の地域再生を目的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現代日本の地域再生を目指す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をここでは「地域志向型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と呼びたい。ではなぜ今日本でこのような地域志向型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がブームをむかえたのか、その背景を考察する。

第1に、文化政策の変容である。長年にわたり文化庁や地方自治体の文化政策は、「文化振興」それ自身をミッションとして、施設建設と運営、事業の開催、人材育成などを行ってきた。しかし、すでに述べたように今世紀に入って、文化振興型文化政策から創造都市型文化政策への転換が進んでおり、そこでは文化政策は文化振興にとどまらず地域活性化がもう一つの目的となっている。

第2に、地域社会の衰退への対応である。近年日本では大都市圏以外の地方の衰退が進んでいる。2005年以降日本では人口が減少し始めた。日本の合計特殊出生率は、1.41（2013年）と、人口減少と人口の高齢化が同時に急速に進んでいるが、そのうえに若者の都市部への流出が重なり地方の疲弊は加速している。すでに市場が成熟し脱工業化の段階に突入した日本国内において、製造業を誘致するというような従来型の地域経済政策は有効性を失っており、各地方自治体も地域経済の回復策を模索している段階である。そのようななかで、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などの

9) 芸術祭終了後、会場となった島の島民(自治会単位)を対象にしたアンケート（2,384人の回答）による。

10) 2005年度産業連関表（総務省）と2005年度香川県産業連関表（香川県）を用いて推計した香川県内における経済波及効果。

アートプロジェクトを地域活性化のために実施する地域が増加している。

第3に、アートの変容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にあって、地方自治体は、地域再生を目的としたコミュニティアートへの補助金を新設しており、若手アーティストにとっては、このような補助金を得ながら各地域を転々とするスタイルが定着しつつある。従来は、パブリックアートとして物質的な作品が制作・設置されていたが、現在では人のつながりを組織したり、イベントを仕組んだりといったアートプロジェクトが主役となりつつある。このことは、モノを作るといった従来のアートがコトとしてのアートへ変化しているの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ここには、1990年代世界を席卷したリレーショナルアートの影響をみることができる（Bourriaud、2002）。

第4に、このようなアートプロジェクトがサイトスペシフィックな取り組みとして展開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現在世界はグローバリズムに飲み込まれつつあり、このような潮流にあらがうようにして地域や場の固有性にこだわるアートが評価されている。「場」とは、そこに先人達の営為の蓄積により固有の意味や価値、愛着が込められており、その固有性は「ゲニウスロキ」と呼ばれることもある（Norberg-Schulz、1979）。

人口減少のため日本では数多くの廃校などが生じており、それらの未利用施設の有効活用に地域の期待が集まっている。ここで紹介した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でも必ず廃校などの未利用施設が活用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地域の空きスペースをアートの場として活用することで地域の活性化を目指す試みは、東京の3331アーツチョダ、横浜の黄金町、名古屋の長者町、など数多い（野田、2014）。

V. 結論

このような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の成果はどのような指標によって評価されるべきだろうか。伝統的価値観にもとづけば、作品の質が問われる。しかしすでに述べたように現代アートは、モノの制作からコトの生産へと転換しており、伝統的美意識に基づく「作品の質」といった尺度はその重要性を失いつつ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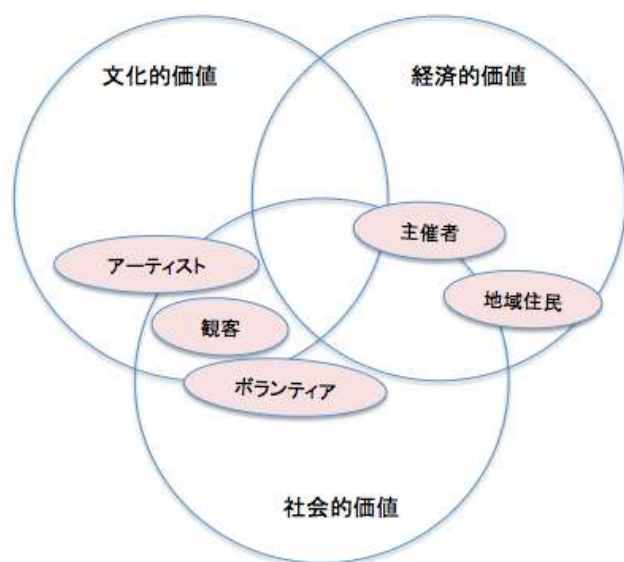
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のスポンサーである自治体や開催地域にとってみれば、観光客の増加や地域のイメージアップを通じた地域への経済効果が重要な指標となる。この点では、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も瀬戸内国際芸術祭も十分な成果をあげているということが出来る。しかし、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は地域経済振興のために開催されるのであろうか。アートのイベントはスポーツや伝統的な祭と差はないのだろうか。

ここで、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のステークホルダーを、主催者（自治体など）、アーティスト、ボランティア、観客、地域住民、の5つに分けるか。さらに、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の評価指標として文化的価値、経済的価値、社会的価値の3つを設定し、これをステークホルダーにとってどの価値が重要かを図式化したのが図-11である。

アーティストにとっては、文化的価値が重要なのはもちろんであるが、現代アートは近年地域への志向が強まる傾向を示しており、社会的価値への傾斜が見られる。

主催者や地域住民は、文化的価値よりも経済的価値への志向が強いと考えられる。

観客やボランティアは文化的価値を基軸に置いているが、ボランティアは最初から地域社会への参加を志向する傾向も強い。



(図-11)

ここで注目したいのが、ボランティアの存在である。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2013で964人、瀬戸内国際芸術祭2013で1,300人（いずれも実働人数）が参加している。このうち瀬戸内国際芸術祭のボランティアは、全体の約7割が女性で、平均年齢は30.3歳となっている（瀬戸内国際芸術祭実行委員会、2012）¹¹⁾。

このように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に関わるボランティア（多くが若者）は、地域間の流動性を高める効果があり、このことがとりわけ衰退する地方にとっては地域再生のきっかけを生み出す契機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11) 瀬戸内国際芸術祭2013総括報告では、ボランティアこえび隊参加者に関する属性分析はされていないため、これは瀬戸内国際芸術祭2010におけるデータである。

【参考文献】

- 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実行委員会 (2014) 「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2013開催報告書」
- 瀬戸内国際芸術祭実行委員会 (2012) 「瀬戸内国際芸術祭2010総括報告」
- 瀬戸内国際芸術祭実行委員会 (2013) 「瀬戸内国際芸術祭2013総括報告」
- 野田邦弘 (2008) 『創造都市横浜の戦略 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への挑戦』学芸出版社
- 野田邦弘 (2014) 『文化政策の展開へアーツ・マネジメントと創造都市』学芸出版社
- 吉本光宏 (2014) 「トリエンナーレの時代——国際芸術祭は何を問いかけているのか」ニッセイ基礎研レホ。→ 2014-03-31
- Bourriaud, Nicolas(2002) *Relational Aesthetics*
- Bell,Daniel(1973)*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 Drucker,Peter(1993) *Post-Capitalist Society*
- Norberg-Schulz,Christian (1979)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 Machlup, Fritz(1962)*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 Toffler, Alvin(1980)*Third Wave*
- Toffler, Alvin(1990) *Powershift: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the 21st Century*

일본 비엔날레·트리엔날레의 부흥과 그 의의

노다 구니히로

돗토리대학교 지역학과 교수

요약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는 비엔날레, 트리엔날레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예술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국제미술전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문화진흥 목적과 함께 지역활성화(지역재생)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 배경으로는 일본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한 창조도시정책의 적극적 시행을 들 수 있다. 또한 예술 그 자체의 변용 및 예술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관한 새로운 관계구축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2013과 세토우치(瀬戸内) 국제예술제 2013의 사례를 소개하여 비엔날레·트리엔날레가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키워드

아트페스티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창조도시, 지역재생, 지역지향

I. 일본 창조도시정책의 발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중심사회에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다. 프리츠 마흐럽은 그의 연구에서 20세기 미국의 노동인구가 육체노동에서 지식노동으로 크게 전환되었음을 풍부한 데이터로 보여 주었다(Machlup, 1962). 다니엘 벨은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옮겨짐에 따라 ‘이론적 지식’이 사회의 중추적인 원칙이 되고, 지식계급(전문직·기술직 계층)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Bell, 1973). 앨빈 토플러는 제1의 물결(농업혁명), 제2의 물결(산업혁명)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정보혁명을 예언하였다(Toffler, 1980). 또, 그 후에 펴낸 ‘권력 이동’에서는 경제력의 부수적 요소였던 지식이 그 자체가 본질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Toffler, 1990).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경제에 있어서 지식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경영자원이다’라고 지식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Drucker, 1993).

일본정부의 지식기반사회에의 대응은 과학기술 진흥책으로서 1990년에 시작되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 개발의 예산배분을 증가시킨다. 1996년부터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시행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과학기술 진흥은 지적재산 전략으로 발전한다. 2002년 지적 재산전략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3년에는 ‘지적재산기본법’을 시행하여 내각에 지적재산전

락본부를 설치하였다. 2004년에는 ‘컨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이후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서는 컨텐츠산업의 진흥에 힘을 쏟는다.

이와 같이 일본의 지식기반사회에의 대응책은 과학기술진흥에서 지적재산전략으로 변모, 발전하여 왔고, 2007년부터는 문화청(文化廳)이 ‘문화예술창조도시’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문화청에 의하면 ‘문화예술창조도시’란 ‘문화예술이 가지는 창조성을 지역진흥, 관광·산업진흥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지역의 과제해결에 힘을 쏟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청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주력사업으로는 문화청장관 표창(문화예술창조도시부문, 2007년~), 국내 네트워크의 구축(2009년~), 문화예술창조도시 모델구축(2010년~2011년), 지역발·문화예술창조발신(地域發·文化芸術創造發信) 이니셔티브 사업(2012년~)이 있다.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예술문화의 진흥을 과제로 활동하여 온 문화청이 사업분야를 확대하여 예술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주력하게 된다. 이것의 배경으로는 1990년대 이후 가나자와시(金澤市)와 요코하마시(横浜市) 등 각지에서 창조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을 들 수 있다(노다(野田), 2008). 창조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의 도시와 문화청은 2013년 CCNJ(창조도시 네트워크 일본)를 설립하였다. 현재 32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2개의 민간단체가 가입하여 요코하마시(대표간사도시), 고베시(神戸市), 가나자와시, 사사야마시(篠山市), 쓰루오카시(鶴岡市)가 제1기 간사도시로 선발되었다. 2014년에 시작된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창조도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표-1)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맹도시

가맹연도	도시명	분야
2008년	고베(神戸)	디자인
2008년	나고야(名古屋)	디자인
2009년	가나자와(金沢)	공예와 민중예술
2013년	삿포로(札幌)	미디어아트

II. 일본 아트페스티벌~아이치 트리엔날레

일본 창조도시를 상징하는 문화사업이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의 아트페스티벌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수많은 아트페스티벌이 생겨났다. 세계 아트페스티벌의 역사를 돌아보면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가장 오래되었다(1895년~). 그 후 도쿄멘타(1955년~), 윈스터(1977년~) 등 20세기 후반부터 유럽 각지에서 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다. 아시아에서는 광주 비엔날레(1995년~), 상하이 비엔날레(1996년~), 타이페이 비엔날레(1998년~¹⁾), 부산 비엔날레(1998년

1) 국내전으로서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2)), 베이징 비엔날레(2002년~), 싱가포르 비엔날레(2006년~) 등 1990년대 이후로 많은 비엔날레, 트리엔날레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아트페스티벌은 1952년에 시작된 일본국제미술전(도쿄 비엔날레)이다(아시아 최초). 이 국제미술전은 1970년에 나카하라 유스케(中原佑介) 커미셔너의 지휘 아래 ‘인간과 물질’전으로 개최되었다. 물질과 아르테 포베라, 컨셉츄얼리즘(Conceptualism)의 전위적인 작품은 세계적 수준의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관객들로부터 혹평을 받아 전시회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후 일본국제미술전은 중지되었다(요시모토 미쓰히로(吉本光宏), 2014).

그 후 2000년대에 들어 아트페스티벌이 부활하는데 그 시작은 2000년에 니가타현(新潟縣) 도카마치시(十日町市)와 쓰난마치(津南町)의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대지의 예술제(에치고쓰마리(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에도 트리엔날레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일컬어졌다. 이후 고베 비엔날레와 기타큐슈(北九州) 국제비엔날레(2007년~), 혼욕(混浴)온천세계(벳푸(別府))와 개항도시 니가타 물과 흙의 예술제(2009년~)가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와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시작되었다. 올해부터는 삿포로 국제예술제가 새롭게 시작된다. 행사의 규모, 국제성 작품의 질로 판단할 때 대지의 예술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이상 네 개가 대표적인 아트페스티벌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네 개의 아트페스티벌을 비교해 보겠다. 개최장소 면에서는 대지의 예술제와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비도시부 지역에서(산골 마을과 낙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대도시지역에서 개최된다. 개최 주체는 대지의 예술제가 디렉터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후쿠타케(福武)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에 의해 주도된다.³⁾ 이 두 개의 아트페스티벌은 모두 기타가와 후라무(北川フラム)의 큐레이션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요코하마시와 아이치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페스티벌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 (표-2)이다.

(표-2) 주요 트리엔날레

개최연도	명칭	개최장소	개최지 타입
2000년	대지의 예술제	니가타현 쓰마리지구	산간부
2001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요코하마시	도시부
2010년	아이치 트리엔날레	나고야시, 아이치현내 자치단체	도시부
2010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세토우치해 동부의 낙도 등	낙도

가장 최근에 개최되었던 아이치 트리엔날레2013의 개최개요와 개최결과를 살펴 보겠다(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 2014).

2) 국내전으로서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3) 가가와현과 다카마츠시라는 그 지방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나, 처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후쿠타케재단이다.

【테마】 흔들리는 대지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장소, 기억, 그리고 부활

Awakening - Where Are We Standing? - Earth, Memory and Resurrection

【예술감독】 이가라시 다로(五十嵐太郎) (도호쿠대학(東北大學)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 도시·건축학)

【기간】 2013년 8월10일 ~ 10월27일(79일간)

【개최장소】 ■나고야지구(아이치 예술문화센터, 나고야미술관, 초자마치회장(長者町會場) 등)

■오카자키(岡崎)지구(히가시오카자키역회장(東岡崎驛會場), 고세회장(康生會場), 마쓰모토초회장(松本町會場))

【참가 아티스트】 ■미술 76명의 개인·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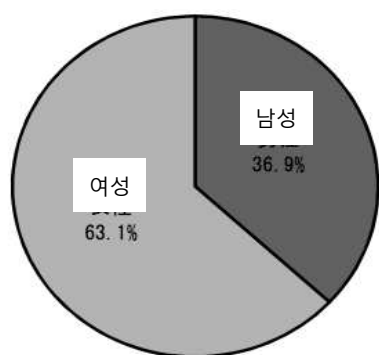
■무대예술 15개 단체

【자원봉사자수】 964명 (실가동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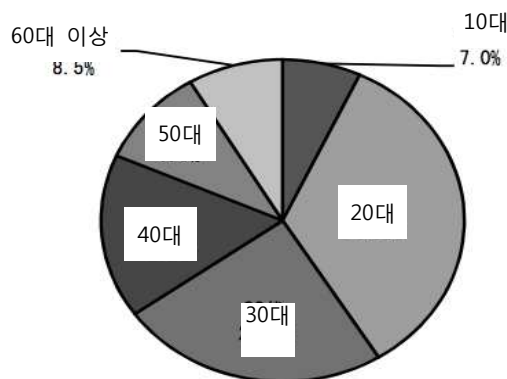
【총관객수】 626,842명

【예산】 1,258,000,000엔 (3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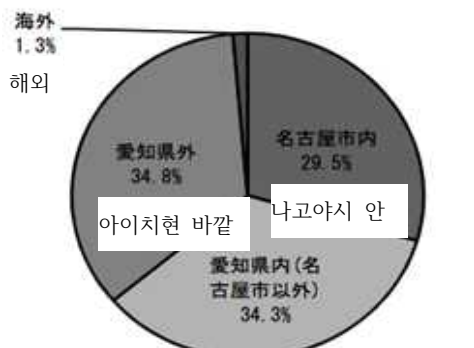
관람객 구성을 보면, 성비에서는 여성이 63%(도표-1), 연령층에서는 30대 이하가 65%(도표-2)이며, 지역 면에서는 아이치현 바깥에서 35%, 해외에서의 방문객이 1.3%(도표-3)를 차지하고 있다.4) 일본의 이러한 종류의 행사는 관람객의 60%가 젊은 여성이며 아이치 트리엔날레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관람객의 63.8%가 아이치현 내에서 왔다.



(도표-1)



(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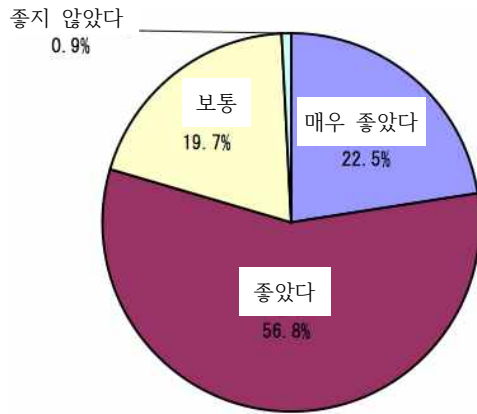


아이치현 안(나고야시를 제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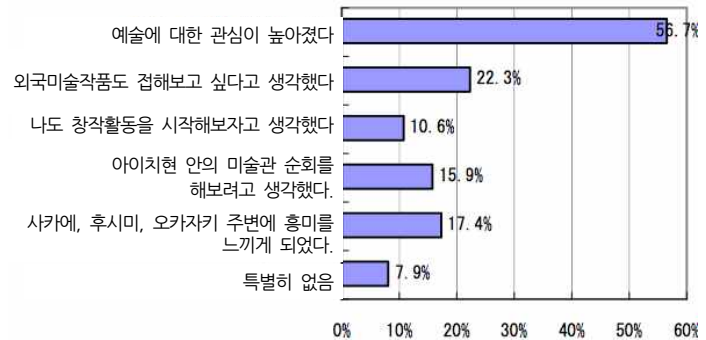
(도표-3)

4) 미술전 관람객 6,673명의 답변에 의한 집계.

관람객의 감상(미술작품에 한정)을 보면 8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도표-4). 미술관 밖에서의 전시와 극장에서의 무대예술공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79%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도표-4). 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도표-5).



(도표-4)



(도표-5)

전체 사업경비는 3년간 약 12억6천만 엔이다. 이에 비해 아이치현 내의 경제효과(관람객의 식사, 쇼핑, 교통비, 숙박비 등)는 28억5천만엔으로 산출되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는 미술관에서의 전시 외에 초자마치라는 섬유 도매상가의 공터를 이용한 전시를 지역주민과 함께 행하고 있다(그 외에 아이치현 오카자키시에서도 거리에서 작품전시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트리엔날레가 단순히 예술제에 그치지 않고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을 목표로 하였음을 보여준다.⁵⁾

III. 일본의 아트페스티벌~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

세토우치 국제예술제2013은 세토우치해의 낙도를 행사장소로 하여 민간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대도시 나고야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주도로 실시되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와는 차별화된다.⁶⁾ 행사의 개요와 개최결과는 다음과 같다(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 2014).

【명칭】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 ‘예술과 섬을 아우르는 세토우치해의 사계’

SETOUCHI TRIENNALE 2013

【테마】 바다의 복원

5)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고가네초(黄金町)의 재생도 같은 사례이다.

6)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개최에 앞서 예술제 장소가 된 나오시마(直島)에서 20년에 걸쳐 예술의 섬 만들기 힘써 온 것이 후쿠타케재단과 베넷세 코퍼레이션(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이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총괄프로듀서】 후쿠타케 이치로(福武總一郎) (공익재단법인 후쿠타케재단 이사장)

【총괄디렉터】 기타가와 후라무(北川フラム)

【기간】 (봄) 3월20일 ~ 4월21일

(여름)7월20일 ~ 9월1일

(가을)10월5일 ~ 11월4일 총 108일간

【개최장소】 나오시마(直島), 데시마(豊島), 메기시마(女木島), 오기시마(男木島), 쇼도시마(小豆島), 오시마(大島), 이누지마(犬島), 사미지마(沙弥島), 혼지마(本島), 다카미지마(高見島), 아와시마(粟島), 이부키지마(伊吹島), 다카마쓰항(高松港)주변, 우노항(宇野港)주변

【참가 아티스트】 200명의 개인·단체

【총관람객수】 1,070,368명⁷⁾

【자원봉사자수】 자원봉사자조직 '고에비타이(こえび隊: 고에비는 새우를 뜻함)'는 실가동인원수 약 1,300명, 연인원 약 7,000명

(작품접수: 약 3,600명, 작품제작: 약 2,800명, 이벤트: 약 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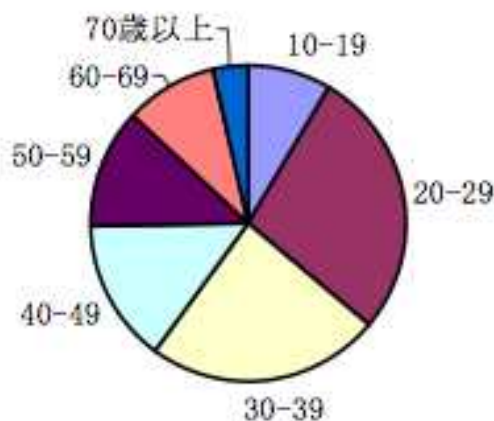
47개 토도후켄(都道府縣: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 1都1道2府43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 36개의 토도후켄으로부터 참가자가 있었고, 해외에서 온 참가자도 있었다.

【예산】 1,015,000,000 엔(3개년)

관람객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67.5%(도표-6), 연령층은 60.1%가 30대 이하인데(도표-7), 이것은 아이치 트리엔날레와 같은 경향이다. 가가와현(香川縣) 외부에서 온 관람객이 61.3%(도표-8)인데, 인구가 적은 낙도지역에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점이 대도시에서 개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와는 대조적이다,⁸⁾



(図 - 6)



(図 - 7)

7) 각각의 섬의 관람객수를 합계한 수치.

8) 개최기간 중 51일간 조사를 실시. 그 기간 동안의 관람객 521,098명 중 17,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Q 2013예술제가 끝난 현재 예술제는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은 도움이 되었다.	33.9%
2.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	42.5%
3.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9.1%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9%
5. 어느쪽도 아니다.	8.6%
답변수	2,312명

(도표 - 10)

관람객의 94.0%가 ‘매우 좋다’ ‘그런대로 좋다’라고 예술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도표-9). 개최지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도 실시되었는데, ‘예술제를 치른 것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라는 대답이 76.4%를 차지하여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15%를 크게 상회하였다(도표-10).⁹⁾

총사업비는 3년간 10억1,500만엔이고, 1억6천만엔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또, 132억엔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¹⁰⁾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지금까지 관광객이 별로 오지 않았던 낙도지역에서 개최되으나, 세토우치해의 온화한 기후와 개최지가 된 섬들의 아름다운 경치 덕택에 이 지역에는 개최기간 중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효과가 발생하였고 지역 이미지가 대폭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산업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투기되어 주민운동이 일어났던 데시마에 아티스트 나이토 레(内藤礼)와 건축가 니시자와 류우에의 구상·설계로 건설된 데시마미술관(2010년)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연중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산업폐기물의 섬이라는 이미지에서 예술의 섬으로 바뀐 것이다.

9) 예술제 종료 후 개최 장소였던 섬의 주민들(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384명의 답변)결과를 기초로 함.

10) 2005년도 산업연관표(일본 총무성)과 2005년도 가가와현 산업연관표(가가와현)를 이용하여 추산한 가가와현 내의 경제파급효과.

IV. 아트페스티벌 부흥의 배경과 특징

아이치 트리엔날레2013 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2013에 대하여 주최자들은 많은 관람객, 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 지역경제에의 공헌, 지역 이미지 개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등의 면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대지의 예술제와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 대해서도 주최측으로부터 비슷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일본의 아트페스티벌은 순조롭게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늦게 시작된 만큼 일본의 아트페스티벌은 직면한 현대의 과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지역재생이라는 테마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트페스티벌은 모두 문화진흥과 개최지역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일본의 지역 재생을 목표로 하는 아트페스티벌을 ‘지역지향형 아트페스티벌’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현재 일본에서 왜 이러한 지역지향형 아트페스티벌이 붐을 이루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 보려 한다.

첫째, 문화정책의 변화이다. 오랜 기간 문화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문화진흥’ 자체를 과제로 삼은 시설건설과 운영, 사업개최, 인재육성 등이었다. 그러나 이미 서술했듯이 21세기 들어 문화정책이 문화진흥형에서 창조도시형으로 전환되면서, 문화진흥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도 정책의 목적이 되었다.

둘째, 지역사회의 쇠퇴에 대한 대응이다. 근래 일본에서는 대도시권 이외의 지방이 쇠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일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은 1.41(2013년)로 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가 동시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이 계속되어 지방의 피폐화가 빨라지고 있다. 시장이 이미 성숙화 되어 탈공업화 단계로 접어든 일본 내에서 제조업 유치와 같은 종래의 지역경제정책은 유효성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 거주 예술가(artist-in-residence)와 같은 아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예술의 변모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설하였는데, 젊은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이러한 보조금을 받으며 각지를 돌아다니는 활동 스타일이 정착되고 있다. 예전에는 공공 예술로서 물질적인 작품이 제작·설치되었다면, 지금은 모임의 조직이나 이벤트 기획이 아트 프로젝트의 주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물건을 만든다는 개념의 예술이 일로서의 예술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를 풍미했던 관계예술의 영향을 받은 듯 하다(Bourriaud, 2002).

넷째, 이러한 아트 프로젝트가 장소 특정적(site specific)인 시도로서 이루어진 점이다. 현재 세계는 글로벌리즘에 사로잡혀 있으나, 이러한 조류에 항거하듯 지역과 장소의 고유성을 표현해 내는 예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소’에는 선인들이 영위하고 축적한 고유의 의미와 가치, 애착이 담겨 있는데, 그 고유성은 ‘장소의 혼(genius loci)’으로 불리기도 한다(Norberg-Schulz,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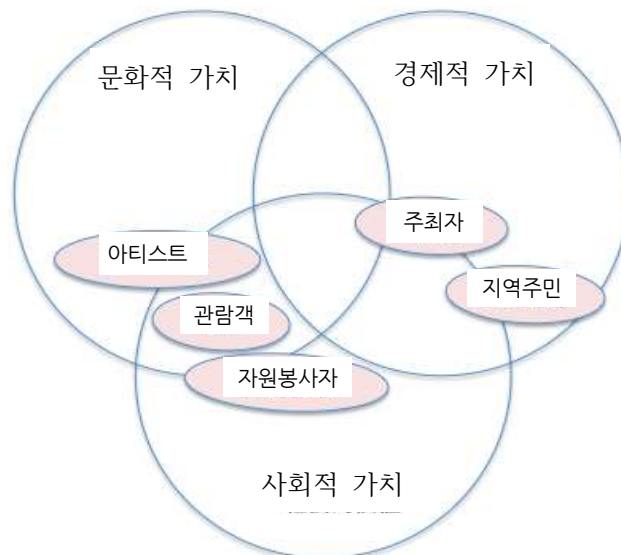
인구감소로 인해 일본의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고, 이와 같은 버려진 시설의 가치 있는 이용에 지역사회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아트페스티벌에서도 반드시 폐시설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의 버려진 공간을 예술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시도는 도쿄의 3331아트치요다(アーツ千代田3331), 요코하마의 고가네초(黄金町), 나고야의 초자마치(長者町) 등 수없이 많다(노다(野田), 2014).

V. 결론

아트페스티벌의 성과는 어떤 지표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전통적 가치관에 의하면 작품의 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현대 예술은 물건의 제작에서 일의 창출로 변모하여 전통적 미의식에 기반한 ‘작품의 질’이라는 척도는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아트페스티벌의 스폰서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제 효과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와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모두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트페스티벌이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 개최되는 것일까. 예술 이벤트는 스포츠나 전통 축제와는 다르지 않을까.

아트페스티벌의 이해관계자를 주최자(지방자치단체 등), 아티스트, 자원봉사자, 관람객, 지역주민의 다섯으로 나누고, 아트페스티벌의 평가지표로는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를 도식화 한 것이 도표-11이다.



(도표-11)

아티스트에게는 역시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회적 가치 쪽으로 치우쳐 있어 현대 예술의 지역지향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최자와 지역주민은 문화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관람객과 자원봉사자는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나,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자의 존재이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3에 964명, 세토우치 국제예술제2013에 1,300명(양쪽 모두 실가동인원)이 참여하였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자원봉사자는 전체의 70%가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30.3세이다(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 2012).¹¹⁾

자원봉사자(대부분은 젊은이들)의 아트페스티벌 참여는 지역간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특히 쇠퇴하는 지방에 있어서는 지역재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1) 세토우치 국제예술제2013 총괄보고에는 자원봉사자 모임 고에비타이(こえび隊)에 관한 분석이 없고, 이것은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0의 데이터이다.

【참고문헌】

-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 (2014)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3 개최보고서’
-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 (2012)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0 총괄보고’
-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 (2013)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 총괄보고’
- 노다 구니히로(野田邦弘) (2008)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전략 크리에이티브 시티에의 도전’ 學芸出版社
- 노다 구니히로(野田邦弘) (2014) ‘문화정책의 전개 ~ 아트 매니지먼트와 창조도시’ 學芸出版社
- 요시모토 미쓰히로(吉本光宏) (2014) ‘트리엔날레의 시대 - 국제예술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ニッセイ基礎研 Report 2014년 3월31일
- Bourriaud, Nicolas(2002)*Relational Aesthetics*
- Bell,Daniel(1973)*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 Drucker,Peter(1993)*Post-Capitalist Society*
- Norberg-Schulz,Christian (1979)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 Machlup, Fritz(1962)*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 Toffler, Alvin(1980)*Third Wave*
- Toffler, Alvin(1990)*Powershift: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the 21st Century*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다시 시작하기

차재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비엔날레 혹은 트리엔날레로 지칭되는 국제미술행사의 유행과 탄생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그것이 흥미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지난한 이야기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발제자가 적시한 적어도 일본에서의 아트 페스티벌 부흥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정리는 일본만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신흥 열성국가들이 가진 어느 정도 공유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수치를 인용한 발제내용은 노다 교수가 지적한대로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지방정부나 주최 측으로선 유익할 것 같다. 우선 토론자에게 주어진 지면이나 담론의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거두절미 직설하겠다. 이해를 구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믿을 수 있을까.

트리엔날레가 3년에 한번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2013아이치트리엔날레의 개최 예산은 결국 12억 6천만 엔 그러니까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원화 140억 원이 넘는 예산이며, 2013세토우치국제예술제의 경우에도 우리 돈 110억 원이 투입되었다. 국제교류를 위해 매년 수없이 일본의 여러 지역을 왕래하는 토론자의 인지 범위 내에서 일본의 트리엔날레 중 순익을 가져온 것은 2013세토우치국제예술제가 유일하며, 여기엔 후쿠다케 이치로가 가진 영향력과 여러 형태의 후원과 지원에 근거한 결과로 보이지만, 그 같은 성과를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아마도 전 세계 국제미술제가 이 점 하나만큼은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비엔날레 사례를 들여 다 보면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180만 관객이 몰려 7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자화자찬 했지만 과연 몇 사람이 이를 신뢰할까 의문이며, 솔직히 한국에서 순익을 가져온 비엔날레는 전무하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손익계산서 상 이익이 없을 경우, 개최한 주체가 습관처럼 내어 놓는 것은 상당한 용역비용, 길든 학자들의 예정된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이다.

2013아이치트리엔날레의 경우 300억 원, 2013년 세토우치국제예술제는 17억 원의 순이익 외에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례는 차치하고 한국의 대표적 두 비엔날레를 통해 경제적 효과의 허구를 간접적으로 관찰해 보자. 2012광주비엔날레는 109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치러졌지만 입장료 수입은 12억 원에 그쳤으며, 2012년 부산비엔날레의 경우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입장료 수입은 9억 원을 약간 넘었다. 후하게 잡아야 30% 내외되는 권역 외 관람객이 사용하는 교통비의 80%는 해당지역 경제적 효과와는 상관없는 지출이며, 과연

그들이 지갑을 열어 광주나 부산지역에서 소비하는 화폐의 총액이 얼마나 될까. 도시 브랜드 가치 또한 동의가 쉽지 않다.

도시재생과 국제미술제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사사키 마사유키, 루이스 면포드 등의 석학들이 저마다의 창조도시론을 주창했지만 그들의 이론은 아직도 수정 중이며, 명징한 현상과 사례 또한 충분하지 않다. 오늘 날 나름대로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도시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시민 혹은 지역민이 그것으로 인해 ‘과연 행복 한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석학들과 창조의 주체들이 함께 놓치고 있던 문제이나, 소수의 현장 활동가들이 이를 예측하거나 위험성을 감지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거대한 추동력에 대항할 힘이 없었으며, 제기된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우려와 예측은 현실이 되어 세계의 창조도시들이 가진 공통의 숙제가 되어 버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제자가 논거 한 도시재생(이하, 토론자는 지역재생으로 지칭하겠음)의 한 방편으로서의 국제미술제에 대해 언급한다. 아이치와 세토우치 모두 지역재생으로서의 국제미술제가 가진 역할과 기능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사상 가장 오래되고 성공했다고 인식되는 베니스비엔날레가 그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했는가? 당연히 아니다. 도시는 그대로 있고 비엔날레는 그 도시를 배경으로 했을 뿐이다. 아이치와 세토우치가 트리엔날레 지역재생 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광주와 부산이 비엔날레로 인한 도시재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가.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없다. 토론자의 언급이 다분히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한 편협한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토론자는 앞서 언급한 창조도시론 석학들의 이론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창조도시나 지역재생 모두 시민(지역민)이 먼저 문화적으로 재생되고, 그러한 구동축위에 지역재생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신념이다. 이 관점에서 적어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 참여한 영리를 목적하지 않은 - 극히 일부이지만 - 세토내해 지역의 자원봉사자 그룹을 주목하고 싶다. 노다 교수 또한 결론에서 자원봉사자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수의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이 트리엔날레를 통해 먼저 문화적으로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와 생각들이 지역사회에 의해 공유되고 확장된다면 발제자가 언급한 국제미술제를 통한 지역재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지역민은 이를 통한 행복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답답하다. 2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한 순간 왔다가 잠시 꿈꾸다 잠을 깨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 보인다. 밀물과 썰물처럼.

지금까지 기술한 토론내용은 발제내용에 국한해서 언급했다. 토론문은 균형보다는 문제제기를 통한 긴장을 택했으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었다. 의문과 반론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비공식 석상에서의 회자들이 공식적인 언어로 표시되었음을 이해 바란다. 발제문과는 별도로 - 간접적으로 상관있겠지만 - 몇 가지 부연한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스펙

토론자는 지난 해 지인인 Bank Art 이케다 오사무 대표의 초청으로 2013세토우치국제예술제를 다녀왔다. 한국과 일본의 작가, 레지던시 운영자, 큐레이터, 문화기획자들이 전세로 빌린 선박을 이용해 3일간 세토우치 예술 섬들을 돌아 볼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지역특성과 장소성에 더해진 상상력, 느림의 미학적 운영, 열정적이고 침착했던 자원봉사자 활동 등 본 받을 점이 많았다. 하지만 줄곧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세토우치국제예술제 형태의 아트페스티벌을 한국에서 연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차피 국제미술제가 정해진 주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때로는 변주하면서 관객의 인내와 피로를 수반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어느 나라 어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라도 이를 벗어나는 일은 많지 않다. 반나절을 들여 입장한 지중미술관과 비슷한 시간을 요구하는 다른 베네세 공간들이 가진 콘텐츠들은 다분히 도시에 있어 좋을 것들이지 천혜의 자연에는 한 수 아래의 현대미술 작품으로 보였으며, 인내를 마다하지 않는 트리엔날레 매니아들의 스펙 욕구를 겨냥한 고도의 예술 마케팅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느림의 미학을 도입한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운영시스템은 전시 작품에 대한 경외감과 감상적 도취는 잠시, 통제와 간섭, 오랜 기다림과 까다로운 관람규칙 등으로 인해 때로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했다. 3일간 계속된 탐색과 이동, 기다림과 관람은 전시작품의 경외와 도취에 이르는 데에 장애가 분명했다. 가학적 관람을 통해 경외와 도취를 지나고 다시금 그러한 가학적 행위의 인질이 되어 3년을 기다리게 하는 상술은 아닐까.

2013세토우치국제예술제를 그대로 한국에서 개최한다면 아마도 크고 작은 사고와 항의로 운영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고, 언론과 지역사회의 엄청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평론가 반이정이 인용한 재일 조선인 학자 서경식의 “작곡가 바그너가 단조로운 ‘파르지팔’이야기를 5시간이 소요되는 작품으로 만든 것은 제 정신이 아니다. 이 같은 지루한 작품구성이 끝내 감동으로 이어지는 역설은 장시간에 걸친 감상의 피로와 감각의 마비가 관객의 감성에 도취감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이는 낭만주의 미학에 가려진 독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조장하는 정치적 감동과 연결된다”는 우려가 2013세토우치국제예술제의 이미지위에 명확한 징후로 겹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지역과의 간극

숫자적으로 볼 때 한국이 비엔날레, 일본이 트리엔날레 강국이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다. 민간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성장하였다면 작금 양국의 국제미술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정치적인 목적과 홍보수단으로 인식되어 지자체 주도로 엄청난 시민혈세와 중앙정부의 나눠주기(한국의 경우)예산, 전시기획자들이 결합한 속도주의 틀 안에서 속성으로 발전한 반증이다. 기이한 것은 세계의 그것들보다 주제에 몰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아마도 깊이 내

리지 못한 뿌리에 대한 망상적 포장일지도 모를 일이다.

미술이 가진 서사적 미학은 사회과학적 인문성과 철학적 가치에 주제를 내 주었다. 공유나 이해 되기 어려운 선문답 같은 주제는 어안이 병병한 관람객의 당황한 모습을 재촉하고, 작가와 관람객 그러니까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간극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전시감독의 생각이던 조직위의 의사이던 간에 제시된 주제들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는 진부한 것들이라는 것에 있다.

비엔날레가 가진 오래된 병폐중의 하나는 전시감독의 문제이다. 광주와 부산, 두 비엔날레가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정당한 패이를 지불하고 고용되는 전시기획자가 시비의 정점에 자리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역할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행사의 성패를 떠나 국제미술제 뒤에 남는 것은 전시감독에 의해 선택된 작가들과의 매우 강하고 끈끈한 인적관계이다. 그 후로도 오래 동안 지속되는데, 이는 건강한 인적 네트워크 보다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시기획자는 대부분 전시분야 권력자로 남으며, 이를 따르는 작가들은 기획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경력과 지명도를 지속적으로 탐하게 된다. 결국 국제예술제를 따라 표류하는 전시감독들과 작가들이 여과 없이 난립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적어도 한국에 있어 비엔날레는 문화행동과 담론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시와 더불어 마련되는 부대행사들은 대중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국제화, 참여와 감상, 주제 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고 때로는 현장 전환을 동반한다. 논쟁의 성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지순한 정의 또한 없다. 중요한 것은 쟁점이 되는 이 키워드들의 경계의 지평을 넓혀 주는 것이 장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믿는다. 그것이 간극을 줄이는 유일한 지혜일 수 있다.

맺으며

한, 일 양국의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는 해당지역의 문화예산 중 매우 엄중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집행된다. 2012광주비엔날레에 소요된 109억 원은 2012년 광주 지역 전체 예술계를 지원하는 지역협력 형 사업예산 13억 원의 8배가 넘으며, 2012부산비엔날레에 투입된 40억 원은 같은 해 부산의 예술계 전체를 지원하는 지역협력 형 사업예산 20억 원의 2배에 이른다. 아마도 예술계를 지역예술계에 대한 지원제도가 제한적이고 예술인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는 일본의 경우는 그 차이가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이 지점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은 중차대하다. 흔한 말로 지원예산의 차이는 현상을 인식하는 간극의 척도이다. 과연 국제미술제가 그만한 사업비를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이제는 거품 배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재생, 지역예술진흥을 위해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임을 가정한다면 이제 솔직해져야 하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토론자는 발제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보다는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동의의 관점은 차치했고, 적어도 균형적 시각과 쟁점이 부딪히는 경계를 확보하고 싶었다. 그 것에서부터 비엔날레, 트리엔날레가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소중한 발제를 해 주신 노다 교수에게 감사하며 무례가 있었다면 깊은 이해 바란다.

泉州的地域性文化与民间工艺美术

蔡文雄

泉州市工藝美術協會 常務副秘書長

東亞文化之都——泉州的文化資源豐富，底蘊深厚，形態多樣，是多元文化交匯融合的結晶。在長期的歷史發展過程中，泉州本土文化與中原文化，海洋文化，宗教文化和僑鄉文化相互碰撞融合，行成了底蘊深厚，多彩多姿的閩南文化生態圈。

1. 泉州人文基础深厚

泉州屬中國東南部沿海地區，其地勢十之有九為山地丘陵，地形複雜，交通不便，使得其文化保留着較濃厚的地域特征。特別是東晉以後，大批衣冠士族進入泉州地域，大大提高了這一地域的社會文明程度，歷朝歷代入閩為官者也大多是文化人，他們比較重視文化教育。至唐朝，各地開始廣建孔廟，設立州縣學堂，將中原文化與當地原住民俗文​​化漸漸融合在一起，創造了獨特的地域文化，清代及近代又有大批出走海外謀生的僑民，與海外僑民互動形成了中西合璧的僑鄉文化。

泉州是海上絲綢之路的起點，海外交通帶來的古代波斯、阿拉伯、印度和東南亞諸種文化，形成了獨特的異彩紛呈的多元文化現象，使泉州贏得了“海濱鄒魯”、“世界宗教博物館”的美譽。泉州多元文化融合其實是一種文化混合，混合可以產生一種新的文化。文化混合帶來多樣性、另類性、新鮮性和豐富性。泉州的兼容文化品格，走的是一條世俗的、倫理式的文化之路。

泉州是閩南文化的主要發源地和核心區，長期以來伴隨着多元文化的融合發展，已形成了區域性獨特又豐富多姿閩南文化圈。

2. 泉州品牌文化丰富

泉州是國務院首批公布的24個歷史文化名城之一。留存了以南戲、南音、南少林、南建築和南派工藝等為代表的文化遺產和大量珍貴的中外歷史文化瑰寶。現有重點文物保護單位802多處，其中國家級31處，省級85處。泉州還是品牌之都，擁有的中國馳名商標和中國名牌，僅次於北京、上海，排名中國城市第三。眾多的城市文化品牌和資源是新的歷史條件下發展文化產業的良好基礎。

3. 泉州實體經濟發達

泉州連續十五年實現地區生產總值位列全省第一。經濟社會的發展進步，人均可支配收入的穩定增加，直接拉動了城鄉居民的文化消費需求，也為泉州文化產業發展奠定了堅實的物質基礎和提供了源源不斷的后勁支撐。2013年全市文化產業增加值269億元，同比增長21%，年均增幅20%以上。

文化積淀深厚、品牌文化豐富、實體經濟發達是泉州文化產業發展極為有利的基礎和條件。

4. 泉州文化改革發展

文化產業加快向市場化、產業化經營轉變，文化產業結構日趨合理，產業主體不斷壯大，逐步形成了以傳統文化工業（主要是工藝品制造業等）為龍頭，新興文化產業競相發展的格局。2013年全市有文化產業單位數8779家，同比增長13.7%；文化產業從業人員58.6萬人，同比增長9.7%，文化產業單位大幅增加，就業吸納作用持續增強。

5. 泉州工藝美術產業——以泉州民間雕刻藝術為例

工藝美術屬於文化制造業，在泉州十大文化產業中占有舉足輕重的地位，海內外享有極高的盛譽。2013年全市工藝美術規模以上企業完成增加值137.82億元，同比增長34.5%。

泉州民間工藝雕刻有北方中原文化的基因，也有閩越文化、南洋文化的基因，而這些文化長期交流、互相影響和借鑒，但始終離不開對泉州當地的文化生態的依賴，是具有區域性特征的藝術類型。

根植于泉州歷史文化背景下雕刻的藝術成就，有前代藝術傳統的繼承，又有影響后世雕刻藝術的發展，自唐宋以來，閩南的民間藝術家們一直在追求一種寫意和寫實相結合的藝術風格，推崇多元文化的自由表現。泉州雕刻把南派精巧纖細的藝術特征發揮得淋漓盡致，雕刻語言傳承着中國繪畫語言，與中國南方的文學、繪畫、戲曲等都有千絲萬縷的聯系，借助于构思、意境、題材和線條造型等，體現南派藝術的婉約精美特色，其象征性、浪漫性甚為濃厚，在中國民間美術的歷史長河中綻放着耀眼的光芒。

從形式角度上說，閩南雕刻體現了雕刻者的創作意念與審美情趣。顯示了雕刻工匠高超的藝術才能。

閩南雕刻有着其特殊的多元的造型特色，它體現造型的完整性、表達裝飾性、圖形誇張性、紋樣抽象性、色彩絢麗性，所有這些都表達出一種具有南方亞熱帶色彩的中原文化遺存。

以雕藝為例，泉州的石雕、木雕、瓷雕是泉州乃至閩南優秀傳統工藝美術品種的代表，

泉州雕藝歷史悠久，在國內外享有聲譽，具有較高藝術價值。

1) 泉州的石雕

泉州出產的白花崗石和青崗石以色澤瑩潔，質地細密著名國內外。泉州地區的民房、祠宇，以至寺廟及牌樓、塔幢、亭、閣以及橋梁等，都用花崗石作為建築的基本材料。泉州石雕與建築藝術，融為一體，表現出極高的審美價值和實用價值，形成婉約的精雕細刻、纖巧靈動、繁縟精細的南派藝術風格，講究形神兼備，富有動感和氣勢。典型作品為龍柱、石獅，手法是圓、浮、透、線、沉、影等多種雕法并存。

圖片：泉州的民居建築。

圖片：泉州的廟宇建築。

圖片：洛陽橋。

圖片：北宋的瑞象岩釋迦立佛造像。

圖片：老君岩坐像。

圖片：當代石雕作品一組。

2) 泉州的木雕

木雕是泉州的傳統工藝之一。泉州的寺廟、民居雕梁畫棟。泉州木雕工藝品主要有觀音菩薩、關公像、武財神像、彌勒佛及歷史人物太白醉酒、蘇武牧羊、竹林七賢等，其工藝精湛、形象完美、玲瓏剔透。

木雕工藝品比較能反映作者審美觀和藝術技巧，也能體現作者的個性。

佛雕金身的歷史尤其悠久，木雕佛像遍布“泉南佛國”各寺院。

泉州木雕的雕刻技法有的運用高浮雕，有的施以細致的多層次鏤空雕。題材有戲曲人物、花鳥、走獸等。工藝技巧極為精細。

圖片：盧思立大師木雕。

圖片：江加走木偶雕刻。

圖片：當代木雕作品一組。

3) 泉州的瓷雕

德化窯陶瓷工藝源遠流長，形成于唐代，興盛于宋、元、明、清。德化窯出產的佛像精製、傳神，被海內外雕塑界所看重。觀音像是德化窯的常見題材之一，但德化觀音像逐步走向世俗化、美女化。

閩南古代瓷業極為發達，數量品種豐富，產品大量外銷，是著名的海上‘陶瓷之路’的源頭之一。”有學者把福建青花瓷與廣東青花瓷看成同屬於“閩粵青花瓷窯系”，宋代，德化瓷器大量銷往國外。明代，德化創燒獨特的乳白釉瓷，史稱“白建”（亦稱“建白”、“豬油白”、“象牙白”）。被譽為“中國白”。

德化窯陶瓷創作題材廣泛，有神話歷史人物、仕女、動物、花卉等。

德化瓷雕自元明以來“重于傳神寫意，重于衣紋表現”的優秀傳統，強調中國傳統的神似重于形似的創作理念，到明清時已經逐步形成自身的造型和裝飾體系，傳統意味濃厚。

一代名師何朝宗的瓷塑觀音、關公等人物造型影響極大。

4) 其他民間美術

李堯寶刻紙。（圖片）

泉州花燈（無骨花燈與料絲花燈）（圖片）

木偶頭（圖片）

永春紙織畫（圖片）

永春漆籃（圖片）

安溪藤鐵（圖片）

漆線雕（圖片）

6. 泉州文化產業發展的思考

今天的泉州民間文化不斷受到外來時代文化的影響，在這樣環境變量的影響下，我們在思考：其一，泉州民間藝術家如何繼承和發揚自己特色語言；其二，如何進一步發展，使其能追隨時代的腳步，使它兼具有當代藝術品質；其三，在經濟全球化、文化多元化的語境中，泉州文化企業如何保持自己的傳統和文化自信心；其四，政府在加快文化產業發展該如何作為。

我們現在的做法是：

1、實施“文化回歸”工程，催生培育一批實力較強、有代表性、有前瞻性，有發展前景的民營文化企業（尤其是文化工業企業）重點扶持，促進重點文化企業向龍頭企業發展。

2、集中力量打造閩南文化品牌和三大特色文化品牌：即以本土文化為特色的“五南”文化品牌；以對台文化為特色的“五緣”文化品牌；以“海絲”為龍頭的海絲文化品牌，提升泉州城市品位和城市形象，擴大閩南文化、泉州文化的影響力和吸引力。

3、以閩南民俗文化、茶文化、陶瓷文化、雕藝文化、香道文化、服裝鞋業文化等為重點，利用文化提升該產業的整體形象，以市場營造品牌，以品牌打造精品，以精品拉動產業，形成一批高附加值、多功能、多業態的文化產業集群。

4、探索建立多元融資渠道，推動文化產業基金運作，通過設立“文化產業發展基金”等方式，吸引更多社會資本參與文化產業發展，逐步建立多元化、社會化、公共化的投融資服務體系。

5、結合區域經濟與區域文化特色，合理規劃泉州文化產業發展空間布局，立足產業與城市聯動發展，發揮中心城區在文化產業發展上的示范引領，設立市級文化創意產業園區，

因地制宜，發展創意、影視、演藝、廣告、旅游休閒和傳統工藝美術等富有閩南民俗特色的多元文化圈。

6、推動文化產業與傳統優勢產業和旅游、科技、金融等產業融合發展，進一步整合區域內的各種資源，以科技創新推動文化產業發展，規劃建設以文化為核心的海西工業設計產業園區，提升制造業的文化含量和產品檔次，實現制造業與文化業的融合雙贏，促進文化工業的發展。

7、引導文化企業建立和完善知識產權管理制度，運用知識產權發展和保護自己，以知識產權創造為目標，提高文化創新能力。幫助擁有自主創新成果、核心技術、名優產品的企業在國內外申請相應的知識產權注冊，確保這些文化產品得到有效保護。

謝謝大家！

취안저우의 지역문화와 민간 공예미술

차이 원승/황웬중

취안조우시 공예미술협회 상무부비서장
취안저우 사범대학 디자인&미술학과 부학장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 취안저우는 풍부한 문화 자원과 탄탄한 기반, 다양한 형태를 지닌 다문화 집합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발전 과정 중, 취안저우의 본토 문화와 중원 문화, 해양 문화, 종교 문화, 교민 지역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탄탄한 기반과 다양한 형태를 지닌 민남 문화 생태권이 형성됐습니다.

1. 기초가 탄탄한 취안저우의 인문

중국 동남부 연안 지역에 위치한 취안저우는 90% 이상이 산지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이 복잡하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징은 취안저우의 문화에도 깊게 녹아 들어 있습니다. 동진 이후 의관사족들이 취안저우 지역에 유입되면서 사회 문명도가 크게 제고되었는데, 역대 왕조 중 복건 지역에서 관직에 오른 사람들도 대부분 문화 교육을 중시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각지에 공자묘를 짓고 주, 현 학당을 설립하면서 중원 문화와 현지 원주 민속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지역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청대와 근대에는 해외로 이주하는 교민이 폭증하여 해외 교민과 중국과 서양의 장점이 융합된 교민 지역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이었던 취안저우는 해외에서 흘러 들어온 고대 페르시아, 아랍, 인도, 동남아 문화들과 독특하고 이채로운 다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해변 문화 흥성지’, ‘광명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융합은 문화가 혼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혼합은 새로운 문화를 생성합니다. 문화의 혼합은 다양하고 색다르며 신선하고 풍부한 특성을 부여합니다. 취안저우의 수용 문화는 세속적이며 논리적인 문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취안저우는 민남 문화의 발상지이자 핵심 지역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의 융합 발전을 통해 지역적인 독특하고 다양한 민남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2. 풍부한 취안저우의 브랜드 문화

국무원이 처음으로 발표한 24개 역사 문화 도시 중 하나인 취안저우는 남극, 남음, 남소림, 남건축, 남파 공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유산과 수많은 진귀한 중외 문화 역사적 보물을 남겼습니

다. 현재 중점 문화재 보물은 802개로 국가급 31개, 성급 85개에 달합니다. 브랜드의 도시이기도 한 취안저우는 북경, 상해 다음으로 중국 유명상표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 문화 브랜드와 자원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3. 실물경제가 발달한 취안저우

취안저우는 성 전체에서 15년 연속 지역내 총생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며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농 주민의 문화 소비 욕구를 끌어올리고 취안저우 문화산업 발전에 물질적 기반 및 끊이지 않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취안저우시의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269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20% 이상에 달했습니다.

심오한 문화와 풍부한 브랜드 문화, 실물경제 발달 등은 취안저우 문화산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4. 취안저우 문화 개혁 발전

문화산업이 상업화, 산업화 경영 모델로 전환되고 구조 역시 합리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전통문화산업(주로 공예품 제조업 등)을 위시로 신흥 문화산업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취안저우시의 문화산업기관 수는 동기 대비 13.7% 증가한 8,779개, 종사자 수는 동기 대비 9.7% 증가한 58만 6,000명에 달했습니다. 문화산업 기관이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취안저우 공예미술산업 - 취안저우 민간 조각 예술

문화제조업에 속하는 공예미술은 취안저우 10대 문화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큰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2013년 규모를 갖춘 공예미술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34.5% 증가한 137억 8,2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취안저우 민간 공예 조각은 북방 중원 문화뿐만 아니라 민월 문화, 남양 문화의 한 요소로서 오랫동안 교류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취안저우 현지의 문화 생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지역적인 특징을 갖춘 예술적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취안저우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한 조각 예술은 전대 예술 전통을 계승하며 후세 조각 예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송 이래 민남의 민간 예술가들은 사의(寫意)와 사실(寫實)이

결합된 스타일을 추구하고 다양한 문화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추앙했습니다. 취안저우 조각은 남파의 정교하고 섬세한 예술적 특징을 극한까지 발휘하며 중국 회화의 ‘언어’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남방 문학, 회화, 희곡 등과 유대 관계를 맺고 구상, 예술적 경지, 소재, 선의 이미지 등을 빌려 남파 예술의 완곡하고 함축적인 정교한 미를 표현합니다. 상징성과 낭만성이 짙은 취안저우 조각은 중국 민간 예술 역사에서 휘황찬란한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다.

형식 면에서 보면 조각가의 창작 의도와 심미적 흥미가 표현되어 있는 민남 조각은 조각 장인의 예술적 재능을 나타냅니다.

민남 조각에는 특별하고 다양한 조형적 특색, 조형의 완전성, 장식적 표현방식, 과장된 도형, 추상적 무늬, 화려한 색채가 나타나 있는데, 이들 모두 남방 아열대 색채를 지닌 중원 문화 유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각 예술을 예로 들면 취안저우의 석조, 목조, 자기 조각은 취안저우뿐만 아니라 민남의 우수한 전통 공예미술품을 대변합니다. 취안저우의 조각 예술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1) 취안저우의 석조

취안저우에서 생산되는 백화강암과 청강석은 투명하고 반짝이는 광택과 세밀한 재질로 국내외에서 유명합니다. 취안저우 지역의 개인 주택, 사당, 절, 패루, 탑, 정, 각, 교량 등은 화강암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취안저우 석조와 건축 예술이 융합되어 최고의 심미적 및 실용적 가치를 표출하고 완곡하고 섬세하고 정교하며 부드러운 남파 예술 스타일을 형성합니다. 형식과 정신을 겸비하고 있으며 생동감과 기세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용주와 돌사자가 있으며 원조, 부조, 투조, 선조, 심조, 영조 등 모든 조각 기법이 녹아 있습니다.

사진: 취안저우의 민간 건축

사진: 취안저우의 사당 건축

사진: 낙양교

사진: 북송의 서상암 석가모니 입상

사진: 노군암 조각

사진: 당대 석조 작품들

2) 취안저우의 목조

목조는 취안저우의 전통 공예 중 하나로서 절, 민간 주택의 기둥과 대들보의 화려한 그림들로 대표됩니다. 취안저우 목조 공예품은 관음보살, 관우상, 무신상 및 재물신상, 미륵불, 역사적 인물인 이태백의 술 취한 모습, 소무의 목양, 죽림칠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교한 공예와 완벽한 이미지 연출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목조 공예품은 작가의 심미관과 예술적 기교, 개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불조금신(佛雕金身)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목조 불상은 ‘천남불국(泉南佛國, 취안저우를 지칭-역주)’ 각 사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취안저우의 목조에는 고부조와 세밀하게 여러 층을 표현한 투조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회곡 인물, 꽃과 새, 길짐승 등이 주요 소재로 차용되었습니다. 매우 섬세한 기법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사진: 노사립 대사(盧思立大師) 목조

사진: 강가주(江加走) 목우 조각

사진: 당대 목조 작품들

3) 취안저우의 자기 조각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덕화요 도자 공예는 당대에 형성되어 송, 원, 명, 청대에 흥성했습니다. 덕화요로 생산된 불상은 정교하고 생동감이 넘쳐 국내외 조소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음상은 덕화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지만 점차 세속적이고 미녀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민남 지역에는 고대 자기 산업이 매우 발달해 엄청난 품종을 자랑하고 수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상 ‘도자기 로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복건의 청화자기와 광둥의 청화자기는 ‘민월 청화자기 요계(窯系)’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 덕화 도자기는 대량으로 해외로 판매됐습니다. 명대, 덕화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유백색 유약 자기는 ‘백건(또는 ‘건백(建白)’, ‘저유백(豬油白)’, ‘상아백(象牙白)’)으로 불리고 서양에서는 ‘중국백’으로 불립니다.

덕화요 도자기는 역사적 인물, 미인도, 동물, 화훼 등 창작 소재가 광범위합니다.

덕화요 조각은 원명 시대부터 ‘생동감 넘치는 사의(寫意)와 옷주름의 표현을 중시하는’ 우수한 전통을 통해 형식적 흡사함보다 정신적 흡사함을 중시하는 중국 전통 창조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명청 시기에는 자신만의 조형 및 장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하조종(何朝宗)의 자기 인형 관음, 관우공 등 인물 조형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기타 민간 미술

이요보(李堯寶) 종이 조각(사진)

취안저우 꽃등(무골화등(無骨花燈)과 요사화등(料絲花燈)) (사진)

목우 머리(사진)

영춘(永春) 종이 직물화(紙織畫) (사진)

영춘 도료 바구니(漆籃) (사진)

안계 등철(藤鐵) (사진)

칠선조각(漆線雕) (사진)

6. 취안저우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생각

오늘날 취안저우 민간문화는 시대에 따라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끊임 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안저우 민간 예술가

가 어떻게 자신만의 특색이 있는 언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는가? 둘째,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면서도 당대의 예술적 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셋째, 경제 글로벌화, 문화 다양화 속에서 취안저우 문화기업은 어떻게 자신만의 전통과 문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넷째, 정부는 문화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 회귀’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과 대표성, 안목, 발전 전망을 갖춘 민간 문화기업(특히 문화공업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문화기업이 선두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합니다.

2) 민남 문화 브랜드와 3대 특색 문화 브랜드, 즉 본토 문화를 특색으로 하는 ‘오남(五南)’ 문화 브랜드, 대타이완 문화를 특색으로 한 ‘오원(五緣)’ 문화 브랜드, ‘해상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 문화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조성해 취안저우 도시 품격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민남 문화, 취안저우 문화의 영향력과 흡인력을 강화합니다.

3) 민남 민속 문화, 차 문화, 도자기 문화, 조각 공예 문화, 향 문화, 패션산업 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문화를 이용해 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장을 통해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만들며 우수한 제품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멀티 기능, 멀티 형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4) 다양한 자금 조달 루트를 확보하고 문화산업 펀드를 운영합니다. ‘문화산업 발전기금’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도입해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원화, 사회화, 공공화를 이룬 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 지역 경제와 지역 문화 특색을 결합하고 취안저우 문화산업 발전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산업과 도시를 연동해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심 지역으로서 문화산업에서 시범주자의 강점을 발휘해 시급 문화 아이디어 산업단지를 설립합니다. 각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아이디어, 영상, 공연, 광고, 관광 레저, 전통 공예 미술 등 민남 민속적 특색이 풍부한 다양한 문화권을 조성합니다.

6) 문화산업과 전통 강점 산업, 관광, IT, 금융 등 산업을 통합 발전시켜 지역 내 각종 자원을 통합하고 과학 혁신을 통해 문화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또한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해서 공업 디자인 산업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제조업의 문화적 의미와 제품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제조업과 문화업의 윈윈을 실현해 문화공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7) 문화기업 설립을 이끌고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를 완비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채적재산권 창조를 목표로 문화 혁신 능력을 강화합니다. 자주 혁신 실적, 핵심 기술, 우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국내외에서 관련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문화 제품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안저우의 지역문화와 민간 공예미술’을 읽고

양희석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취안저우하면 아마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마르코 폴로는 취안저우를 통하여 중국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는데, 그 때 취안저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도시에는 값비싼 보석과 크고 좋은 진주를 비롯하여 비싸고 멋진 물건을 잔뜩 싣고 인도에서 오는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가 있다. 만지의 상인들은 이 항구에서 주변의 모든 지역으로 간다. 수많은 상품과 보석이 이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은 보기에 놀라울 정도인데, 그것들은 이 항구 도시에서 만지 지방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기독교도들의 지방으로 팔려 나갈 후추를 실은 배가 한 척 알렉산드리아나 다른 항구에 들어간다면 이 차이톤(당시 취안저우를 부르는 명칭) 항구에는 그런 것이 100척이나 들어온다. ... 이 강에는 다섯 개의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강이 여러 지류로 갈라지는 곳에는 다리의 길이가 3마일이나 되는 것도 있다. 다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다. 교각들은 거대한 돌을 차례로 쌓아서 만들었는데, 그 돌들은 가운데 부분은 두껍고 양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그래서 그 뾰족한 끝은 강물이 흘러오는 쪽을 향하면서, 동시에 바다로부터의 강한 역류에 대비하기 위해 바라를 향해 있다. ... 이 지방에 있는 톤주(Tingiu)라는 도시에서는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크고 작은 각종 자기가 만들어진다. 이 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느 도시에서도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 그것들은 그곳에서 전 세계로 실려 나간다. (김호동,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406-4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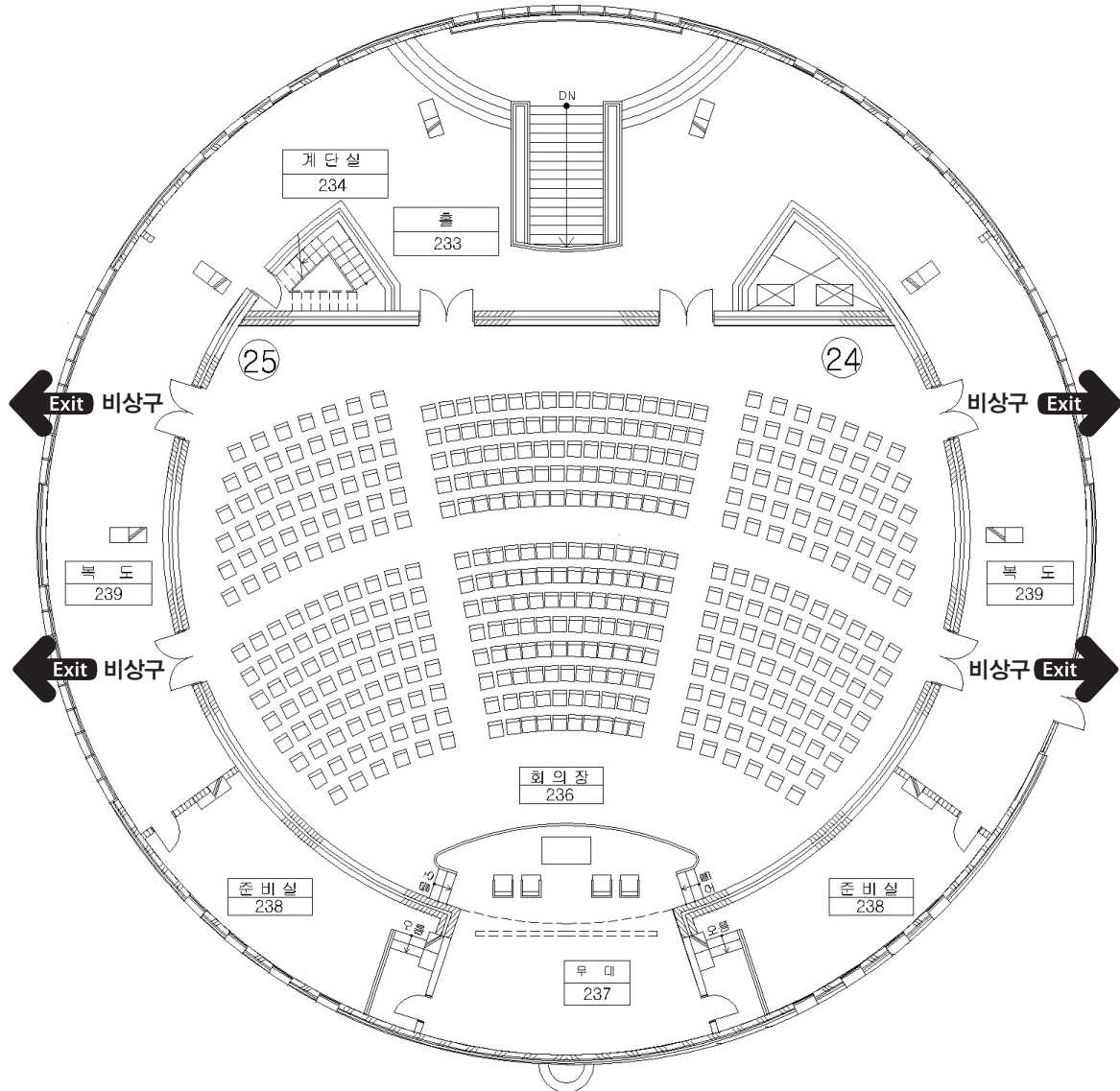
지중해의 대표적인 무역항인 알렉산드리아보다 100배 많은 배가 들락거리는 취안저우, 거기에는 아름다운 석조 다리가 놓여있고, 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기가 산출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쿠빌라이 대몽골제국 시대 해상실크로드의 전진기지로써의 취안저우가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연구자로서 진정으로 취안저우가 매력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거기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연극(南戲)과 음악(南音)이 활화석(活化石)으로 남아 있는 것을 비롯하여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인형극(木偶戲)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종교박물관”이라는 별명처럼 동서 종교가 서로 배척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그 자취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원송 선생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 취안저우 문화산업의 기반 조건, 2. 취안저우 공예미술산업, 3. 취안저우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안인데, 이중 중점은 두 번째 공예미술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석각(石彫), 목각(木彫), 자기(瓷彫)로 나누어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있다. <동방견문록>에 이미 석각과 자기가 언급되고 있거니와, 2013년 취안저우의 문화산업 부가가치

269억 위엔 중 민간공예산업이 약 138억 위엔으로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 본 발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민간공예산업은 취안저우의 문화산업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사례로 보인다. 본 발표는 자료와 현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 관점에서 토론하기 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한다.

1. 취안저우 지역의 민간공예가 이처럼 발달하였던 이유는 일찍이 국제적 교류(해상실크로드 기점)가 성행했던 점과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취안저우 민간공예가 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2.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세 도시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구호를 내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광주가 “인권과 평화”를 내건다면 취안저우는 무엇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 용봉홀의 비상구는 총 네곳입니다.
- 비상상황 발생 요소 발견시 즉시 행사 담당자에게 신고 바랍니다.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안내자의 지시를 따라 비상구로 탈출해주시요.